

2025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일 시 2025년10월29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그리고 각각의 소속기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 60개 기관에 대하여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이번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사항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종합감사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께서도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명확한 소명과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한편 오늘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전 10시 29분부터 서울 전역에서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릴 예정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시간에 맞춰 우리 위원회가 함께 묵념을 실시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중간이더라도 잠시 안내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청장 등 총 60개 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기관증인 대다수가 출석하여 있습니다. 다만 공간 제약으로 인하여 좌석배치도에 명시된 인원 외의 기관증인은 국정감사장 외부에서 대기 중이므로 국정감사장 외부에 대기 중인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은 미리 신문 대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의석 자리에 내부에 앉은 분들과 외부에 앉은 분들 자료를 배포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은 총 115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채수희 해외홍보정책관과 이정은 디지털소통관은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사유로, 민인기 국립합창단장은 예정된 공연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용산 개관 20주년 기념 학술행사 참석을 위해 오전 감사에 불출석하였다가 오후 감사부터 출석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애령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같은 학술행사 참석을 사유로 오전 감사에만 출석하였다가 오후에 이석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의 선서는 각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이미 실시하였고 그 선서가 종합감사에도 유효한 것으로 공지하였으므로 전체 증인에 대하여 선서서만 받고 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 또는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후속조치 현황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피감기관들의 후속조치 현황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형배 위원님께서 10월 16일 국정감사 때 요청하셨던 캄보디아 인력 파견 상황 및 안전점검 결과 자료를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지금부터…… 사전질의 있습니까?

○조계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14일 우리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본 위원의 신문에 천부당만부당만 되풀이하며 어폐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의를 통해 노관규 시장의 위증에 대해 거론하겠지만, 오늘 재출석을 통해 14일 국감에서 말한 위증을 취소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각오라고 궤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순천 신대지구 개발이익이 순천시민이 아닌 중흥건설의 호주머니로 돌아가게 한 장본인이 바로 노관규 시장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10월 14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 예고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서 승인권자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위증했습니다. 당시 시의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신대지구 사업에 대해 시청 담당 국장들도 보고했고 노관규 시장은 직접 시의회에 나가 신대지구 사업에 대한 시정연설까지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승인 권한이 넘어간 것은 2008년이고 2006년 사업 승인 당시 재경부에 사업 신청은 순천시가 했습니다.

노관규 시장은 2007년 7월 12일에 사업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를 만들고 순천시 국장 출신인 권종문을 대표로 임명하고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순천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참회해도 부족한데 역으로 위증하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관규 시장은 공개된 장소에서 자기 입으로 자랑한 김건희표 예산까지도 지난 10월 14일 국감에서 부정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를 꼬셔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예산을 받아 내려 한 그 사실 자체가 바로 국정농단 범죄이며 국정감사 증언대에 서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한 것 또한 위증의 범죄입니다.

순천부 읍성 남문터 조성사업은 국비 38억, 시도비 포함 349억을 들여 완성한 2022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우수상을 받은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노관규 시장은 역사성과 효용성이 없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철거하고 애니메이션·웹툰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시의회에서 어떠한 동의 절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위증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법 위반 범죄입니다.

이외에도 순천만정원의 항지해 작가의 ‘갯지렁이 다니는 길’의 철거를 동의받고 했다는 위증, 전라남도 감사에서 홍수 대비 저류지 기능을 회복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천 그린아일랜드가 안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위증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증인신문이 종료될 때까지 노관규 시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지난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부분과 범죄혐의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은열 회장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된 음저협 추은열 회장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의 요청에 따라 중국 북경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중국의 공식 음악저작권 단체인 MCSC와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유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방중을 요청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거짓입니다. 저희 의원실이 확인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 실제로 보낸 초청 공문에는 추은열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와 전혀 다른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초청 공문에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음저협의 고위 경영진과 관련하여 비위 의혹이 몇 차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해명을 자매기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25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여 단체들에게 직접적인 설명을 할 기회를 활용하기를 권고한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은 한국음저협 고위 경영진의 비위 이슈를 방중 요청의 실제 사유로 삼았으며 방중 일자 역시 29일 또는 30일 중 참석할 것을 권고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은열 회장은 국감에서 거론된 중국 음악저작권 이슈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우고 권고를 마치 29일에 반드시 시급히 가야 하는 필수 행사인 것처럼 바꿔 말하며 국정감사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국회를 기만하는 명백한 행위이며 최근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음저협의 비위에 책임을 져야 할 고위 경영진이 국정감사를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국정감사를 기피하고 허위 사유서로 국회를 속인 행위에 대해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5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추은열 회장을 즉각 고발할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더 나아가 본 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는 우리나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비위 실태를 명확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확실히 비리를 뿐만 아니라 저작권 신탁단체와 저작권위원회·보호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것도 여야 간사끼리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이기현 위원 위원장님, 지난 22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그리고 최용천 국가유산 청장에 대해서 저희가 중인 출석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서도 발송하고 그리고 행정실에서 자택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도 받지 않고 그리고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받지를 않았습니다.

김전희의 국정농단이 국보농단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두 분은 고위직 공직자였습니다. 한 분은 장관급 공직자였고 그리고 최용천 유산청장은 차관급 공직자였는데 이 두 분이 모두 다 이렇게 국회를 능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위원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요청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만약에 이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거나 그리고 수령하고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오늘 오후까지 위원회 차원의 고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연욱 위원님.

○정연욱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참고인이지만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했던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대한 참고인 신청에 대해서 박 위원장이 불출석사유서를 보내 왔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분과회의 진행을 위한 업무와 현재 진행 중인 케이팝 아티스트 프로젝트 업무 및 프로듀싱 작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국감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과연 이 불출석, 물론 참고인이니까 반드시 이 자리에 올 건 아니겠지만 대중문화교류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가 갖는 위상을 감안하면 오히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현장에 와서 본인이 강조하고 있던 K-컬처 300조 시대를 여는 대표적인 여러 기획들 그리고 행사 계획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셨던 행사에서 대표적인 행사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마 국민들은 그 부분을 국감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분과회의 진행이라는 게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이 국감 현장에서 박진영 위원장이 직접 설명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 판단에 따르면 이런 불출석 사유가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K-컬처 300조라는 건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그 대표적인 케이팝의 사실상 기획의 리더 격인 박진영 위원장이 이 자리에 와서 직접 설명을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소명하는 그리고 이해를 구하고 본인의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가 꼭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 부분도 여야 간사님들하고 협의해서 위원회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 시점에 상임위에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듣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지난 10월 14일 문체부에 대한 감사 시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참사 이후 문체부의 대처 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화재 참사 이후에 행안부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돼 있고 각 부처에는 자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돼서 일일 복구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점검한 것을 행안부 중대본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의를 하지 않고 텔방을 통해서 회의를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실제 회의를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서 행안부까지 보고했던 그런 내용을 지적했었는데 그 당시 장관은 그런 내용의 사실이 없다, 직접 회의를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에 재차 확인하니까 문체부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답변에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마는 재난 상황에 대해서 타 기관에 보고하는 보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서 보고한다는 것은 심각한 국기문란이고 공직기강 해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관이 국회에서까지 잘못된 그런 답변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또 유감 표명 또 관계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소명을 좀 받아 주시고요.

아울러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대중문화교류위, 방금 정연숙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저도 오늘 관련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10월 1일 날 출범식을 했었는데 이게 위낙 출속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 또 편법적인 정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대중문화교류위 관련 근거 법령인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절차대로 이행이 됐는지 특히 관계부처 협의에 있어 가지고 행안부·기재부, 위원회 설립은 필수적으로 두 부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공문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출범식을 위한 행사 용역을 했는데 굉장히 단시간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받은 견적서 또 최종 업체를 선정한 선정 기준 또 선정 관련되는 서류 일체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지금 문체위 소관기관 캄보디아 인력파견 상황 및 안전점검 결과를 봤습니다. 점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 격려의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말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오늘 조금 전에 이기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웅천 전 국가유산청장은 불출석 사유서 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석해 달라는 통지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김건희의 문화유산 사유화와 침탈 사건의 진상을 밝힐 핵심 증인들이지요. 이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정확하게 해 줘야 권력 사유화의 고리를 끊고 내란을 정리해 가는, 청산하는 그런 진정한 고리를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불출석한다? 이런 저는 단순히 국회 회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실을 은폐하고 내란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다짐이나 선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몹시 불편합니다. 아직도 이런 사고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접하는 게 정말 불편합니다.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

이기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엄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동행명령장 당장 발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이번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약에 오늘 나오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고발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야 간사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 2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도 나오지 않는다면 최웅천·이배용, 두 분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는 일문일답……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교홍** 그거는 내가 질의 들어가서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연욱 위원님부터 하시는데 조금 전에 김승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 장관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먼저 하시고 정연욱 위원 질의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지난번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던 부분을 국감이 끝난 후에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의에 대해서 제가 주재했던 비대면 회의, 그러니까 현장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대면 회의를 하다가 비대면 회의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재했던 비대면 회의가 차관 주재 서면회의로 중대본에 잘못 보고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중대본에 보고가 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정연욱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내걸었던 K-컬처 300조 그리고 외래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여는 대표적인 공약이지요—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과연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행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저는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저는 몇 가지를, 두 가지를 더 짚어 보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K-컬처 300조 원 달성을 계획을 묻는 자료 요구에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정책금융 10조 원, 제작비 세액공제 연장 등 각종 지원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물론 아직 여러 가지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그걸 전제로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좀 아쉽다,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겁니다. 새 정부 출범 후에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내용 중에 보면 콘텐츠 국가 전략산업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지요. 이 자료입니다. 상당히 두꺼운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의 표현 하나 하나 다 똑같이 2024년 6월, 작년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결정으로 문체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PPT를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토씨 하나 안 바꿉니까?

정책금융, 이 내용의 각론은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정책금융을 5조에서 10조 원 늘린다’, 이 정도가 하나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복붙’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더 웃기는 건 이겁니다. 자료를 보다 보면 시행계획 자체가, 이겁니다. 이미 8월 달에 정부 답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월 달부터 K-컬처 300조 포함한 이 계획을 시행한다고,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자료를 보시면 이미, 보십시오. 어떻게 정권도 안 바뀌었는데 2025년 1월부터 해외 현지출원…… 1/4분기 사업계획이, 과제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권 인수 준비를 25년 1월 달부터 했다는 얘기입니까?

문체부가 저희한테 발표는 최소한도 정권 출범 이후에, 국정기획위원회 발족 이후에 8월부터, 상식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국정과제를 준비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지 실제 내부적으로 보낸 자료를 보면 25년 1월부터 무슨 온갖 계획을 세우려 했다고 발표하는 이 정신머리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부적인 검토를 해 둔 겁니까? 제가 따져 본 겁니다.

○ 위원장 김교홍 정연욱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29 참사 3주기 지금 묵념 사이렌이 울렸거든요.

모두 일어나셔서 묵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마음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욱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우리가 K-컬처 300조 시대를 여는 모든 취지에 여야 모두 포함해서 동의할 것이고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취지에 모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고 이런 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가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대중문화 육성에 대한, 발전에 대한, 케이팝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한 K-컬처 300조라는 이 구호 자체에 대해서 결국 구호만 내거는구나, 내용도 없구나…… 역대 정권 정부 여당이, 과거 윤석열 정부부터 다 문제는 삼지만 그 문서 그대로 베껴 가지고 다시 그 계획이랍시고 내거는 이런 구태의연한 태도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건지라는 점에서 분명한 반성이 필요하고 철저한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K-외래관광 3000만 이것은 제가 이미 국립중앙박물관에 외국인 비율이 겨우 4%도 안 된다는 부분까지 여러 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장을 장관이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분명하게 앞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27년까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지금 발표까지 했습니다. 또다시 국민들에게 이런 혀탈감을 줘서는 안 될 겁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른바 전주 하계올림픽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김관영 전북지사가, 어제 행안위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다시 이 부분이 다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체부와 기재부 승인을 거쳐야 하고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게 부처의 입장’. 아마 사전타당성조사 계획과 관련된 홍보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또 김관영 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40% 지방 부담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문체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도 그렇고 기재부와의 재원 확보도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일괄적으로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지만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전북도, 문체부, 체육회, 기재부, IOC 모든 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뛰기만 뛰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컨트롤타워도 없고 각자 부처 입장만 얘기하고 전북도는 전북도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장관도 잘 아시겠지만 기재부 규정상 국제행사 총사업비의 40% 이상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해서 국비 지원은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북도가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규정은 또 정부 규정이라서 쉽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미 그저께 하계올림픽 얘기는 충분히 지적을 했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IOC의 규정 그리고 집중해야 되고 분산 유치 어렵다는 얘기, 큰 대원칙은 여러

차례 강조가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치밀한 논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문체부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하고 컨트롤타워를 해야 됩니다. 이 하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 대행사를 과연 이런 식으로……

1분만……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주세요.

○정연욱 위원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근본적으로 회의가 듭니다. 도대체 대한체육회, 전북도, 기재부 이런 조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전북도 자체 사업으로 그냥 두실 겁니까? 아니면 문체부가 책임을 지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정 역할을 하실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답변 과정에서 열심히 해서 잘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 가지고는, 이것은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사전타당성조사를 해서 IOC에 넘겨서 바로 성적을 매겨 가지고 결정이 나는 사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허투루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정부가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갖고 있는 의미나 무게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 국가 어젠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는 개최 희망 도시인 전북에서 사전타당성을 조사해서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준비가 되면 문체부에 제출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협의가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출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IOC에 신청하는 프로세스는 지금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져 있습니다. 늦춰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사전에, 사전부터 협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연욱 위원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만사태평하다는 느낌입니다.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것 착각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문체부 입장에서는 개최 희망 도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이 먼저 정해져야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먼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 요청이 오면 그 부분은 저희도 긴밀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정부 규정 자체가 하나같이 지금 전부 다 아귀가 안 맞고 전북도는 전북도대로 사실상 어렵다고 선언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여유 있게 지켜본다? 그러면 국회나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올림픽 유치는 개최 도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최 도시에서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먼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김교홍 전북도의 계획과 앞으로의 준비 상황을 가지고 잘 회의를 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 병의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장님 나와 계시지요? 일어나서 좀 나와 주실래요?

○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고궁박물관장 정용재입니다.

○ 이기현 위원 23년 3월 5일 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가 고궁박물관에 갑작스럽게 방문했지요?

○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맞습니다.

○ 이기현 위원 초청을 하셨습니까, 갑자기 왔습니까?

○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갑자기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현 위원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그 3일 전인, 윤석열과 김건희가 방문하기 3일 전인 3월 2일 날 김건희 씨가 혼자 고궁박물관에 방문해서 관람하고 지하에 있는 제2수장고 관람한 사실이 있지요?

○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맞습니다.

○ 이기현 위원 언론 보도 보셨지요?

○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 이기현 위원 제2수장고에는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 어진 등 매우 중요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지요? 보관되어 있지요?

○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맞습니다.

○ 이기현 위원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요?

○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맞습니다.

○ 이기현 위원 들어가려면 다섯 차례 이상의 시건장치를 풀고 들어가야 되고 보안카드도 이용해야 하지요?

○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맞습니다.

○ 이기현 위원 그다음,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역대 대통령 영부인이 수장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없습니다.

○ 이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에는 출입명부를 엄격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맞습니다.

○ 이기현 위원 PPT 또 바꿔 주세요.

입장한 사람의 이름을 다 써야 합니다. 저 화면이 지금 작아서 그러는데 3월 2일 날 기록이 있습니다. 그 방문했던 시간대에 9시 30분에서 12시 20분까지 수장고 1·2 그리고 수장고에 대한 출입 사유는 ‘구입 접수 유물 격납’이라고 써 있습니다. 맞지요?

○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맞습니다.

○ 이기현 위원 여기에 김건희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왜 누락했어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이 부분들은 저도 전임 관장과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조사 를 해 본 결과 당시 상황에 경황이 없어서 그 직원들이 누락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기현 위원 경황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수장고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연구 등을 위해서 열 램신청서 미리 작성하고 관장에게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열람신청서 작성 없었지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물을 열람 하거나 복제할 때는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요.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짚은 거고요.

결국 본인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김건희가 사전 절차도 무시하고 문 을 열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문 열라는 한마디 지시에 규정 다 무시하고 문을 열어 준 꼴입니다.

관장님, 당일 오전에 갑자기 온다고 연락받았지요, 3월 2일 날?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이 부분들은 지금 사실 조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 방에 보내 온 자료에 의하면 문체비서관실로부터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초기에 저희가 자료제출했을 때 문체비서관실이라고 표 현했는데요. 2월 27일 날 운영기획과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전에 저희 직원 들에게 김건희 여사의 방문을 준비하라고 하는 메일을 저희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당시 문체비서관이 누구입니까, 황성운 실장이지요? 일어나 보시지요. 앞으로 좀 나오 세요.

황성운 비서관님, 국감 때마다 저희가 불러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PPT 바꿔 주세요.

이번에 경회루 방문에도 본인 같이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저 화면에 흐리게 처리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몰라봤는데 문체부 직원들 이 다 실장님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날 근정전 어좌에도 김건희가 올랐던 것이 확인이 됐는데 어좌에 올라갈 때 황성운 비서관 같이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근정전에 들어갈 때는 있었는데 어좌에 앉으시 는 장면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말이 됩니까? 담당 비서관이, 대통령의 부인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올라가 보라는 권유에 따라서 앞면도 아니고 측면으로 올라가는데 담당 비서관이 안 보고 있었다고요? 눈을 얻다 두고 있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제가 미리 나온 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기현 위원 말이 됩니까? 부속실 직원도 아니고 의전실 직원도 아니고 해당 비서관이었어요. 그런데 해당 비서관이 근정전에 들어간 대통령 부인을 놔두고 밖에 나왔다? 이게 용납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 이기현 위원 이배용 위원장은 장관급이었고 최웅천 청장은 차관급이었고 그 당시 본인은 1급 고위공직자였어요. 그런데 어좌에 올라가려고 하는, 장관급이라는 양반은 어좌에 올라가라고 부추기고 그리고 유산청장과 그리고 1급이었던 대통령을 보필해야 되는 문화체육비서관은 어좌에 오르려고 하는 김건희를 제어하지 않았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공직생활 30년 하셨잖아요. 문화재보호법 위반이고 그리고 직권남용일 수 있는 그 범죄행위에 대해서 그 두 사람 뭐 했습니까? 공직자로서 30년 그리고 문체부에서 문화재 보호하라고 공직에 소임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뭐 하셨어요? 올라가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인지 못 했던 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기현 위원 지금 사진이 경회루 사진만 있어서 본인이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제가 먼저 나왔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이기현 위원 이 문제 관련돼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고 황실의 후손들까지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좌에 김건희가 올라간 것이 타당합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법적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의 상식에 반하지 않는 일입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적절하지 못했던 행동이라고……

○ 이기현 위원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까, 불법입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위법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황성운 비서관님, 황성운 기조실장님, 지금까지 김건희와 지금 나와 있는 사진 말고 문화유산 궁과 능에 그리고 미술관에 불법적으로 들어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사진 안 나왔다고 사진 나온 것만 인정하시고, 작년 국감에도 그러셨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진 나오면 본인 위증 됩니다.

또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이 건 말고 또 어떤 궁에 갔었던 일이 있는지, 수행한 일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제가 기억하는 것은 경복궁 간 거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종묘 갔을 때 같이 간 기억이 있습니다.

○ 이기현 위원 고궁박물관장이 2월 27일 김건희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메일 받았다고 합니다. 오전에 저희 방에 제출한 자료예요. 메일 보냈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아마 보냈으면 담당 행정관이 보냈을 거라고 생

각됩니다.

○**이기현 위원** 그리고 아까 경회루하고 지금 얘기한 종묘 말고 본인이 수행한 적이 없어요? 위증하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제 지금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2건……

○**이기현 위원** 지금 기억이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KTV 황제관람 관련돼서도 제가 질의할 때 본인 사진 나오고 증거 나오고 진술 나오면 또 말을 바꿔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올해는 못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2건 말고 또 수행한 일이 있는지 제가 또 묻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나머지는 공식 행사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나머지는 공식 행사가 아니고 이렇게 문화재를 사적으로 활용한 행사에 본인이 수행했던 일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제 기억에는 따로 없습니다.

○**이기현 위원** 따로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운 실장님, 제가 잠깐 여쭤보겠는데 대통령 부인은 그 안에 있는데 그 당시 비서관이 밖에 나올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동선 확인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냥……

○**위원장 김교홍** 동선 확인은……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오래 계시니까 그냥 제가 먼저 나왔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사유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위원장 김교홍** 동선 확인은 밑에 정용석 행정관도 있었잖아요. 정용석 행정관이 하는 거지 비서관이 동선 확인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정확한 사유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못 보았고 처음에 기사 나왔을 때도 제가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 기억이 없는데, 봤으면 아마 기억이 났을 텐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까 제가 먼저 나왔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말을 좀 정확하게 하세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왜 앉아 있어요? 마음대로 들락날락하세요. 지금 그런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다 앉아 있는데 본인은 사람들 많으니까 밖에 나가도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러면 김건희가 거기 간 게 그냥 놀러 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아닙니다. 10월에……

○**위원장 김교홍** 아니, 놀러 갔냐고. 잠깐 내 얘기 들어 봐. 왜냐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본인도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놀러 간 거지, 그게. 거기 그냥 고궁에 놀러 간 거네, 그럼. 그렇지요? 왜 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10월에 당시에 UAE 대통령……

○ 위원장 김교홍 아니, UAE는 창덕궁에서 했잖아. 그리고 대통령이 5일 전에 외교부 담당관하고 가서 다 사전답사했는데 UAE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당초에 10월에 방한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다가 연기되었는데요. 10월에 오셨을 때는 월대 복원식 기념행사와 연계해서 경복궁 방문하고 청와대까지 가는 것으로 당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아니, 우리나라의 고궁과 우리나라의 전통이 외국의 국빈이 오는 것에 맞춰서 그런 걸 합니까? 그 양반이, UAE의 국빈이 우리나라 월대 공사하는 것 보려고 했던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보여 주는 게 좋겠다는……

○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월대 공사하는 걸 보여 주는 건 아니잖아.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복원 기념식이 10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경복궁, 청와대 이렇게 방문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 양문석 위원 아니, 대통령 부인이 사전 점검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 위원장 김교홍 외교부에서 나가서 해야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맞냐고, 그게. 기조실장님, 그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외교부에서 나가서 자기들이, 국빈이 오면 외교부에서 나가서 해야지 대통령 부인이 거기 왜 나가요?

이 배용은 무슨 자격으로 거기를 와요, 국가교육위원장이?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것은 부속실에서 아마 한국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 위원장 김교홍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적 놀음 아니야, 사적 놀음. 사적 놀음에 공적으로 여러분들이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본인도 나갔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얘기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10월에 월대 복원식에 김건희는 안 갔잖아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최종적으로 UAE 대통령 방한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대통령님과 역사 방문하는 계획도 다 같이 취소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아니, 우리나라 전통의 복원식에 외국의 국빈이 오면 참석하고 외국의 국빈이 안 오면 참석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UAE 국빈에 맞춰서 우리 대통령과 부인이 참석하고 안 하고 해? 사전답사까지 갔다 온 사람이? 무슨 그런 원칙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내 얘기에.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당시 대통령 일정상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문체부 최휘영 장관님,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연장 사고 문제를 예술의전당이 선제적으로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서 문체부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술의전당 측에서 관련 보고 받으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 진종오 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진종오 위원 우리가 국감장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매년 똑같은 반복 사고가 일어나는 중대한 문제를 현장에 있는 책임자들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고 수정 조치가 안 되는 겁니다.

장관님, 그리고 26일 공연장 관련해서 YTN 보도 보셨어요,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봤습니다.

○진종오 위원 사망사고 난 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진종오 위원 이게 오페라 리허설 도중에 무대장치가 낙하해서 척수 손상을 입은 사례예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되고 성악가가 결국에는 끝내 숨졌어요. 이런 게 반복적인 사고가 나는데도 대책이 없다라는 게 안타깝기도 하지만 저는 왜 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체부가 주력사업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진종오 위원 사건사고가…… 나중에 좀 기회 드릴게요. 사건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이것은 대책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파악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2% 수준이래요. 그러면 보험 자체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무용수는 본인 돈으로 1000만 원 병원비를 전액 다 부담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악가 역시도 보험이 안 돼서 수억 원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다가 결국에는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장관님, 예술인은 근로자예요, 아니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근로자입니다.

○진종오 위원 근로자지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보장을 아예 못 받아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시지요? 저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KTL 아시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 KTL에서 공연장 안전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최근 5년간 230억을 썼어요. 한 해에 한 50억 정도 사용을 한 건데, KTL이 연구도 하고 안전검사, 그리고 기술도 잘 마련했는데 문체부가 현장에서 반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나왔어요.

문제가 뭐냐면 KTL은 연구 잘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그냥 기준만 마련한 거예요. 기준을 보면 상세하게 잘돼 있어요, 구조물의 균열 및 파손 상태, 볼트·너트의 고정 상태, 장치봉의 설치 상태 이런 것들. 분량이 꽤 많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도로 분량이 꽤 많은데 디테일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핑계는 현장에 관리감독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면 관리감독 인원이 부족하면 당연히 증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있는데 KTL에서 27억 원 들여 가지고 방화막 설치 규격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지요? 450Pa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반영하지 않은 이유,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방화막 하중의 문제라고. 그런데 그 하중의

문제는 사무관이 장관님께 보고한 내용 그대로예요. 장관님은 그대로 말씀하셨고. 지금도 검토 안 하셨지요, 제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내압 성능에 대해서는 검토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중 말씀드렸던 것은 300석 이상의 공연장에 대한 방화막 부분이었고요.

○진종오 위원 아니요, 그것은 다르게 보셔야 돼요. 300석 공연장이라고 해서 하중을 못 버티는 게 아니라 방화막 설치를 기준에 맞게 다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장관님, 본 위원이 보완하기 위해서 공연법 관련해서 법안 발의한 것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봤습니다.

○진종오 위원 어떤 기준, 어떤 시선으로 보실 생각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적인 시선으로 보실 건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선으로 보실 건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후자이고요. 예술인에 대한 안전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예, 좋습니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장관님께서 국제적인 스탠더드 기준에 맞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설치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공연장도 건설 현장처럼 전담 관리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대감독들이 대부분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무대감독은 다른 쪽의 시설 안전이라든지 여러 곳을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저는 전담 안전관리사 제도를 우리가 의무화해야 된다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연 관계자들도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연장을 보면 아주 작은 화재, 공연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공연장에 전체적으로 경영난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때는 그 화재에 대한 것을 다 복원해야 되고 관람객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할 수 없다 이것은 평계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장관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다면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리고 위원님……

○진종오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좀 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 산재보험 말씀이 있으셔서요. 그 부분은 지금, 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노동부가 국정과제로 전 국민 산재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예술인들도 산재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진행을 하려고, 내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진종오 위원 예술인이라는 포함 범위도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 부분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술인도 반드시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이라도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부담을, 빨리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사이에라도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30초 정도만요.

장관님, APEC 지금 이제 곧 시작이지 않습니까? APEC 관련해서 행사도 많고 공연도 많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은데, 이게 외교부 주최라고 하기는 하지만 공연, 행사 같은 것은 문체부장관님 소관이기도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맞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거기 관련돼 있는 봉사자분들도 과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된 뒤에도 관련자들 장관님께서 꼭 한번 다시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의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허민 국가유산청장님, 김건희가 주술과 무속에 심취했다는 말 들어 보신 적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언론을 통해서……

○조계원 위원 김건희의 발길만 땅으면 종묘가 카페가 되고, 근정전의 여좌가 개인 소파로 전락하고, 고궁박물관의 수장고는 개인 서재로, 명성황후 침전은 호텔 침실로 취급됩니다. 소중한 국가유산을 수호해야 될 국가유산청이 이를 막아서기는커녕 오히려 김건희의 국가 모독, 국정농단 행위를 비호하고 가이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더구나 명성황후 침전은 대통령이 당연히 수행해야 될 경호원까지 뿌리치고 김건희와 둘이서 10분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성황후 침전 속속들이 조사해서 주술과 무속의 흔적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철저히 전수조사를,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요, 침전을 속속들이 뒤져서 무속의 흔적이 있는지 찾아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저희들이 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조계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조사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김건희 여사, 김건희를 꼬셔서 당초 예산 300억 원에 그쳤던 애니메이션 예산이 2000억 원으로 되었고 400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관규 시장 스스로가 그때 당시 ‘정원에서 거짓말하기는 쉽지 않대요. 애니메이션하고는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김건희의 국정농단, 예산 개입 2000억 범죄를 노관규 시장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체부 예산안 증액의 미스테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확장한 그게 사실은 노관규가 거짓말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원도심을 축소하고 국가정원습지센터로 무리하게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 확장했던 거 그리고 리모델링을 빙자해서 남문터광장 시설물을 철거하고 예산을 낭비했던, 이 모든 의혹들을 풀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박보균 장관이 당시 장관이었는데 김건희하고 전화 통화하는 사이입니다. 사실상 이 예산에 김건희가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박보균한테 전화했던 상황까지도 MBC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었지요. 그리고 김건희가 전화했던 김성현 단국대 교수, 문체부 산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초대관장에 임명이 됐고요. 김건희와 통화했던 애니메이션 제작사 김일호 대표, 문체부 산하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김건희의 인사 개입과 국정농단, 예산 개입까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짧게 답을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 부분이 사실이라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김재현 국장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대변인 김재현 예.

○조계원 위원 화면 띄워 주시지요.

박보균 장관이 당시 콘텐츠정책국에 이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지시했지요? 순천시가 제출한 2023년 4월 13일 자 출장보고서를 보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을 1단계에서 310억 원으로, 2단계는 1690억 원으로 해서 총 2000억 원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대변인 김재현 예.

○조계원 위원 그 외에 지시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박보균 장관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대변인 김재현 일단 순천시에서 요청한 예산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는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때 당시 김건희 예산은 순천시청 2024년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서 2000억 예산으로 보고가 됐지요, 2025년, 2026년 해 가지고. 화면 보신 거 맞지요?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대변인 김재현 아니요. 순천시 보고 내용은 제가 그때는……

○조계원 위원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390억 2024년 예산 이외에 추가분은 2단계 사업인데 총액이 1690억 원이에요.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쪼개서, 500억 원 이하 단위사업으로 쪼개서 문체부와 협의를 했는데 협의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대변인 김재현 순천시에서 요청은 했지만 저희는 그다음 해 예산만 저희하고 논의하고 그건 나중에 별도로 검토하자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조계원 위원 그렇지요. 그 예산은, 2단계 사업은 결국은 추진이 안 됐지요.

장관님, 2단계 사업을 보면……

들어가시지요.

원도심만 대상으로 했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이 김건희의 개입으로 국가정원으로 까지 사업 부지를 확대하다 보니 사업 기간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윤석열이 탄핵되면서 이 예산이 결국은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그렇지만 지금 보여진 걸로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국비를 들여서 짓고 또 국비를 들여 부수는, 남문터광장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조계원 위원 이 남문터광장은 순천부읍성 복원 사업으로 조성이 되었는데요. 순천부읍성은 고려 후기부터 외부 침입에 대비해 만들어진 토성이고 남문은 순천부읍성의 제1문으로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했으며 3·1 만세운동 때는 순천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문체부도 남문터광장의 복원, 즉 순천부읍성 복원 사업에 국가적 예산을 지원을, 투입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의 역사성과 예술성, 효율성이 있었으면 철거할 필요가 없었다 발언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위해서 이 남문터광장에다가 확장한 예산, 김건희 예산을 투여해 버린 거예요. 그 돈을 좋은 데 쓴 게 아니라 이 남문터광장을 허는 데 썼어요, 국가예산을 들여서. 이런 엄청난, 사실상의 범죄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 사실 못 들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못 들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시의회 동의조차 거치지 않고, 지난번 국감에서는 자기가 시의회도 동의를 거친 것처럼 얘기했었어요. 이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 문제 문체부 차원의 감사와 고발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이 부분이 지방사무로 이양이 돼 있어서요, 이양이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름다운 남문터광장이 저렇게 철거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임오경 위원 지금 이 건에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했습니다.

보조금법 제35조 및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34조 등에 따르면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취득한 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문체부 등에 주기적으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해당 재산의 통상적 운영, 연한까지는 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관광예산이 투입된 많은 지자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체부 예산이 투입된 이 순천시, 지금 조계원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에 있어서 들어 보는 과정에서 부읍성이 5년도 안 돼서 철거되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하는 거 승인해 준 당시 국장이 누구인지…… 무소불위의 절차, 과정 다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한 기본이 안 된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 공무원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몇백억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종감인데 장관님께 요청을 해서 당시 담당 국장이 누구였는지 철저하게 밝혀 주시고, 이 담당 국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종감 전까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명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건 또한 김건희라는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기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고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장관님, 좀 전에 임오경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담당 국장을 찾아서 담당 국장이 소명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소명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존경하는 손솔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솔 위원 황성운 기조실장님, 잠깐 이쪽으로 나와 주시지요.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당시 균정전 어좌에 김건희 여사가 올라간 일에 대해서 먼저 나와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맞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손솔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요…… 언제 나오셔서 언제 다시 그러면 옆에 가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제 기억에는 균정전 들어갈 때 아마 다 같이 들어갔다가 거기에 머무른 시간…… 기본적 접검은 했기 때문에 저는 먼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나오셔서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22일에 국정감사를 할 때 정용석 사장님께서 근거리에 계셨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가 저희 위원님들의 질책에 이배용 위원장이 앉으라고 권유했다라고 말씀하

셨거든요. 밖에 나가 계셨다고 하더라도 어좌에 앉았던 사실은 그 당시에 알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모르겠습니다.

○손솔 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왜냐하면……

○손솔 위원 안에 사람들이 있어서 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서, 처음에 기사가 나왔을 때도 제 기억에는 그게……

○손솔 위원 실장님, 국립고궁박물관·근정전·KTV 다 같이 가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고궁박물관에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손솔 위원 김건희 여사의 유적 사적 유용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시지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적 유용의 안내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다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특검 조사 가서도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특검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손솔 위원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받을 예정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실장님이 옆에서 다 보신 사람입니다. 국민들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장관님, 국정감사 저도 이번에 처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사실 내란에 동조했거나 최소한 묵인한 사람들 문체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조치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첫날에 내란의 그림자를 거두는 데 전력을 다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장관님 그리고 유승민 회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27일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인3종협회의 대회 운반비 지급 관련 횡령 및 배임 정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맹호승 회장님이 직원 자녀의 회사 이름을 빌려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평에 돈을 받았다라고 당당하게 인정하셨어요. 저는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듯이 미성년 선수 성폭력 사건 부실 대응 그리고 협회장 횡령·배임 관련해서 대한체육회 그리고 문체부에서 저는 특별감사를 포함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부탁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빙상연맹에 대해서도요 많은 위원님들이 함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지도자 찍어 내기와 괴롭힘 문제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살펴보니까 김선태 이사뿐 아니라 연맹 각종 위원회에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들 다수 활동하고 있고요. 스포츠공정 위원회 공정위원 임의 교체 및 위원장 사퇴 등도 제기됐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

금 동계올림픽 100일 남은 시점에서 대한체육회, 문체부에서 촌각을 다퉈서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감사나 관리단체 지정,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손솔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18일에 가평 크리스탈밸리 골프장에서 작업 차량을 몰던 노동자 2명이 4.8m 굴다리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화면 보시면 그 당시의 사고 현장 사진이고요.

제가 어제 다녀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추락한 굴다리 위쪽에 안전펜스가 없어요. 그냥 연석이고 제가 위에서 보니까 아래 굴다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 바로 알아차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곳에 안전펜스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서울로 오는 내내 들었습니다.

안전대책에 대해서, 특히 야외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 보시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화재, 교통, 추락, 끼임, 붕괴 이런 것으로 소방청이 구조한 건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인데 2025년에 363건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골프장에서 9명이 사망을 했고요. 가평 사고 이번 것까지 추가하면 11명입니다. 부상자 수는 38명, 골프장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전국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었습니다. 위험요소와 안전사고 4점 만점으로 물어봤는데 모든 항목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왔어요. 홀과 홀 사이의 간격, 경사로 이런 문제가 대단히 곳곳에 있고요.

지난 8월 비 오는 날에 제가 화성 상록CC에 다녀왔는데 찍어 온 카트 사진입니다. 장관님, 여기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손솔 위원 유리창에 와이퍼가 없어요. 야외에서 계속하면 비가 오는 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캐디분들이 머리를 밖으로 빼고 운전할 수밖에 없고 머리가 부딪히는 사고나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저는 이것 방지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카트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저희한테 보내 준 경기보조원들이 적어 둔 글입니다. 낙뢰 문제나 악천후 때 대단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안전 정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안전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응답자의 88.2%가 성희롱 피해의 경험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성추행도 67.7%가 경험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겪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이런 일을 겪어도 10명 중에 7명이 아무런 보호 조치를 못 받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1분만 더.....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손솔 위원 그래서 야외 골프장 안전조치 문제 그리고 캐디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아무리 여성의 많은 곳이라고 해도 이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골프 예약 이럴 때 노동부랑 산업안전공단에서 매뉴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응답도 주셨어요. 44.1%입니다. 매뉴얼이 있어도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매뉴얼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매뉴얼이 실행될 수 있게 하는 데 저는 문체부 차원에서 조금 더 강력,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먼저 저희가 전면적으로 실태조사하고 안내하고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보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저희가 골프장 경기보조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고객응대근로자처럼 아주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무환경에서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쟁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대한철인이랑 빙상연맹 특별감사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그 부분은 지금 수사 중인 부분은 수사 중인 부분대로 하고요. 말씀하셨던 횡령 의혹이나 이런 것은 대한체육회와 협의해서 곧바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예.

○위원장 김교홍 황성운 기조실장님, 잠깐 여기 좀 나와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본인은 잘 몰랐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나는 나왔다, 그 뒤의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계속 이래요.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실의 문체비서관을 할 때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이 고궁을 찾은 게 총 열다섯 번이에요, 열다섯 번. 그중에 외교부에서 담당해서 간 것하고 국방부 이런 것 다 빼면, 공식적인 행사 빼도 아홉 번을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문체비서관이 그것 담당인데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거 너무한 것 아니에요? 아홉 번을 갑자기 들이닥쳐서 들어가거나 문 따라고 해서 들어가고, 사적으로 유용한 게 아홉 번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담당하는 문체비서관이에요, 대통령실의. 그런데 아주 남의 얘기 하듯이 아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내가 정말 보기가 볼썽사나운 것 같아.

김건희·윤석열 두 사람은 고궁을 내 집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 집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 그런데 그것을 총괄했던 문체비서관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념 없이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만 계속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아까 제가 간 적이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위원장 김교홍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

○위원장 김교홍 일말의, 문체비서관 할 때의 황성운 기조실장은 일말의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

○ 위원장 김교홍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답변해 보시라고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나중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들어가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잠깐 앞서 장관 유감 표명에 대한 이야기하고 자료 요구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유감 표명은 질의시간에 하세요.

○ 김승수 위원 자료 요구하고 같이……

○ 위원장 김교홍 자료 요구만 하세요.

○ 김승수 위원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앞서 오늘 참고인으로 우리가 채택하려 했던 박진영 대표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분과회의 참석 이유로 불참을 했는데 이게 정부 위원회 전체회의도 아니고 분과회의 참석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참한다는 것은 아무리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한 유감 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분과위원회가 지금 몇 차례, 한두 차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있었던 웹툰·애니분과 분과회의에 보면 네이버 웹툰의 김준구 대표가 위원인데 부사장이 대참을 했어요. 정부 위원회 같은 경우 정부위원 같은 경우에 장관이 위원인 경우에 참석이 어려우면 차관이 대참하는 그런 것들이 법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민간위원은 그 민간위원 개인을 위원으로 한 것이지 네이버를 위원으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위원이 참석을 못 하면 당연히 대리 참석자가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사장이 대참을 한 것인지 또 그동안 개최된 분과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여비 지급 내역을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교홍 장관님,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진영 위원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활동을 하는 어느 시점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출석을 해서 보고를 듣는 그런 순서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질의하십시오.

○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앞서 장관님께서 유감 표시를 하셨습니다마는 장관한테 보고되는 그런 보고 또 타 기관에 대한 그런 공문, 특히 재난과 관련한 그런 장관 보고와 타 기관에 대한 공문이 허위로 작성돼서 보고됐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국기문란이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를 하셔 가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시고 공직기강도 확실하게 바로잡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승수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시에 대한축구협회 심판 오심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증인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 증인으로 나선 문진희 심판위원장은 명백한 오심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는 정말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심판, 특히 프로축구의 심판이라는 사람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면 도대체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 엿 주는 것도 아니고 선수들은 또 감독들은 누구를 믿고 경기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정말 황당한 답변이나 어이없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축구팬들의 굉장히 더 많은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댓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바로 그 직전 주말에도 많은 축구팬들이 정말 이것은 명백한 오심이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잠깐 비디오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여기 보시면 명백히 손에 맞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일단 페널티킥 선언을 했었는데 VAR 판정 이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VAR 판정이 다 정확한 것인가, 엊그제 지적했던 오심 중의 하나도 VAR 판정을 했던 것이 추후에 오심으로 밝혀졌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오심인데 이 VAR 판정 자체도 주심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오심이 반복될 수 있다는 데 지금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 오심을 했던 주심은 올해만 하더라도 별씨 수 차례 오심을 했던, 이를 실명을 자료로 주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분석하니까 수차례 오심을 반복했던 그런 주심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의혹이 가는 것은 특정 구단에 전체 오심의 무려 25%, 4분의 1 정도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많은 축구팬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관님, 프로축구뿐만 아니고 많은 종목별 단체에서 오심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자신이 내린 판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

○김승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그렇게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축구뿐만 아니고 종목별 단체의 이런 오심 대책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문체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한체육회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이런 오심이 빈번한 종목별 단체에 대해서는 그 회장의 연임 승인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거나 아니면 종목별 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거나 뭔가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로 관련 대책을 우리 문체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앞서 제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만 출범식을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출범식 10월 1일에 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10월 1일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아시지요? 9월 26일 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참사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기초적인 행정서비스조차 중단이 돼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시스템도 많이 마비가 됐었지요. 그런데 이 시기에 꼭 출범식을 했어야 됩니까?

출범식 이날 하라고 했던 것이 장관님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시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해당초 준비됐던 날이었고요.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이날 출범식을 준비했던 겁니까? 장관님 판단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저도 판단을 했었고 대통령직속위원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같이 판단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대통령실의 대통령이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수석이 한 겁니까? 그 때는 문체비서관도 없을 때인데요. 아니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김현지 실장이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누구로부터 이날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연락을 누구한테 받았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지시를 받기보다는 해당초 예정이 돼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9월 초에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당시에 근거 법령도 제정이 안 됐었고 구성이 안 됐을 뿐만 아니고 예산도 없었지요. 그리고 출범식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저같이 공무원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이것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법령 제정하는 데, 시행령 제정하는 데도 그렇고 예산도 이용을 합니다. 굉장히, 원칙적으로 이용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용하는데 거기 또 용역업체 선정해서 출범식 하는 데 여러 가지 불법·탈법·편법 정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보면 입법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대통령령 제정에 법령 이행, 제정 절차를 거쳤느냐? 아닙니다. 이용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보십시오.

대통령령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을 하는 데 최소 육칠 개월, 심지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불과 22일 만에 초스피드로 법이 제정이 됩니다, 대통령령이.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관련 입법 사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사전 행정절차들 또 입법예고, 입법예고도 원래 한 40일 정도 하도록 돼 있는데 단 10일 합니다. 관계기관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분명히 반대를 하거나 시비를 거는데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그 자료조차 제출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용 보십시오. 없는 예산을 한 9억 정도 이용하는데 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주세요.

○**김승수 위원** 이용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도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데, 이것 한예종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기재부에 신청을 하니까 바로 그냥 당일 날 옵니다. 이것은 기재부가 예산 이·전용 이런 것들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엄격히 심사해야 되는데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린 겁니다.

용역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긴급한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그런 용역입니까? 그렇게 긴박한 사항입니까? 그런데 용역을 합니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비교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견적서는 받았다고 하는데 자료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하세요.

그리고 선정 기준이 어떤지 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긴급한 행사라고 하면서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했는데 내용을 보면 무슨 비전 선포도 없었고 그냥 잠깐 위원들 인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연한 겁니다.

이게 무슨 긴급한 그런 행사입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재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책임을 지고 안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정 책임을 물겠다 했는데 대통령이 현장에 언제 갔고, 10월 10일에야 대통령은 현장에 갔습니다. 이때는 모든 기관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긴급하지도 않은 그런 행사에 가서는 응원봉 들고 가수 노래하는 것 응원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그 전날은 뭐 했습니까? 그 전전날은 TV 출연해서 ‘냉장고를 부탁해’ 그것도 방송 녹화했던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본인의 그런 홍보가 우선순위입니까, 국민의 안전이 우선순위입니까, 재난 수습이 우선순위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도저히 맞지 않다. 연기해야 된다’ 이런 견의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K-컬처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이 반영된 어떤 행사였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하루빨리 이 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서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 빨리 태세를 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강행을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여기 예산을 위해서 한예종의 예산을 이용하면서 인건비를 9억씩이나 감액을 시켰는데 그 9억도 여기에 일회성 행사에 4억, 절반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비품구입 이런 데 쓰고 실제 필요한 회의비는 지금 보니까 500만 원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 주입니까? 그냥 쇼하는 게 주된 이 위원회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실제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 대중문화를 진흥시키는 게 주된 목적입니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중심을 잡고 아무리 대통령실의 지시라 하더라도 제대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제대로 처신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정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을의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께……

○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십시오.

○ **배현진 위원** 지난주에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서영충 대행이 수의계약 체결 시에 현장실사 결과보고서의 첨부가 규정으로 강제되는 필수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후 질의 때 위증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위원들 앞에서 먼저 대행의 입장을 듣고 질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도 입장문을 드렸습니다. 앞에 단상으로 나와서 서영충 대행의 보고를 먼저 받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교홍** 대행 나와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의원실에 보고드린 입장문 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사 수의계약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제도 및 운영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지적해 주신 부분까지 적극 반영한 계약 제도 전반을 철저하게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며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현장실사 보고서 관련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공사는 지난 22년 국감 지적 사항을 반영, 같은 해 10월 31일 공사 계약 실무 담당자 명의의 전자개시판 게시물을 통해……

○ **배현진 위원** 대행님, 그냥 줄줄 읽지 마시고요 위원들께서 잘 들으실 수 있게끔 성의껏 말씀하세요.

○ **위원장 김교홍**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것 다 읽으려 그래요?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 **배현진 위원** 깊습니다, 위원장님. 듣고 하시지요.

○ **위원장 김교홍** 다 읽지 말고 본인이 잘못된 부분 인정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만 하면 되지.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사실상 규정에 해당하며 공사가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사 보고서를 필수 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사 보고서는 필수가 아니라는 혼선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위원장 김교홍**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다 철저한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의원실로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교홍** 들어가십시오.

○ **배현진 위원** 들어가실 필요 없고 기다리십시오.

○ **위원장 김교홍** 질의하십시오.

○ **배현진 위원** 지난주 방금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대행께서 필수 서류 첨부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 보고를 받으셨던 건지 아닌지 위증하셔서 지금 사과의 의사까지

밝히셨는데요 그래도 잘못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관광공사의 수의계약 시에는 현장실사 결과보고서가 필수 첨부 서류로 돼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그렇게 기관들, 부서들에 공지를 했고요.

총 906건 중에 전체의 95%가 그런데 허위·조작 보고서로 밝혀졌고 이 조작 보고서의 문제를 제가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복수의 법조인에게 다시 확인을 해서 자문을 해 보니 허위 문서 작성 담당자부터 결재 라인 관리자까지 모두 보시다시피 업무방해 방법으로 위계에 해당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입니다.

내용 보시면요 한국관광공사 해당 직원이 실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지난주에 여러 장의 현장보고서를 작성하였지요. 한국관광공사라는 기관에 대한 위계, 즉 속임수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관광공사를 책임지는 사장직무대행으로서 공사가 예산을 집행하는 수의계약에 관해서 법 위반 행위로 지금 피해를 입었다 하면 이것 고발조치 해야겠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상황을 좀 건별로 자세히 조사……

○**배현진 위원** 지난해에 이것을 알아서 하게끔 저희가 기회를 드렸는데 자체감사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상급……

○**배현진 위원** 제가 지금 대행의 뜻을 묻는 겁니다. 법적 조치 해야겠지요, 만약에 해당한다면?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모든 건들이 각각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외에도 허위 출장, 쪼개기 계약 등 본 위원이 지적했던 다른 사항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의원실로 관광공사는 그 즉시 보고하고 법 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까지 보고해서 즉각 시행하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이 문제를요 작년 국정감사 때 되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수의 계약 건이 업체별로는 특히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이게 새로 자라는 신생 업체들에게는 새싹 자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여성기업 특혜는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관이 만든 겁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배현진 위원** 그런데 문체부는 지난 1년 동안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규명을 방치했어요. 그 과정에서 관광공사는 문제가 있었던 해당 업체가 이름을 바꿔서 다시 수의계약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 또 계약을 맺고 허위·조작 보고서를 수백 건을 양산하고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은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문체부가 굉장히 관리 해태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판단하시기에는 이것 어떻게 조치해야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일단 지적하신 의혹이 빨리 규명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

을 동원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발견하는 대로 감사원 감사나 아니면 수사 의뢰 같은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작년에 문체부가 자체감사를 하겠다, 외부 감사를. 애초에 제가 감사원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수긍을 했던 것은 잘할 줄 알아서였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들어왔던 얘기가 문체부 감사에 한계가 있다라는 답변들을 들었거든요.

장관님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염중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이 경과 사항을 저희 의원실로 빠짐없이 보고하고 관계자의 문제가 확인되는 즉시 관계자 정계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부 기관인 감사원 감사, 수사 의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배현진 위원** 한국관광공사라는 기관이 문체부에서 손꼽는 큰 기관인데요 여기 안에 복마전이 있어서 이를테면 카르텔이다, 리베이트의 진원지다 이런 얘기 듣는 것은 너무 창피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K-콘텐츠의 부흥이 엄청나게, 장관님께서 사업을 관심 갖고 진행하는 와중에 그 역점 사업으로 같이 관광의 진흥도 따라가야 하는데 관광공사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어떻게 정부 예산을 저희가 증액해서 하자고 제안을 하겠습니까?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 부분 끝까지 장관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역시 지적했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뮤즈 사업에 대한 지원이 실은 많이 영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습니까, 두 주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짹퉁에 대해서 막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자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프리미엄 상품을 만들어서 짹퉁과 차별되는 상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바로 그저께인 27일에 이 뮤즈 매출이 300억을 돌파했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장관님의 치적 사업으로도 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 비롯해서 그때 약속하셨던 뮤즈의 프리미엄화 등등, 그래도 전직 기업인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이 제작하는 업체들,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을 개발하고 함께 손 맞춰 가는 이 재단의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우선 정용석 사장님하고 황성운 실장님 같이 나와 주세요. 그리고 나면 시작할게요.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그래야 제가 잘 보이니까.

두 분이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년간 문체비서관, 선임행정관 이렇게 같이 근무하신 것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두 분 근무하던 기간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김건희의 문화유산 침탈 행위가 빈번하게 있었어요. 왜 그렇지요? 왜 그 기간에 집중되어 있지요? 특히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1년쯤 되던 때에 이게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비상계엄 절차를 편리하게 바꾼, 쉽게 바꾼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좌에 올라가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다?

이게 다 주술적인 뭔가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러는데 두 분 같이 근무하시면서 혹시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주변에 그런 소문 많이 있었잖아요. 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그리고 그 6개월 사이에 중간에 비상계엄 절차를 편리하게 바꾸고, 쉽게 바꾸고 그리고 어좌에 올라가요, 김건희가 9월에 그러니까 3월부터 9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이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그런 거지요? 그때 당시에 들은 소문 없어요?

자, 모르시면…… 아무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국감장이고요 선서 다 하셨고. 무슨 얘기 들으신 것 없어요? 왜 이 시기에, 두 분이 있을 때 하필이면 이게 집중적으로 일어났어요. 아무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

좋아요. 그러면 9월에 어좌에 올라가는 그 행위를 지금 두 분 다 못 봤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저한테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올라가서 여러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었대요. 아시는 것 있어요? 모르세요? 여러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었다.

정용석 사장님, 어좌에서 여러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었다. 봤어요, 못 봤어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못 봤습니다.

○**민형배 위원** 황성운 실장님?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형배 위원** 못 봤어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민형배 위원** 못 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못 봤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때 사진을 찍은…… 김건희 전속 사진가였던 신 모 전 행정요원입니까, 아니면 김건희 변호인이 적당히 하라고 특정했던 대통령실의 모 팀의 사진 담당입니까?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누구였어요, 사진 찍은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당시 전속 사진가……

○**민형배 위원** 신 모 행정요원?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아마 그런 것으로 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그 사진이, 지금 USB 통째로 사진이 어디에 가 있대요. 아세요, 행방을?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잘 알지 못합니다.

○민형배 위원 잘 알지 못해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민형배 위원 어떻게 그렇게…… 그걸 아시는 분 누구예요, 지금 그게 어디 가 있는지 아시는 분?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모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요.

청장님과 장관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청장님, 조사해 보셨어요, 전수조사? 제가 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봐 보세요.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감사를 다시 재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민형배 위원 장관님하고 청장님 TF 꾸려 가지고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특검이 갈지 국정조사가 갈지 알 수 없어요.

두 분 들어가세요.

지금 오늘 하신 말씀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다 찍혀 있는 사진이 USB째로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거 공개하는 날이 곧 와요.

장관님, 오늘은 축구협회 심판 자격 문제를 좀 따져 보려고 그러는데, 저거 한번 보실까요?

저 사진은 야구경기 사진입니다. 저 심판은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부에 등록된 심판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세요?

그러면 축구 한번 봐 볼게요. 저 심판은, 저기 저쪽 라인에도 있고 이쪽 가운데에도 있는데—노란 상의 입은—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법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세요?

체육국장님,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국가가 취급하는 자격은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국가가 발급하는……

○민형배 위원 마이크 대고 좀 말씀해 보세요.

야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축구는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적법하게 등록한 자격이 없는 분들이 저렇게 심판을 하지요? 팬찮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민간자격인 경우에 국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오래전에 지적이 됐던데, 2007년부터 등록 의무가 생겼잖아요? 그때 가지고 2013년부터는, 그 전까지는 교육부장관이 다 자격 관리를 했는데 2013년부터는 주무장관에 등록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무자격……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적법한 자격은 없는 상태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등록되지 않은 자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손 놓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현상을 정확히 이해를 했었고요. 그래서 바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희가 한국직업능력원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거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여기다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민형배 위원 자격증, 민간자격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실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격기본법이 있는데 여기 17조 2항에 위반된다. 그래서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다. 법적 효력이 없고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아 다시 취득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주관 기관 교육부에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이 부분들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대한축구협회 쪽에 물어봤더니 심판 규정에 의해서 심판 자격이 상실된답니다.

축구협회 심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장관님은 아예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한 7900명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2900명 돼요. 그런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갖고 있기는 한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라는 거 알고 계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이번에 지적하셔서 제가 이해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이번에 말고 전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5년 전에……

1분만……

5년 전 국감에서도 이미 지적이 됐었는데 왜 관리를 안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형배 위원 저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이번에 교육부랑 상의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게 무려 7만 건이나 된답니다.

야구는 좀 달라요, 체계가. KBO하고 KFA가 좀 다릅니다, 체계가. 저분들은 자체적으로 그냥 학교를 운영해서 거기서 기른 심판으로 하기 때문에 저것은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축구협회는 명

백하게 지금…… 특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위반하고 있어요, 법을 위반하고 있고.

문체부의 불법 자격증 관리 이걸 보면 2020년 처음 지적됐을 때 이게 3만 9000여 명으로 나왔어요.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런데 올해 해 보니까 7만 2000명가량 돼요. 체육단체 말고도 문체부에 여러 다른 문화예술 관련 자격증 있잖아요. 이거까지 같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실태 파악하셔서 이거 조속히 조치 결과까지 국회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관님, 제가 브니엘예고 무용과 전공 학생들 3명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이후로 이 비극적인 선택 이면에 무용계의 비리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 무용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국립전통예고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 피맺힌 절규로 저한테 제보한 내용입니다. 자녀가 죽기 직전에 부모가 발견해서 자녀를 구했어요.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유서입니다. 제보 내용과 유서인데요.

유서 내용을 보면 ‘날 믿어 주는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 00 샘, 00 샘, 00 샘,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내 주신 결과물이 실패작이라 너무 미안하다. 나 같은 건 행복할 가치가 없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이00 엄마, 이00 선배, 000, 000, 000 엄마, 000 선생님 제발 천벌 받길.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길’ 이 학생이 죽을 각오를 하면서 자기한테 불공정하게 대한 사람들도 죽을 때까지 천벌받을 고통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다른 데도 또 감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애들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난 9월 국립전통예고 정교사 채용과 입학비리 내부고발과 관련해서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하고 27일, 어제지요, 반부패수사대가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문체부가 이거 언제 알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는 압수수색하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렇지요? 문체부는 기사가 나오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조치 없어요. 문체부는 장관님이 잘, 우리말로 단디 쟁기셔야 됩니다. 능장 감사, 봐주기 감사, 그냥 눈 감기 이런 겁니다.

지난주 제가 한예종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용협회 이사인 김삼진 한예종 무용원장의 소리무 겸직금지 위반, 횡령 비리, 예고 강의 후 입시위원 불법 참여에 대해서 지적했거든요. 그리고 김삼진 원장은 횡령·배임 건으로 경찰 수사 중인데 무용원장 보직해임 왜 안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지금 겸직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확인은 했고요. 감사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능장 감사, 봐주기 감사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장관님이 말

씀하실 내용이에요? 벌써 조치했어야지요.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면 소 또 잃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보면 또 다른 제보입니다. 부모님들이, 관계자들이 제보를 많이 합니다.

예고 선생님이 예술대학 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해요. 그리고 나서 특정 학생들의 가고 싶은 대학하고 학생의 스펙을 전달해요. 그리고 그 학생과 그 교수가 눈 맞출 기회를 주고요. 뒤에서 비공식적인 접대 선물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제보예요.

장관님, 뒤에서 현금 주고받고 청탁·로비하는 것 일일이 문체부가 막을 수 없지요? 그러면 제도적으로라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예종을 비롯해서 무용 등 예술대학 교수가 관련 예고에 강의 나가거나 실기 평가하는 것 금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금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입시……

○조은희 위원 제도개선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입시는 엄정하게 관리해야 되고요. 오해 살 수 있거나 신뢰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은……

○조은희 위원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장관님은 어떤 평가를 받냐면 문체부 직원들은 짬짜미하고 있는데 장관만 혼자 붕 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으세요. 제대로 쟁기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또 보면 한예종의 교수들이 자기 이름으로 개인 무용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한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한예종 무용협회에서 무용원 학생들이 나가면 K-아트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A 교수는 자기 이름 하는 데 개인 무용단 이름을 걸고 애들을 출연시키고 출연료도 없는 거지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논문 대필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쟁겨 주시고요.

한예종은 음악테크놀로지과, 지휘과, 한국음악작곡과 교수님이 딱 한 분이세요. 지휘과 교수님은 14년 1개월 동안 한 분이 재임하고 계세요. 그러면 비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쟁겨 주십시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여야 위원들이 쭉 말씀하신 건데요. 문예위의 기금 관련해서도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이게 정치적 이슈가 아닙니다. 여야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게 심사 과정에, 절차에 문제가 있고 투명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복·다건 지원 폐지해야 되고 연간 한 단체 1건 지원으로 해야 됩니다. 둘째, 특정 단체에 공모도 아니고 그냥 갖다 바치는 이런 특혜는 폐지해야 됩니다. 셋째, 입시비리와 병역비리의 통로가 되는 콩쿠르에도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순수예술 지원과 맞지 않습니다.

장관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장관님의 특단의 의지와 대책에 대해서 마

무리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지금 위원님께서 되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챙겨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다 세세하게 정말 챙겨서 현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이기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만……

○**위원장 김교홍** 예.

○**이기현 위원**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 오전 질의 과정에서 국립중앙박물관장께서 저희들이 잘 몰랐던 내용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주셨는데요. 23년 3월 2일 김건희의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방문 이전에 2월 27일 날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김건희가 방문한다, 준비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직원들 준비를 위한 내부 메일을 발송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 내용에 대해서 고궁박물관장께서는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본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문화체육비서관실의 누구로부터, 이 자리에 그 당시 비서관이었던 황성운 비서관, 정용석 선임행정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중에 누구로부터 국립고궁박물관에 27일 날 전화가 왔는지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해당 관계자는 지금 이기현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따 오후에 국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박수현입니다.

국정감사이지만 질의에 앞서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예술 발전과 국가유산 보존에 많은 애를 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한 가지 격려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이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동교동 사저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되었습니다. 민주주의 투쟁의 전략이 논의되고 역사적 결단이 내려진 현장에 대해 그 가치를 인정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님, 현재 마포구에서는 국가유산 등록이 완료되면 예산을 투입하여 사저를 매입하고 기념관으로 활용할 방안을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국가유산으로 등록이 되면 마포구, 김대중평화센터, 김대중재단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이 부분을 지원하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감사합니다.

문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역문화정책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다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받았습니다.

○**박수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아직 구체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박수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내용 정리를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며 이런 식민사관 등이 담긴 이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면면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이런 책이 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이고 전국 79곳의 국·공립도서관과 서점에 버젓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문체부가 이 종합감사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아마 장관이 이렇게 답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내용을 전파하고 국민과 사서를 대상으로 한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겠다’.

장관, 지금 이런 한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파주에 있는 중앙도서관에서는 심각한 식민사관과 역사를 부정하는 도서인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이런 결정을 했어요. 비치는 하되 역사적 관점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책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른 상식적인 역사관을 가진 책을 함께 소개했어요. 당장 파기 결정이 내려져야 할 마땅한 책이지만 이런 선제적인 조치라도 취하는 것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준수하는 바람직한 국가기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관이 지금 이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없이, 깊은 고민이 없이 이 자리에 나온 것에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을 표하면서 장관에게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및 운영규정 제11조를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간행물 발행인, 수입자 그리고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서면 재심의 신청에 의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문체부장관, 문체부 소관에 있는 재단법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바로 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상급 단체예요. 그리고 이 위원과 위원장을 장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시한 이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및 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해서 바로 이 윤리위원회에 대한 심의를, 재심의를 장관이, 문체부가 직접 요구를 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가시적인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재심의 가능 여부를 한번 다시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취지에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어디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안으로 들어오시는 동안 잠깐 시간을 좀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교홍** 앞으로는 밖에 중인이나 참고인이 있을 때 미리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대기시켜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본 위원의 불찰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굳이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박수현 위원** 꼭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도 죄송합니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님 좀 들어오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려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장관……

○위원장 김교홍 지금 김중현 이사장은 외부에 있다는데요?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밖에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위원장 김교홍 다른 질문을 먼저 하시든가.

○박수현 위원 아니, 그거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교홍 들어오셨네.

하세요.

○박수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지금 태권도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총체적인 판단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 예, 동의합니다.

○박수현 위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북한이 2023년 3월에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단독 등재 신청했습니다. 내년 말이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신청서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제목만 보고 내용을 짐작하는 수준인 것을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알게 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작년 8월에서야 북한이 먼저 등재 신청했다고 태권도를 뺏기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리랑과 김장 문화 사례를 들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재단은 어떻습니까? 올해 6월에야 전라북도, 국기원과 함께 등재신청서 용역을 시작했지요. 북한이 신청한 후 무려 2년 3개월이 지나서 그랬습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물론 북한이 먼저 신청했다고 해서 우리가 등재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 머릿속에 태권도 종주국으로 누가 각인되겠습니까? 먼저 손을 든 북한입니까, 아니면 2년 넘게 뒷짐 지고 있던 대한민국입니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 예, 기억합니다.

○박수현 위원 뭐니까?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 우리 태권도진흥재단에서 태권도 진흥과 관련된, 보존과 연구에 대한 진흥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제3조의2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너무 늦고 안일합니다.

우리는 2018년에 씨름의 남북 공동 등재라는 자랑스러운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북이 따로 신청했지만 정부가 적극 나서서 공동 등재를 성사시켰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의 한 구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군사분계선이 있을 수 없다’, 맞습니다. 문화유산에 분단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가 갈라놓은 땅 위에서도 문화는 하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태권도 등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태권도진 흥재단, 문체부, 국가유산청, 외교부, 통일부, 민간단체까지 모두 함께 나서야 합니다. 국회도 함께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에 따르면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북한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확인을 해 봄아 될 사항입니다.

이사장님,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재단이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는지 그리고 장관님 그리고 국가유산청장님 입장을 차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장님부터 하십시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 현재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연구용역 추진 중이고 오는 11월 1일 날 국회에서 포럼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청서를 잘 작성해서 꼭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유산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태권도는 저희 국민의 가장 큰 자존심적인 문제라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여러 분야의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모시고 협의를 했고. 지금 저희들은 문체부와 상의를 하고 같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12월까지 공모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우리가 선정이 되면 선정을 해서 바로 유네스코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장관님 최종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말씀처럼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입니다. 긴밀히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문학은 한 나라의 문화정책을 떠받치는 근간이 되는데 현재 문화정책 중심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문학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문학진흥정책위원회가 문학진흥의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정부 공식 기구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2년 행안부의 정부위원회 통폐합 조치로 폐지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문학 진흥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문학진흥정책위원회가 사라진 데 이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문학 부분 위원이 계속 선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7기 이시백 위원 이후에 제8기 위원 구성을 위한 2023년, 2024년 두 차례 공모 연속으로 문학 분야를 제외했습니다. 문학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조차도 사라진 게 현실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2024년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받으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정부는 문학정책 자문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원회 통폐합 기조를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그대로 적용한 건 명백하게 정책 오류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을 즉시 추진해 주십시오.

문학진흥법상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재구성해 주시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 분야 위원 즉각 선임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조속히 구성하고 선임할 때 문학분과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어서 질의 또 하겠습니다.

장관님, 한예종 성기숙 전통예술원장님 아시지요? 제가 국감 기간 동안에 여러 기관에 질의를 했습니다.

성 원장은 지금 한예종 교수 재직과 동시에 여러 위원직을 겸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본업을 방해할 정도로 지나친 수준입니다. PPT 보시면 2012년 이후에 공식으로 확인한 직함만 9개가 됩니다. 비공식 직함까지 포함하면 수십 개가 됩니다. 현재는 국가유산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등 각종 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대외활동이 물론 자율적이기는 하지만 문화예술계 독식이라는 그런 표현이 여기저기서 나오거든요.

다음 PPT 보시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받은 회의 참석비, 직책수행경비, 심의 사례비, 외부강의 사례금 등 각종 수당만 해도 총 6350만 원입니다. 회의가 74회, 외부강의는 44회에 달합니다. 본업이 무엇인가요? 학교 업무는 잘 이행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성 원장은 2012년에 1년간 연구년을 가졌는데 한예종은 연구년이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연구실적 보고서를 내야 해요. 다음 PPT 보시면 결과를 보니까 제출기한보다 약 2년이나 지난 2015년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기간은 성기숙 원장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대외활동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방기한 그런 사례입니다.

연구년 목적이 연구 성과를 통한 학문 영역의 확장 그리고 학교 발전 기여잖아요. 그래서 연구에 전념할 시간을 주는 것인데 목적과 다른 연구년을 가졌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올해 성기숙 원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6건의 조정 신청을 냈는데, 물론 본인과 관련된 보도 잘못된 게 있으면 정정해 달라 또 손해배상도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왜 논란이 될까를 본인이 자문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PPT 주시지요.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특정 언론사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데 칼럼 제목은 ‘성기숙의 문화읽기’지만 이슈에 따라서는 본인의 소명 창구로 이 언론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성기숙 원장은 문화예술계의 공정성과 윤리를 지켜야 할 그런 공인이 아닌가요? 그런데 수많은 겸직으로 교수로서의 본분보다는 문화예술계 제왕처럼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겸직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없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제도적 허점이지요. 해당 구조는 문화예술계 권력의 독점으로 이어집니다. 너무나 프로필이 화려해요.

조속하게 제도 마련과 방침 마련해 주시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현장을 보니까 관광은 더 이상 단순한 여가산업이 아니에요.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맞서는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단양군을 보니까 인구 대비 생활인구가 8.6 배, 보령시는 4.3배, 전국 33개 지자체가 이미 공정관광, 지속가능관광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민형배 의원님과 함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핵심은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제도로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재정,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문체부가 이제는 개별 사업 지원을 넘어서 관광을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삼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지속가능관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과 이행을 위한 예산 마련 힘써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울러서 제가 계속 뉴스를 보고 있는데 국내 등산과 트래킹이 해외 관광객에게 새로운 정말 멋진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지인 만큼 그리고 관광 진흥뿐 아니라 늘어나는 등산객에게 편의와 또 안전을 위해서도 사업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화기술 R&D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취임사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높은 문화의 힘으로 문화강국 실현, 그 목표를 이루는 핵심은 문화기술 R&D의 과감한 투자와 체계 혁신이라고 저는 보는데 문체부의 R&D 예산은 여전히 1000억대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체계도 분산돼 있어요. 성과 평가는 민간보조사업과 동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스포츠 R&D와 국가유산청 R&D 역시 관리를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전문 연구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부설기관화가 간판 교체로 그쳐서는 안 되고 가칭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과 같은 독립적 R&D 전문기관으로 격상하고 문화기술 분야 박사급 인재 확보 계획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R&D와 국가유산청 R&D 역시 제대로 된 관리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전문기관 체계 구축을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문화유산 R&D 관리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유산청과 분리 운영되는 현재 구조로는 성과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문체부가 기술개발 성과를 산업 활용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김재원 위원 셋째로, 중장기 예산 확대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문화기술 R&D는 지출이 아니라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향후 5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국가적 R&D 드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세 가지 요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지금 R&D 관련해서는 독립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독립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콘텐츠진흥원 안에 있는 조직부터 부설기관화하고 빠르게 독립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투자 부분도 문화기술 R&D 사업 전략을 위한 투자 로드맵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곧 마련이 되니까 따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갑의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B급 감성을 가진 B급 정치인 양문석입니다.

오늘은 좀 격조 있게 품격 있게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PPT가 안 된다고…… 정말 PPT가 안 되는 이 황당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패싱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대통령실 천정 그림을 보면 경복궁 천정 그림을 모사해서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천정 그림에 붙여 놨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 왕이 이 공화정을 왕정으로 그리고 대통령실을 왕궁으로 그리고 합법적인 왕과 태상왕 또는 상왕이 있었던 거지요. 김건희는 왕이었습니다.

황성운 당시 문체비서관한테 묻습니다.

청와대 샹들리에 관저로 옮기자고 김건희로부터 전화받은 사람이 정용석 대표입니까, 황성운 당시 비서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양문석 위원 청와대 샹들리에 대통령 관저로 옮기자고 이야기했던 사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화받은 일은 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화받은……

○양문석 위원 정용석 대표가 받은 거예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아닌 것으로, 시설물 이전은……

○양문석 위원 두 분이 언제 기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시설물 관리는 당시 총무비서관실 소관……

○양문석 위원 어쨌든 청와대 샹들리에를 떼 와서 관저로 샹들리에를 옮긴 부분에 대해 김건희로부터 전화받은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제보를 받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앞의 사진 한번, 저기의 오른쪽이 광화문 천정 그림이고요, 왼쪽이 대통령실 천정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VIP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요. 23년 2월 23일 겨울이지요. 김건희가 창덕궁을 방문합니다. 창덕궁을 방문하는데 창덕궁 방문 때 황성운, 정용석 외에 누가 함께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23년 2월 말씀입니까?

○양문석 위원 예, 궁능본부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때는 제가 안 간 것 같은데요.

○양문석 위원 안 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문체비서관이 대통령 부인이 창덕궁을 가는데 안 갔다고 해요?

정용석 대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안 갔습니다.

○양문석 위원 두 분 다 안 가셨지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모든 행사를 저희가 가지는……

○양문석 위원 명확하게 합시다. 두 분 다 안 가셨지요? 그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전체적인 그림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격조 있는 질의가 상당히 힘들어지는데요.

해설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일지, 이게 23년 2월 23일 그 겨울에 천 모 해설사가 김건희의 방문에 대해서 해설하는 해설일지입니다. 이 해설일지에 ‘VIP’라고 적습니다.

VIP는 대통령에 한해서 표현하지요, 대통령에 한해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이게 그냥 귀빈일 경우에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저희는 통상적으로 VIP 하면 대통령을……

○양문석 위원 장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차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청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VIP는 그해 가을 경회루 갔었을 때, 근정전 갔었을 때도 VIP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의 대통령은 VIP였고 나는 왕이로소이다의 끊임없는 자기 과시로 천정 그림과 청와대 상들리에를 관저로 옮긴 행위와 그다음에 창덕궁 방문을 합니다.

당시 출입 시에 신발주머니에 신발을 넣고 일반적으로 슬리퍼를 신고 가지요. 저기 보시면 경회루 갔었을 때도 저렇게 슬리퍼를 다 신고 갑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경회루 올라갈 때……

○양문석 위원 그랬었을 때 창덕궁 인정전도 정전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정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임진왜란 이후 고종 때까지 창덕궁이 사용되었고 경복궁의 근정전처럼 창덕궁의 인정전도 정전입니다. 저기에 들어갈 때도 다 신발주머니에 구두를 넣고 슬리퍼를 착용하는데 이날 김건희는 구두를 신고 들어갑니다, 구두를 신고.

안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양문석 위원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아니, 제가……

○양문석 위원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모르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제가 알지 못합니다.

○양문석 위원 모른다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정용석 사장!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모르는 사항입니다.

○양문석 위원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모른다라는 거예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예, 모르는 사항입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 그날 근정전 갔었을 때는 슬리퍼를, 경회루나 근정전 갔었을 때는 슬리퍼를 신었는데 왜 이날은 슬리퍼를 안 신었을까?

2월 달은 겨울입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달은 여름 날씨입니다. 춥다고 발 시리다고 그냥 슬리퍼를 안 신고 구두를 신고 인정전을 들어갑니다.

인정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지요? 인정전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인정전의 가장 상징적인 비품이 뭡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양문석 위원 근정전에는 용상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어좌가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경복궁 근정전에 용상, 어좌가 있는 것처럼 창덕궁 인정전에도 용상, 어좌가 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가 앉습니다.

두 사람이 안 갔다고 끝까지 우길 거지요? 못 봤다고 우길 거지요? 기억이 안 난다고 우길 거지요?

정용석 대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저희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항입니다.

○양문석 위원 끝까지 그렇게 우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인정전에서 용상에 한번 앉아 봤습니다.

(「근정전」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그리고 그해 2월에 이미 앉았어요. 그리고 그해 9월에 근정전 가서 또 용상에 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갔다고 우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추궁하기가 어려운데, 우리에게 제보 들어온 내용은 여러분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제보 들어온 내용은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심각한…… 이미 창덕궁 인정전에서 한 번 앉아 본 용상을 경복궁 근정전에 가서 못 앉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두 신고 앉았느냐, 슬리퍼 신고 앉았느냐. 이게 나는 왕이로소이다, 김건희가 왕 노릇하고 그리고 이 수많은 사건들을 발생시키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도대체 당시 대통령실의 문체비서관·문체행정관 이들은 뭐를 했을까? 우기송 아시나요, 우기송? 이 사람도 몰라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저희 행정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우기송이 창덕궁에 전화를 했어요. 창덕궁 갈 때 횡 실장이 이야기한 거예요, 정 사장이 이야기한 거예요? 두 사람 중에 누가 김건희로부터 전화받고 우기송한테 창덕궁 간다고 창덕궁 관리소장한테 전화하라고 시켰어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통상적으로는 부속실의 여사 담당……

○양문석 위원 보세요. KTV 때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대답을 해. 아까 이기현 위원 질의할 때도 똑같이 대답을 해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요, 격조 있고 품격 있고 우아하게 질의하고 싶다고, 나도. B급 감성에 B급 정치인이 아니고 A급 하고 싶다고! 당신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말 돌리고 기억 안 난다고 하니까 자꾸 A급 되기가 내가 힘들어지잖아요.

김건희로부터 전화받은 사람이 두 사람 중에 누구예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제가 알고 있기도는 당시 부속실에 여사님 담당 행정관이 있는데 만약 연락을 했으면 부속실의……

○양문석 위원 우기송이 부속실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연락을 해서 저희가 연락을 하고 아마 그런 절차를……

○양문석 위원 상관도 모르는 방문이 가능한 일이야?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아마 저에게도 보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양문석 위원 뭐야!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며!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제가 간 기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문석 위원 우기송 당시 행정관이 창덕궁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왜 갔어? 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정전 갔었을 때 계속해서 아랍에미리트 운운하면서 목적이 있었어. 그런데 여기는 목적이 없어.

○위원장 김교홍 정리해 주시지요. 이따 보충질의 때 해 주시지요.

○양문석 위원 예. 제가 정말 좀 품위 있게 질문하고 소리 안 지르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을 하면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기억 안 난다 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누가 김건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그리고 누가 수행했는지, 당시 수행을 안 했으면 당신 두 사람은 뭘 하셨는지 적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임오경 위원입니다.

양문석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갑자기 공공장소에서, 기차 안에서 구두를 신고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 왜 이렇게 떠오르는지, 부부가 쌍으로 참 가관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나라와 국민이 있었는지, 얼마나 나라와 국민을 무시했으면 살면서 들어 보지도, 보지도 못한 이렇게 해괴망측한 일들이 계속해서 까도 까도 양파처럼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성운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유산청장님께 먼저 질의할게요.

국가유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거기에는 저희들 법규와 그다음에 내규에 의해서 벌칙을,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담당자들도 다 연계성이 있더라고요. 국가유물 보호법에 개방이 안 된다고 말을 했음에도 개방하라고 지시했다라면 직권남용에 해당되고요. 순순히 열어줬으면 직무유기이고요. 국가행사를 빙자해서 개방 요구를 했다라면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국가유물·보물의 사적 사용을 위해 대통령실에서 신설 개방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갑질,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문체부장관님, 이것은 외청과 함께 공조, 내부 감사 반드시 저는 실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담당자들에게도 저는 반드시 중징계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조죄 또한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정범이 10년이 나왔다면 방조죄를 한, 알면서 이것을 방조하고 묵인한 행위라면 3년에서 7년의 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 또한 외청과 함께, 대통령께서도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외청과 함께 공조하셔서 이것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성운 실장님, 지금 계속 위원님들의 얘기 나오고 있는데 국가보물인지 몰랐습니까? 국가보물인지 몰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어떤 것 말씀……

○**임오경 위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방문했던 곳, 개방시켰던 곳, 국가보물인지 몰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국가유산입니다.

○**임오경 위원** 국가유산이 그러니까 국가보물인지 몰랐습니까? 국가보물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국가유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오경 위원** 국가유산이 국가보물입니다.

그러면 사적 사용 가능합니까, 국가보물, 유산이? 국가유산이 사적 사용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며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기록 같은 것 은폐하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기록 관리도 적절하게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어느 누구보다 공무원이십니다. 그렇지요? 문체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규정을 지켜야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그 현장에 직접적인 관계자로 있었어요.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경복궁 어좌 제왕놀이, 고궁박물관 수장고 출입 등 국가유산 사유화 사건 모두 실장님의 문체비서관 재임 시절에 벌어진 일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임오경 위원** 청와대 관저를 개방해서 혈세 8600만 원 들여서 김건희 황제관람 국악 공연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지난해 국감에서 끝까지 그 행사에 김건희가 오는 줄 몰랐고 안 온다고 했지만 혹시 몰라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그 비슷하게 답변한 것으로……

○**임오경 위원** 혹시 몰라서, 오실지 몰라서 그 자리에 배석했다. 그러면 경복궁 방문도 김건희라는 사람이 오는 줄 몰랐는데 혹시 몰라서 그 자리에 배석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아닙니다. 그날은 행사 점검 차 부속실과 상의해서 다 같이 가는 것으로 서로 미리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이것 분명히 전 장관에게 지시를 했었는데, 8600만 원의 황제관람 행사 비용을 썼는데, ‘영부인이 오실지도 모른다, 혹시’, 혹시라는 말로 86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것 환수시켰습니까? 장관님, 이것 환수된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환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환수시키십시오. 이것은 환수를 받아야 되는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고정주 당시 경복궁 관리소장도 함께 나와 계십니까, 지금?

마이크 잡으세요.

경복궁을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자가 황성운 실장이 연락하자마자 득달같이 문 열고 환대해 준 것 맞지요? 황성운 실장한테 연락받고 문 열어준 것 맞지요?

○**국가유산청법무감사담당관 고정주** 아닙니다. 저는 경복궁에서는 유적본부에서 연락을 받고 문을 연 겁니다.

○**임오경 위원** 여기서 위증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법무감사담당관 고정주** 예.

○**임오경 위원** 고정주 유산청 법무과장 나와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누구의 지시를 받고 휴일에 경복궁을 열었다는 겁니까? 유산청이었습니까?

○**국가유산청법무감사담당관 고정주** 그때 당시에 아마 광화문 월대 행사 관련이었기 때문에요 그 주간은 유적본부의 복원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복원정비과하고 연락을 통해서, 당시에 또 청장님이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요 관련으로 해서 문을 연 겁니다.

○**임오경 위원** 청장님도 직접 오셔서 방문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지시에 따라서 김건희 일행을 함께 수행했지요?

○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 고정주 예.

○ 임오경 위원 과장님, 김건희 씨가 근정전에 들어가 어좌에 앉는 모습 과장님도 보셨지요?

○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 고정주 예, 봤습니다.

○ 임오경 위원 과장님도 보셨는데 과장님은 바로 옆이 아니라 먼발치에서 봤습니다. 그렇지요?

○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 고정주 예, 좀 떨어져서 봤습니다.

○ 임오경 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의 알권리를 통해서 국민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고 여기 나와 계시는 모든 분들, 지금과장이라는 분은 먼발치에서도 어좌에 앉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바로 사진에서 보여지는 측근에서 있는 황성운 그 당시 문체비서관은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어쩜 이렇게 이 국감장에서 말도 안 되는 위증을 하고 있는지 진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성운 실장님? 그냥 봤다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제 기억에 그렇게…… 제 기억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오경 위원 기억에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기억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참 좋은 성향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옆에 있으면서 안 봤다고 하십니까? 저렇게 손 잡고 다니는 것, 슬리퍼 신고 우산까지 쓰고 다니는 것을 다 보시면서 같이 다녔잖아요. 문체비서관으로서 책임을 못 하셨네. 그것에 대해서도 징계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또 문체부로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고정주 과장님, 김건희 씨의 경복궁 침탈과 관련해서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 고정주 최초 지금 기록상으로 나왔듯이 1시 35분경에 경복궁 주차장 쪽에 있는 협생문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처음으로 방문을 시작했고요. 거기에서 흥례문 쪽으로 지나서 근정문을 지나서 근정전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까지의 과정은 주로 이배용 전 위원장님께서 같이 손을 잡고 전반적인 내용은 주로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근정전 내부에서는 어좌에 올라간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올라갔었던 부분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서 한 10여 분 정도 내부에서 관람하시고 경회루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경회루 쪽에서 경회루 2층 루에 올라가서 그쪽에서 일부 사항들을 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경회루에서 내려와서 흥복전으로 마지막 코스로 가게 됩니다. 흥복전에서 내부에 설치된 광화문 월대 행사 관련해 패널이라든가 기본 자료를 가지고 당시의 청장님이신 최웅천 청장님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 조계원 위원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은 말씀이 다 나오시는데 황성운 실장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UAE 국빈 맞이 이것 영부인하고 함께 수행 사례가 있는데 어좌

에 앓기 위해서 간 겁니까? 어좌에 앓게 하기 위해서 수행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빈 맞이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검 차 갔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닙니다. 고궁박물관 수장고, 박물관장조차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공간인 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열어 달라고 요청한 분 실장님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수장고 열어 달라고 요청한 사람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제가 요청한 기억은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김건희, 수장고 열어 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실장님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들었고요.

장관님, 이번 국감을 통해서 까도 까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건희의 왕놀이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한 분만이라도 계셨어도 이런 일은 저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 기회에 문체부의 기강을 제대로 잡아보시고,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건희하고 관련된 내부 제보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 제보를 받아서 이것을 명명백백히 저는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보를 주는 직원들은 승진까지 시켜 준다라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제보를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외청과 함께, 진짜 국가유산청 장에게만 맡겨 놓지 마시고 장관님이 공조를 하셔서 책임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국가유산청과 함께 진상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특검에만 맡기지 마십시오.

.....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이게 장관님,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고 한데 황성운 기조실장은 전혀 월대 UAE 국빈 방문 이외에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 당시의 문체비서관이…… 정용석 행정관은 그래도 꽤 얘기를 했어요, 그날 우리 국감 때. 그런데 황성운 실장은 정말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네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기억을 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허민 청장님, 고궁을 사적 유용하고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고 자기 집처럼 했던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는 데가 국가유산청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그냥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갈 게 아니고 특검은 특검대로 하지만 국가유산청에서 TF 대책위라도 꾸려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한말씀해 보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사안의 심각성으로 저희들도 지금 법무감사팀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보강하면서 특검과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좀 더 보강하면서 일을 더 적극적으로 심각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국민에게 사과는 전혀 안 하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니요. 정말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적 행위이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해서는 안 될 그런 특혜 사유로 생각됩니다. 저희 국가유산의 사적 유용 등으로 많은 국민들께 분노와 우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책임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이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더욱더 철저히 관리하고 그리고 규정을 엄격하게 다시 만들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허민 청장님 시절에 이런 건 아니에요. 전 청장이 그랬는데 국가유산청의 역할과 기능 때문에 허민 청장님께서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춘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여쭤보고……

장관님, 아까 김승수 위원님의 질의하는데 보니까 당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 국가재난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류위 출범이 더 급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박정하 위원 아니, 맞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아니, 말씀드린 취지가……

○박정하 위원 나중에 또 답변 주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국가재난보다 급하다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박정하 위원 그거만큼 급하다, 어쨌든. 이거 날짜를 취소할 수 없을 만큼 급하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렇게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는……

○박정하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안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때는 재난 상황이 어느 정도…… 그다음에는 복구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였지요. 그게 재난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 행사는 미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정하 위원 나중에 답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이 K-컬처 300조가 정말 중요하고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가 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들 그 걱정 하시고 있는데. 왜냐?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K-컬처 300조 계획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뭐냐…… 없다. 그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중문화교류위 떴는데 그냥 보여 주기 식 아니냐라고 하는 것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그동안 그냥 보여 주기 식 정책만 내걸고 그다음에 국민들 허탈해하는 거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것 관련해서 여쭐게요. 좀 서운한 게 있더라도 답변 주세요.

그동안 우리가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어느 정부나 꼭 잘못되는 데는 대통령실이 만기 친람(萬機親覽)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인 국무위원들한테 실권을 안 줘요. 그래서 일이 잘못돼 오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다른 핑계를 대고 내 사람 끊기 하고 그사이에 보여주기식 행사만 치르다가 말아요. 예산 날리고 시간 날리고 국민들 허탈하게 만들어요.

지난번 시감에서 제가 ‘실국장 인사 안 합니까?’ 여쭤보니까 그때 애매하게 답변하셨어요. ‘대통령실이 하는 거다’, ‘나는 모른다’, ‘정말 장관님은 모르십니까?’라고 했더니 또 ‘그건 아니고 협의한다’. 지금 장관님 되신 지 몇 달 지났는데 아직 실국장 인사 안 하고 계시잖아요. 왜 안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일단 제가 업무 파악을 하고요……

○박정하 위원 업무 파악이 지금 몇 달이 됐는데 아직도 안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박정하 위원 장관이 되시면 그때부터 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아니, 일을 하고 있지요.

○박정하 위원 그런데 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적임자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박정하 위원 아직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또 사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박정하 위원 아직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곧 할 겁니다, 그래서.

○박정하 위원 언제쯤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조속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지금 여기 기조실장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박정하 위원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쭉 앞에 여당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맨날 기조실장 중연대 나와요. 그리고 문화재를 사적 이용한 것 가지고 옛날 기억 더듬으라고 그래요. 저도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문화재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잘못됐다고 보고 그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K-컬처 300조를 만드는 업무하고 그 사실 관계 파악하는 것하고 장관님께서는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중요성은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 둘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그러면 하나만 택하라고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하나만 택하라고 하면 K-컬처가 더 중요하지요. 미래가 더……

○박정하 위원 그래요. 지금 기조실장은 제대로 문체부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박정하 위원 나머지 실국장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박정하 위원 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 박정하 위원 그 결과를 그러면 계속 챙겨 볼게요.

관광공사 사장 시감할 때 제가 여줬더니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진행 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빨리 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으면 추천인을 지금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시감 때 것 보고 있습니다.
실무진한데 빨리 챙겨 달라고 얘기했고 저 나름대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제 갑자기 관광공사 사장 추천하라고 관광공사에 공문 보냈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러면 장관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제가 제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추천돼서 오면 제청을 할까에 대한 저 나름의 업무 파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추천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 박정하 위원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한국을 전 세계적으로 관광으로서 세일즈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과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능력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정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문인력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추천받아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공모를 해서 추천이 오면 그중에 제가 제청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청할 때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국정감사에 논란이 될까 봐 이 절차 진행 안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서 실국장 인사마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앞에 1시간 이상 얘기되고 있는 그런 것 캐고 확인하고 물어보기 위해서 인사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건 아니에요?

제가 국중박 감사하는 날 보니까 유흥준 관장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와대 이전 곧 하는데 관저가 음습해서 자기는 가지 말라고, 추천 안 한다 그런 얘기 전달

한 적 있다. 혹시 장관께서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는 그날 감사할 때 그런 말씀이 나왔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 감사 그 이전에 유홍준 관장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는 들은 적 없습니다.

○박정하 위원 들은 적 없으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그날 관장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미 장관 제의를 받았는데 나 안한다고 하고 국중박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 여기 찍었다, 소위’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러면 사실상 장관님보다 더 실세라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 들으면 장관님은 기분이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널리 타진도 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중의 한 명이었을 거고요. 그분이 저보다 먼저였다고 해서 저보다 더 실세고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일하시는 데 불편하신 것 아니에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전혀 불편하지 않고 유홍준 관장님과 저는 지금 호흡을 맞춰서 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10월 13일 날 있었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K-컬처 300조 관련한 회의가 있었고 그 후 그 건에 대해서 장관님은 모르신다고 했고 그 후에 한 번 이동연 비서관 만났다고 그날은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협의를 한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문체비서관과요?

○박정하 위원 문체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아니요, 그 이후는 행사장에서 지나치면서 인사한 적은 있지만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랑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정하 위원 문체비서관이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닌데 K-컬처 300조에 대해서 전혀 장관하고 논의도 여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아니요, 저랑 논의를 안 했고요 차관이랑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차관하고 논의하셨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증인은 고규미 극단 상사화 대표, 김영천 조원관광진흥 전무, 박상빈 하나투어 경영기획본부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황선철 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사무총장 등 총 5명으로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중 노관규 전라남도 순천시 시장은 순천시의회 시정질문 참석을 사유로, 추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은 해외출장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출석한 증인 중 신수진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최웅천 전 국가유산청장, 3명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인은 남경주 뮤지컬 배우, 이상길 영화촬영부서 스태프 등 총 2명으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분과회의 진행 및 케이팝 아티스트 프로젝트 업무 등을 사유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출석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원 위원께서 신청하신 고규미 증인 나오셨습니까?

○ 증인 고규미 예.

○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십시오.

다음, 임오경 위원께서 신청하신 김영천 증인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영천 예.

○ 위원장 김교홍 다음, 민형배 위원께서 신청하신 박상빈 증인 나오셨습니까?

○ 증인 박상빈 예.

○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형배 위원께서 신청하신 유철균 증인 나오셨습니까?

○ 증인 유철균 예.

○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십시오.

다음, 박정하 위원께서 신청하신 황선철 증인 나오셨습니까?

○ 증인 황선철 예.

○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승수 위원께서 신청하신 남경주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남경주 예.

○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십시오.

다음, 손솔 위원께서 신청하신 이상길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이상길 예.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고규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규미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증인 고규미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증인 고규미

증인 김영천

증인 박상빈

증인 유철균

증인 황선철

○위원장 김교홍 증인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손솔 위원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솔 위원 이상길 참고인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코로나를 거치면서 영화산업이 위축되었고 당시 일시적으로 늘어난 OTT 기반 시리즈 및 방송 드라마로 영화산업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동환경이 많이 나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 소개와 함께 노동환경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와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노조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이고 제작 현장에서는 카메라를 다루는 촬영부서에서 일하는 이상길입니다.

OTT 성장 시기에 영화 스태프만 옮겨 온 것이 아니라 영화 제작사도 OTT로 옮겨 가서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옮겨 간 영화 제작사들이 영화에서는 사용했

던 표준근로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대신 방송 드라마 관행을 따라서 업무위탁이나 하도급 등의 용역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버스 만들 때는 근로계약을 하고 기차 만들 때는 용역계약을 한다는 거지요.

영화진흥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2년에는 66%, 24년에는 37.8%로 급감했고 용역계약은 22.8%에서 49.7%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도 다시 늘고 휴일도 줄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률도 당연히 줄어서 스태프의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방송산업에도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지만 드라마와 시리즈 제작 현장에 정착시키지 못했고 이런 제작 관행이 노동환경이 개선 중이었던 영화산업 제작 현장에 역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드라마, 시리즈 만들 때 제작사는 현장 제작 스태프의 업무에 대해 일시, 장소, 인사 등에 대해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작사와 스태프 관계의 실질은 근로계약인 것입니다. 악화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문체부가 OTT 시리즈와 방송 드라마의 표준근로계약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이 시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솔 위원 영화 제작 환경의 변화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소득 변화 상황이나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되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는 표준보수지침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 이상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화든 어쨌든 매번 계약 협상을 합니다. 회사와 스태프 모두에게 업계 내 임금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영화 및 영상 제작이 올바른 산업화가 되려면 제작 투자에도, 정부 지원 정책에도 예산 설계의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표준보수지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아가서 극도로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스태프에게 일정 수준의 가이드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임금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산업 내 노사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후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보급처럼 투자 및 지원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보급 정착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영진위에 당부드립니다.

5년, 10년 이상 숙련도를 가진 스태프가 업계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합당한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손솔 위원 근로계약 작성이 후퇴하면서 안전이나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후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 더 주십시오.

○참고인 이상길 근로계약 작성이 후퇴한다는 것은 실상 법을 어겨도 별문제가 없다는 제작 현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준수도 기대할 수가 없고요, 용기 있는 스태프가 나서서 노동부 진정 또는 신고를 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고 작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계약으로 고쳐 쓰세요’ 같은 수준의 형식적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한 스태프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상 해고인 계약해지를 당하고 작디 작은 업계에 까다로운 스태프로 블랙리스트가 되어서 이후에 일을 다시 잡기도 힘들어집니다.

성희룡,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일터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법이 어겨지는 현실에서 조직문화에 대한 감수성도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실제 실태조사 결과를 보아도 근로계약 작성 비율이 줄어들면 다양한 법정의무교육도

줄어듭니다. 스태프의 눈앞에 놓인 근로계약 하나가 현장을 개선하는 출발이자 거의 모든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솔 위원** 장관님, 참고인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OTT에 다 빨려 들어가면서 영화계는 표준계약서를 조금 더 늘리는 방향이었는데 이게 후퇴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조건에서 지금 문체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우리 영화·영상 산업에서 제작 종사자분들은 사실상 핵심 기반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 영화산업이 무너지면서 이런 생태계조차 붕괴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 종사자들이 아까 말씀처럼 영화를 찍다가 OTT 쪽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잘 이루어 온 표준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모든 관행과 룰들이 오히려 무너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무너지면, 생태계가 무너지면 저희가 회복할 수 없는,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제대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쟁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추가질의 때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장관님, 지금 손솔 위원이 택한 증인의 얘기를 들어 봄도 그렇고 영화업계에 종사하는 스태프들이, 영화 편수가 자꾸만 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되면 영화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캐데헌’이라든가 ‘폭싹 속았수다’ 이것은 잘된 케이스고 그 그늘에는 굉장히 어려운 영화산업이 있다는 걸 장관님께서는 꼭 주지하셔서 제대로 된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참고인 질의에 앞서 오전 질의 마무리 먼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오전에 민주당 위원들께서 전 정부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을 보면 이재명 정부는 벌써부터 정부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참석 행사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시급성과 중대성을 찾을 수 없는데 규정과 절차를 무시해서 강행을 했고, 특히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국정관리시스템 또 대국민 서비스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강행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불편은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지시라고 해서 한 달 만에 막가파식으로 출속 추진하다 보니까 각종 불법과 편법이 자행되고 법령상의 절차와 행정시스템이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 제정, 위원회 예산 이용, 발대식 업체 계약이 모두 같은 날 행사 일주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관습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루에 벌어진 겁니다.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은 시늉만 했고 예산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예외적 승인 시에도 엄격한 검토가 요구되는데 신청서류 접수하고 불과 1시간 만에 기재부 과장 전결로 승인이

됩니다.

기재부가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는 금고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포기한 겁니다. 이렇게 쉽게 예산을 변경시킬 것 같으면 국회 문체위 예결위 예산심사는 힘들게 뭐 하려 합니까?

한예종 총장님 나와 계시는데 인건비 9억을 문체부에 가져간 사실 아십니까? 공문으로 협의가 있었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김승수 위원** 아마 한예종 총장님 모를 겁니다. 보니까 9억을 가져가면서 달랑 이메일로 통보만 했다고 그립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한예종은 인건비 예산삭감이 불가피합니다.

장관님, 민간기업 대표하셨는데 사업부서, 회계부서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10억 가까운 예산 변경을 하면서 제대로 검토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용 승인이 가능할지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승인 당일 날 바로 발대식 업체 계약을 했다는 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내부 기밀이 유출되었든지 아니면 업체가 사전에 내정된 답정너식 계약이라는 겁니다.

이런 불법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하고 위반 시 고발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 무려 65억을 요구 중이라는 내년도 대중문화교류위 예산심의도 철저하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진술 들어가겠습니다.

남경주 배우님, 나와 주세요.

남경주 배우님이야 뮤지컬계의 전설이고 지금도 많은 작품들 출연하고 계시고 또 학교에서 후학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 남경주 예.**

○**김승수 위원** 최근 한국 뮤지컬계가 굉장히 고무돼 있다 그러는데 또 상당히 우리 한국 뮤지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남경주** 예, 한국 뮤지컬이 이제 산업화의 길목에 제대로 들어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것도 여러 지표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계 현황만 봐도요 지난해 판람권 판매액 기준이 약 4600억을 넘었습니다. 이는 국내 공연산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산업화로 가기 위해서 국내의 경쟁력은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뮤지컬이 여러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또 해외에서 이런 경쟁력을 인정해 줄 때 우리가 앞으로 이 뮤지컬산업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산업화의 길에 제대로 들어설 수 있게 할까 하는 데 지금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수 위원** 작년 6월에 연극·뮤지컬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는 토니상에 우리 오리지널 뮤지컬이, 우리 작가가 쓴 뮤지컬이 무려 6관왕의 영예를 받았지 않습니까?

○**참고인 남경주** 예, 토니어워즈에서 6관왕을 휩쓸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사실은 어느덧 세계의 뮤지컬로 봤을 때 3대 강국 안에 들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그래도 보면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뮤지컬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로 사항들이, 장애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또 일본 중국 등이 바짝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남경주** 우선 해외시장의 경우는 제가 사실 배우로 지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뮤지컬의 국내 창작·제작사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수출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또 거기에 나가서 우리 기술력 그다음에 우리 배우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정부적인 그런 제도적 지원이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만약에 그런 주도권을 우리가 놓친다면 해외에서 정말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서 육성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늦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뒤의 거 3분 당겨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3분 당긴대요.

○**김승수 위원** 사실 뮤지컬이 산업화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공연 분야인데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령이나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1대 때도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가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됐고 22대 들어오자 마자 가장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문체소위에 계류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뮤지컬계의 여망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또 보면 뮤지컬에 대한 제작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뮤지컬 관련 기술 R&D 또 여러 가지 아카이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두루 갖춘 그런 시설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참고인 남경주** 질문이 갑자기 좀 많이 들어와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뮤지컬은 현재까지는 기초예술 분야인 연극의 한 하류 분야로 그렇게 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뮤지컬이라는 장르로 따로 분류가 되기는 했는데 그사이에 뭔가 정책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늘 기초예술 지원하는 데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문체위에서 그동안 창작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들을 죽 내 주셔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한 해에 창작뮤지컬이 한 200편 이상 이렇게 제작되고 있는 정말 유일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기반에서 이런 창작들을 우리가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민간 주도로 죽 이어져 왔기 때문에, 민간에서 주도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적인 정책이나 지원들이 마련돼서 그렇게 저희들을 지원해 주신다면 굉장히 추진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질문하신 그런 정책적인 지원은 있었지만 조금 더 뮤지컬이라는 이 분야가 산업화가 될 수 있으려면 타 분야하고 조금 약간 다른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초예술 분야에 들어가는 제작비와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제작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대극장 규모는 100억 이상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소 뮤지컬도 3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김승수 위원 답변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남경주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게 계속 민간 주도로 해 오다 보니까 산업화로 우리가 성장시키는 데 늘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지금 김승수 의원께서 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법안을 꼭 통과시켜서 뭔가 제도적, 정책적, 지속적인 그런 지원을 뮤지컬계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문화 브랜드로써 우리나라를 조금 더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쓰셔야지.

○김승수 위원 뒤의 거까지 당겨 쓰는 거……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뒤의 거까지 다 쓰는 거예요?

○김승수 위원 아니,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1분은 뭔데?

○김승수 위원 추가 1분만 더……

○위원장 김교홍 1분 드려요.

○김승수 위원 뮤지컬이 다른 공연 분야에 비해서 매출이 압도적으로 큰 분야이고 발전 가능성도 높은데 좀 아쉬운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공연하는 곳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그런데 뮤지컬이 관광으로서도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많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께 좀 부탁드리고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지역의 뮤지컬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가까이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을 이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그런 뮤지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설들, 뮤지컬 콤플렉스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장관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남경주 배우님,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장관님 말씀 이후에 말씀하시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 남경주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장관님, 지역의 뮤지컬 진흥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도 장관이 되기 이전에 뮤지컬 티켓 판매를 하는 쪽의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뮤지컬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커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또 수도권 이외에 대구지역이 특히 뮤지컬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뮤지컬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도 계속 안을 내놓고 계시고 또 대구에서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 사업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

분은 저희가 차질 없이 내년에는 잘 신청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남경주 배우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희 문화가 이렇게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을 때 빠르게 움직여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도 출범식을 빠르게 서둘렀던 것이지 대통령의 일정이라든지 대통령실의 무슨 이야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남경주 배우님 마지막 기회 한번……

○참고인 남경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장르를 이제는 산업으로 인정하는 그런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번에 법안이 통과돼서 뮤지컬인들의 숙원이 꼭 좀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승수 위원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하세요.

○민형배 위원 국가유산청의 자료 읍폐 의혹이 있습니다. 유산청에서는 2023년에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이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는 시정요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 사업을 오늘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김건희 게이트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최웅천 전 유산청장은 이 사업에 국비를 무려 270억이나 투입합니다. 유산청의 평균 용역 규모를 생각하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사업을 수주한 기관장은 오늘 지금 중인으로 나와 계시는데 정유라 학점 특혜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입니다. 유 원장은 대표적인 친윤 인사 이철우 경북지사의 비호를 받아서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경북연구원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웅천·이철우·유철균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라인이 유산청의 대형 국비사업을 놓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다음 몇 가지 자료를 국가유산청에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녁 식사 전까지 제게 꼭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 그러니까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 사업의 시정요구서 작성 배경 및 시정요구 결과보고서, 두 번째 이 사업에 관련해서 유산청이 경북도와 수신하고 발신한 공문이나 회의 자료 일체, 세 번째 이 사업 관련해서 유산청이 대통령실에 보고 또는 논의한 내용 일체 그리고 이 사업이 당초 사업비가 270억이었는데 90억이 깎여서 180억이 된 이유와 그 관련 자료 일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유산청 용역사업 중 국비가 270억 이상이거나 전액 국비만 투입된 사업 목록 일체.

위원장님, 이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관계기관은 이것을 저녁 시간 질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그리고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유철균 증인은 저기 오른쪽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황성운·정용석 증인은 같이 왼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두 분이 근무하던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대통령실. 그리고 밖에 계시는 이종희 국장님 그리고 황권순 기획조정관님 안으로 좀 들어와서 답변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혹시 밖에서 듣고 계신가요?

이종희 국장님, 잠깐 계세요.

허민 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 이런 사업 들어 보셨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들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러면 지금 저 사업 개요 관계도를 좀 보겠습니다. 저렇게 지금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국비 270억 원짜리 사업을 이철우 경북지사가 기획하고 최응천 장관이 국비를 내주고 최순실 게이트 당사자인 유철균 원장이 수주하는 구조로 저렇게 돼 있거든요. 저것 일일이 설명하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청장님,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 사업 이것 유산청에서 하자고 한 겁니까, 경북도에서 하자고 한 겁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직 점검을……

○민형배 위원 이종희 국장님, 누가 하자고 한 겁니까?

○국가유산청문화유산국장 이종희 죄송하지만……

○민형배 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황……

○국가유산청문화유산국장 이종희 황 국장님보다 제가 먼저 일했는데 저도 23년에 발령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민형배 위원 그러면 그 전의 국장은 누구입니까?

○국가유산청문화유산국장 이종희 그 전 국장은 안형순 국장입니다.

○민형배 위원 안 계시지요, 여기 지금?

○국가유산청문화유산국장 이종희 예, 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황권순 국장님 혹시 아세요?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저도 24년에 와서 잘 모릅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요.

그러면 황성운·정용석 두 분은, 황성운 실장님과 정용석 대표는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경북도나 유산청에 이런저런 연락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 시기인데, 두 분이 문체비서관 그리고 선임행정관으로 있던 그 시기 인데요. 전혀 없습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23년 예산이면 22년에 했었을 것 같은데요.

○**민형배 위원** 입찰을 23년 3월 29일에 해요. 저것 보세요. 그리고 23년 5월 16일에 경북연구원이 수주를 합니다.

그러면 유 원장님, 경북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증인 유철균** 저희들은 제안요청서에 따라서 조달청 공개경쟁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주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 교과서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증인 유철균** 사실이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유산청에서 공고를 했고 그런데 이 제안은 경북도가 한 것 맞지요?

○**증인 유철균** 저는 누가 제안했는지는 모르고 제안요청서에 따라서 제안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원장님 마음 먹고 나오셨네, 잡아떼기로. 모른 척하기로 마음 먹고 나오셨네.

○**증인 유철균** 그렇지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유산청에 청장님, 지자체가 만들어 온 사업을 그대로 전액 국비로 추진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민형배 위원** 없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민형배 위원** 없다잖아요. 자체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단 말이에요. 떨어졌어요.

다시 여쭙습니다.

황성운 실장님, 정용석 사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아예 모르세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특별히 기억이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모르냐고 여쭤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저희가 알고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민형배 위원** 모르는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잘 알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민형배 위원** 이종희 국장님, 누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국가유산청문화유산국장 이종희**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에 발령을 받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 상황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좀 더 살펴볼게요.

3월 29일에 해서 5월 16일에 입찰이 됐는데 이 업체는 디지털 복원 전문 기업이에요. 유 원장님, 경북연구원이 이런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까지?

○**증인 유철균** 없었습니다. 저희가……

○**민형배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받았지요?

○**증인 유철균** 경북연구원 컨소시엄에 엔씨소프트, 나라지식정보 그리고 시공테크 컨소

시엄……

○**민형배 위원** 알아요.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증인 유철균** 그리고 제가……

○**민형배 위원** 경북연구원에서 이런 사업을, 이런 용역을 해 본 적도 없고 시행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경북연구원이 주도를 했어요.

○**증인 유철균** 경북연구원은 기획과 홍보 그리고 시나리오를 맡고 제작을 전문 업체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유산청에서 이것 시정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종희 국장님!

○**국가유산청문화유산국장 이종희** 제가 기억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2023년에 167개 용역이 있었던 데 제가 자료를 제출해 보라고 그랬더니 시정요구한 적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어제저녁 밤늦게 부랴부랴 1건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래요. 맞습니까?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황 국장님, 맞아요?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24년 6월 25일 날 1차 연도 산출물에 하자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 수행에 시정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랬지요, 저한테 자료제출할 때?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민형배 위원** 167건이 있는데 이것 1건밖에 없다는 말도 이상하고 딱 이것 1건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것도 이상해요. 말이 됩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시정요구서 받으셨지요, 원장님?

○**증인 유철균** 예, 받은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1차 연도 사업 산출물 부실 제출, 타 업체 것 제출했지요?

○**증인 유철균** 5개 컨소시엄 중에 한 회사가 경영 악화로 부도가 나는 상황에서 시정요구가 나왔고 즉시 시정요구에 대응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왜 그러세요? 2위 업체 것 가져갔잖아요. 그렇게 밝혀졌는데, 결과보고서에.

○**증인 유철균**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가 1위를 했고 정상적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왜 그러면 국가유산청 승인 없이 계약서하고 다른 자체 지분을 설정을 했지요?

띄워 보세요.

○**증인 유철균** 그것은……

○**민형배 위원** 브이알크루라고 있었지요?

○**증인 유철균** 그렇지 않습니다. 브이알크루가 부도나는 과정에서 했던 일방적인 요구였고요……

○민형배 위원 두 번째 것 다시 띄워 보세요.

○증인 유철균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서 브이알크루가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PT 좀 올려 주세요.

증언 녹취록 좀 올려 주세요.

‘경북원장님이요 경북연구원으로 저를 부르셔서’……

위원장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다음 것 당겨서 써야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3분?

○민형배 위원 ‘경북연구원으로 저를 부르셔서 21억 원 정도를 다른 업체들에게 주라고 지시하시고 그 업체들을 직접 이렇게 콕콕 짚어주셨습니다, 한 삼사 개 업체요’.

맞습니까?

○증인 유철균 사실이 아닙니다. 저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서 해당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도가 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주장이고요. 저희들이 나머지 타 사가……

○민형배 위원 저것 때문에 저 업체가 부도가 난 거예요. 왜 거꾸로 말씀하세요?

○증인 유철균 아닙니다. AI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부도가 난 것이고요. 저희 사업은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하도급 계약은 주케이데이터, 스컬프린스, 유리, 개인 용역 코탁스·전통 대 이런 데하고 한 거고, 개인들하고 한 거고. 저 업체는 배제돼서 그래서 망했다니까요.

○증인 유철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업체의 주장이고요, 일방적으로 하도급에 대한 책임은 그 업체에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왜 90억이 깎였습니까, 멀쩡한 사업비가?

○증인 유철균 당시에 일련의 문화유산 디지털화 사업이 일률적으로 반액 삭감되는 추세여서 저희들이 그것 이해를 했고 그렇게 삭감된 결로, 정확한 사유는 국가유산청이 아실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국가유산청에서 모른다잖아요. 국가유산청 모르세요? 이종희 국장님, 당시에 계셨는데 모르세요? 왜 깎였습니까?

○국가유산청문화유산국장 이종희 ……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유산청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에 맞지 않는 불법 하도급 계약 체결한 적이 있지요?

○증인 유철균 없습니다. 그것은 브이알크루에서 그렇게 문제가 돼 가지고……

○민형배 위원 시정요구서에 그게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시정요구서를 들고 있잖아요, 지금.

○증인 유철균 그것이……

○민형배 위원 그러면 유산청이 시정요구서를 잘못 냈다는 말입니까?

○증인 유철균 그렇습니다. 그 시정요구서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종희 국장님, 시정요구서 잘못 냈어요?

○국가유산청문화유산국장 이종희 24년은 제가 담당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황 국장님, 이것 잘못 낸 겁니까?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저희가 알기로는 브이알크루가 저희 승인 없이 하도급

을 별도로 주는 바람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봐 보세요.

그다음에 유철균 원장님, 여기 컨소시엄에 가담했던 N사에 근무하신 적 있지요?

○ **증인 유철균** N사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자문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문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저것 봐 보세요. 저것 띄워 보세요. 저기 나와 있잖아요, ‘취직하셨대요’ 이렇게.

○ **증인 유철균** 그것은 저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 **민형배 위원** 정용석 사장님, 대통령실에서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과 관련해서 이철우 지사하고 연락한 적 있지요?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없습니다.

○ **민형배 위원** 황 실장님은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없습니다.

○ **민형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 전형적인 게이트예요, 비리 게이트예요. 청장님, 이것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조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사업비도 전액 환수해야 될 거고요.

시간이 다 돼 벼려서……

위원장님, 1분만 더 당겨 쓰겠습니다. 제가 증인을 불러 놨는데 제가 더 이상 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뒤에 발언을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 **민형배 위원** 그렇게 할게요.

○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하세요.

○ **민형배 위원** 하나투어의 박상빈 증인 나오셨지요?

○ **증인 박상빈** 예.

○ **민형배 위원**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왜 국정감사 지난 14일에 도망 가셨어요?

○ **증인 박상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처음 국정감사라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모르고 경솔하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래도 9월 24일인데, 우리가 증인 의결을 했는데 바로 그다음 날, 25일 날 딱 품의를 올려 가지고 비행기표 끊고 그러면 됩니까?

○ **증인 박상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 **민형배 위원** 국감 고의 회피 맞지요?

○ **증인 박상빈** 아닙니다.

○ **민형배 위원** 여행업계의 성매매 관광 연루 의혹을 저희들이 계속 따져 보고 있었는데, 언론 보도 보셨을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면)

홈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 여행사에서 여행상품 팔 때 성매매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옵션입니까?

○증인 박상빈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옵션 아닙니까?

○증인 박상빈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가는 데마다 이걸 권유하지요?

○증인 박상빈 저희가 언론 보도 직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판단하고 있고 일부의 저희 거래처가……

○민형배 위원 에헤이, 오늘 증인들이 다들 거짓말로……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주세요.

그러면 오늘 발언 아예 이제 이걸로 끝이야. 1분 더 주세요.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면 못 쓰지요.

○위원장 김교홍 아니야. 주세요, 1분.

○민형배 위원 증인, 솔직히 알고 계셨지요?

○증인 박상빈 언론 보도와 라오스에 대한……

○민형배 위원 아니, 현지 가이드들이 이런 걸 한다는 거 모르셨단 말이에요, 본부장이라면서!

○증인 박상빈 라오스 지역에 성행한다는 내용을 언론 보도와 라오스 대사관 공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안내할 때 그 얘기를 해 줍니까?

○증인 박상빈 저희가 소수의 대리점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배 위원 소수의 대리점? 다수의 대리점이 그랬는데 소수의 대리점이라고 그러시네.

○증인 박상빈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수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회사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거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잘하시고요. 관리 잘해 주시고요. 어떻게 조치했는지 문체부하고 저희 의원실에다 보고해 주세요.

○증인 박상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형배 위원 그리고 주변에도 말씀 잘하세요. 국감에서 부르면 무슨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 것, 그거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증인 박상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세팅을 좀 해야겠습니다.

고규미 증인님, 창 쪽 발언대로 와 주십시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용욱 대표이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발언해 주십시오. 예술인복지제도, 국가가 책임지고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재외국민 예술인 지원 배제가 이루어지면서 차별 논란과 행정 신뢰 문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정용욱 대표님, 오늘 출석한 고규미 증인은 2020년과 2022년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 재외국민은 대상이 아니다면서 환수 및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공고에 ‘재외국민 제외’라는 문구 없었지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환수 통지를 드렸을 때 말씀하신 문구는 없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재단은 이후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환수조치를 철회했습니다. 그렇다면 환수조치의 처분을 철회한 근거가 뭐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 그전까지는 저희가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이라는 사업 공고상에 자격요건을 설정했었는데 통상적으로 국내 거주 내국인은, 재외국민의 경우는 사업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상정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해지면서 2023년부터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참여가 불가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외국민을 제외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법률 검토 결과 실질적 거주를 가지고 내국인 여부, 국내 거주 내국인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가 제시돼서 다시 결정을 바꾸게……

○**김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 답변을 좀 들어야 되니까요.

고규미 증인님, 10년 넘게 국내에서 활동하시고 세금과 4대보험까지 납부해 오셨잖아요?

○**증인 고규미** 예.

○**김재원 위원** 재단은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지원금 환수와 참여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이 조치가 왜 부당하고 차별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고규미** 재단은 저에게 각종 사업의 신청자격인 예술인활동증명을 스스로 발급해 놓고 복지 지원 단계에서만 자의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적 자기모순이자 문화기본법 및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입니다.

○**김재원 위원** 결국 그 처분이 철회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소송비용 문제 등 부담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겪으셨습니까?

○**증인 고규미** 재단은 처분을 철회하면서도 행정법원의 소의 이익 없음을 주장하여 소송 각하를 구하고 또 소송비용을 저에게 전가하려 했습니다. 이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책임은 회피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로 인해 20년 넘게 국내에서 예술가로 살아온 저의 정체성이 산산조각이 났고 예술활동이 위축되는 심각한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겪었습니다.

예술가에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술가는 창작을 하려면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을 하고 창작을 하고 작품을 만들고 꾸미고 그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고 또 산산조각으로, 제 정체성을 산산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고 제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재단은 몰아갔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재단과 문체부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점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고규미** 첫째, 이번 행정 과실과 차별에 대한 재단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합니다.

둘째, 재외국민을 배제하는 차별적 지원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포용적인 제도를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아직 환수가 철회되지 않은 6명의 재외국민 예술인들에 대한 처분을 즉각 전면 철회하여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국내 장기 거주자임에도 재외국민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경계인 취급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배제되기 쉬운 구조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금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밖에서 태어난 국민이라는 이유로 죄를 묻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 관련 제도의 즉각적인 개선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모든 시작은 보조금법이었습니다. 본 사안의 시작은 보조금법이 상위법이므로 재고할 여지가 없다라고 재단은 저한테 계속 말을 했었고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계속 말을 했습니다, 피해 예술가들한테도. 예술가들을 일반화시켜서 적용시키는 보조금법에 대해서도 적극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15초만 쓰겠습니다.

국내 장기 거주 재외국민 차별하는 것은 2018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창작권은 재외국민의 국적과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다 포용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문체부장관님 그리고 재단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인.

○증인 고규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오늘 오전 주질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과정에서 진실이 좀 밝혀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휘영 장관 그리고 국가유산 허민 청장에게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김건희 국보농단, 국가유산 사적 유용, 현재 밝혀진 관련된 공무원들부터 업무 배제 조치를 취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을 기피하는 공무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더 명명백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업무배제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과 청장에게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먼저 말씀하세요.

○배현진 위원 존경하는 임오경 민주당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십분 공감합니다. 문화재, 어좌에 앉고 문화재에 일반 국민들이 절대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의 문체위원들도 마찬가지로 낮 뜨거울 정도로 송구하고 죄송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증인·참고인으로 나온 질의응답에 나서는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그 당시의 직위에 있지 않고 각자 다른 분야에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증언대에 세운 정용석 참

고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뜻즈, 300억 원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기관에서 열심히 다른 수익사업 등을 해야 하는데 단지 지난 정부의 어떤 과오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생각하고 기관이든 우리 국회에서든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직무정지는 조금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정용석 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황성운 실장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교홍** 지금 임오경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용석 사장보다 다른 문체부 안에 있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임오경 위원** 예, 문체부 공무원.

○**배현진 위원**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제가 예로 드린 건데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각자 맡은 부서에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오경 위원** 그분들을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문체부 공무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건.

○**배현진 위원** 아니, 다 문체부 직원이시잖아요.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런데 정용석 사장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 사장이기 때문에……

○**배현진 위원** 정용석 사장은 예를 든 거고요.

○**위원장 김교홍** 하여튼 그것은 지금 여기서 즉각적으로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장관이 금방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사와 위원장과 협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예.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난 3년 동안 김건희 사건으로 해서 당시에 궁능과 그다음에 관련된 고궁 그다음에 종묘, 전체적으로 해서 소장이라든가 과장들 63명이 3년 동안 근무하고 대부분 퇴사도 많고 자리 이동도 많이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난 추석 연휴도 반납하면서 이 자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자료는 전체적으로 기억에 의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잘못한 사람이나 그거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은 쥐도 마땅하나 그렇지만 명령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오전의 말씀대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들을 더 지금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1053명의 저희 국가유산청 직원들 중에서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일하게 되는데 이런 점을 좀 참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야 간사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장관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질의하시지요.

○**임오경 위원** 김영천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희영 장관님, 한국민속촌은 공공기관입니까, 아니면 사기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사기업…… 한국민속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거기는 사기업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관님이 순간 들었을 때 공공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는 것처럼 명칭과 방송 등에 노출되었던 이미지로 인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로 인해서 한국민속촌은 문체부와 관광공사로부터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민속촌이 중소 공연기획사들에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 발주를 내서 60억 원 가까이 피해를 입히고 민속촌 자체도 소송에 휘말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관광공사 서영충 직무대행님, 이 사건 알고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임오경 위원 알고 있어요?

증인에게 질의할게요.

화면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람 누구입니까?

○증인 김영천 콘텐츠기획과장입니다.

○임오경 위원 한국민속촌 정직원이지요?

○증인 김영천 예.

○임오경 위원 이 직원은 일부 협력업체들과 공모, 한국민속촌의 명의로 허위 발주서를 교부하여 민속촌의 공연·이벤트 협력업체들을 기망하고 약 6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영천 예.

○임오경 위원 이 피해 업체들, 공연기획 외주받아서 하루하루 먹고사는 영세한 공연 종사자들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중 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영천 예.

○임오경 위원 여기서 법리 공방을 제가 펼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문 과장이라는, 당시 기획 담당 정규직원이었지요?

○증인 김영천 예.

○임오경 위원 업체들 모두 그 문 과장하고 미팅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비위 사실에 대해 회사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회사 측에서?

○증인 김영천 예.

○임오경 위원 이 문 과장은 롯데월드에서 스카우트해 온 사람 맞지요?

○증인 김영천 예.

○임오경 위원 전 직장에서는 사기 전과 없었습니까?

○증인 김영천 없었습니다.

- **임오경 위원** 세평 검증 안 하고 영입해 옵니까?
- **증인 김영천** 거기서는 전혀 문제가……
- **임오경 위원** 세평 검증 안 하고 영입해 왔습니까?
- **증인 김영천** 다 평가해서 채용했습니다.
- **임오경 위원** 협력업체들 상대로 사기치라고 검증도 없이 정직원으로 영입했습니까?
- **증인 김영천** 그거는 협력업체가 아니고요.
- **임오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약서 작성해서 비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관계없다, 잘못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잘못 없습니까?
- 다시 물어요. 잘못 없습니까?
- **증인 김영천** 예, 없습니다.
- **임오경 위원** 회사 측에서는 잘못이 없다?
- **증인 김영천** 예.
- **임오경 위원** 검증하지 않고 데려와서 정직원으로 해서 허위 계약서들을 저지르는 동안 윤리경영 점검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 **증인 김영천** 윤리경영은 직원들한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 **임오경 위원** 교육시키고 윗선에 사업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 지출 회계보고 하게 되어 있지요?
- **증인 김영천** 예.
- **임오경 위원**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잘못 없다?
- **증인 김영천** 그거는……
- **임오경 위원** 회사 측에서는 잘못 없다, 윤리경영 점검 잘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잘못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증인 김영천** 예.
- **임오경 위원** 사람 목숨이 날아간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극단적으로 세상…… 사람의 목숨이 죽어 나갔어요. 관계없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 **증인 김영천** 저희도 그걸 몰랐고,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 **임오경 위원** 회사에서 몰랐던 것도 그것도 죄입니다. 아니에요?
- **증인 김영천**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 **임오경 위원** 직원 교육, 경영교육, 윤리교육 잘못시킨 거 회사 측 책임 없습니까?
- 다시 물어요. 윤리경영 점검 잘못한 거에 있어서 책임 없습니까?
- 장관님, 오늘이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임오경 위원** 안전관리부터 시작해서 기관 다 잘못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 **임오경 위원** 대통령도 사과했습니다. 전 대통령이 아닌 현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TF까지 구성해서 원인까지 다 밝혀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들으셨어요, 증인? 회사 책임 없습니까? 회사 책임 없습니까? 사람이 극단적인……

○증인 김영천 그 부분은 안타깝지만 저희, 제 얘기도 한번……

○임오경 위원 제가 질의 다 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민속촌에서 직원 채용 잘못해서 직원이 사기를 쳤는데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에 대해 대표이사가 한 번이라도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외사촌으로 알려진 정원석 대표가 그런 식으로 협력업체들을 대하도록 지시했습니까? 잘못했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또 피해금을 물어야 된다, 책임 전가해야 된다 그렇게 지시했습니까?

○증인 김영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하루하루 먹고살기 급급한 공연 종사자, 기업들이 한국민속촌의 정직원에게 피해를 입고 목숨까지 잃은 사건입니다, 장관님. 문화예술위원장님도 여기 나와 계십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한국민속촌은 문체부의 열린관광지로 선정되었고 관광공사로부터 MICE 관련 단체 지원 혜택도 받은 공신력 있는 회사이지만 영세 협력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사회적 책임 있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도 통과되었습니다. 장관님, 우리 문화예술 쪽에서도 반드시 예술·공연·스포츠 협력업체들에게 하청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업체도 책임을 지는 법안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문체부도 나서서 상황을 파악하시고 관광……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입법 필요 시 의원실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은 190억 7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의뢰받은 공연자들을 지금 탓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이것 또한 거기 직원이 다 요청해서 한 겁니다. 여기 증인이 나와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잘못했습니다. 직원 하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 교육시켜서, 잘못했습니다'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왜 잘못했다고 말을 못 하십니까? 대표도 전무이사도 어느 직원 하나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김영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이제서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증인 김영천 말씀드릴 기회를 안 주셔 갖고 제가 못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대표도 왜 말씀을 안 하셨냐고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루하루 공연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분 아세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증인 김영천 그런데 이 업체들은 저희하고 한 번도 거래가 없었던 업체들입니다.

○임오경 위원 한국민속촌 정직원 과장이, 문 과장이 계약하고 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증인 김영천 협력업체가……

○임오경 위원 협력업체요.

○증인 김영천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전 과장이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윗선에서 보고 한 마디 안 받고, 지출 회계가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보고 한 번 안 받았다고 말씀 하실 수가 있어요?

○증인 김영천 아니, 회사에서 자금이 나간 계산서도 발행이 안 됐고요. 자금이 나간 일이 없어요.

○임오경 위원 관리 안 한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증인 김영천 저희하고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못 한……

○임오경 위원 윤리경영 점검하셨나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기치는 거 방조한 것밖에 더 됩니까?

○증인 김영천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 당사자들에게 가서 사과하시고 법정 공방이 남아 있지만 법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영천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하지만 그 종사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증인 김영천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 이런 일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광공사에서도 정부 예산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거라고 놓치지 마시고 세심하게 작은 것까지 하나 하나 다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임오경 위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은 쟁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황선철 증인, 앞에 이쪽 중언대로 나와 주세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장관님, 잠깐 여쭐게요.

좀 전에 문화재 사적 유용 논란과 관련해서 임오경 간사님 주문과 문화재청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장관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무배제가 필요하다, 아니다, 우리 직원들 사정이 있을 수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주요한 직책에서 이 일에 깊게 관여된 분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업무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저는 깊게 관여돼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어떤 부분까지 직무배제를 하는 게 맞는지를 한번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초에 그러면 실국장 인사를 미리 하셨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할게요.

증인, 힘들게 나오시는데 고생하셨어요.

○증인 황선철 죄송합니다.

○**박정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증인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읍저협의 추가열 회장이 같이 나오셔야 이게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증인만 나오셔서 효과적으로 진실을 찾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편안하게 말씀 주세요.

○**증인 황선철** 예.

○**박정하 위원** 두 번 증인 채택이 됐는데 계속 안 나오시다가 오늘 나오셨어요. 왜 오늘 나오셨어요?

○**증인 황선철** 사실 절차에 대해서 제가 좀 무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절차적으로 불출석사유서……

○**박정하 위원** 결과적으로 절차라는 거는 세 번까지도 안 나오면 혹시 고발될 수도 있다 이런 법적 조언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증인 황선철** 그거는 아니고요.

○**박정하 위원** 그건 아니고?

○**증인 황선철** 예.

○**박정하 위원** 현재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증인 황선철** 입건은 아직 안 된 걸로 있고 내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내사?

○**증인 황선철** 예.

○**박정하 위원** 그러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는 건 아닌 거고?

○**증인 황선철** 예, 아직……

○**박정하 위원** 그 내용이 읍저협 사무총장으로 계시면서 이용 내역을 부풀려 특정 회사에 더 많은 저작권료가 배분되도록 했다라는 혐의 그리고 그 액수가 한 8억 정도 된다. 맞아요?

○**증인 황선철** 아닙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라는 거는?

○**증인 황선철** 제가 그 당시에 사실 그거에 관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협회 시스템상 그거를 직원이 관여를 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정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사무총장으로 계셨나요?

○**증인 황선철** 아닙니다. 그때 사업2국장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정하 위원** 사업2국장?

○**증인 황선철** 예.

○**박정하 위원** 그러면 이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의 설립은 안 하셨어요?

○**증인 황선철** 설립이라고 하면 외부에 있는 별도의 회사 말씀하시는……

○**박정하 위원** 그렇지요.

○**증인 황선철** 설립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설립하셨어요?

○**증인 황선철** 예.

○**박정하 위원** 읍저협 직원으로 있으면서 외부 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증인 황선철**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좀 살펴봐야겠지만 사실 그 자체로 정

말 실망 많이 드렸고 저를 믿어 주셨던 분들과 회원분들께 저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아니, 그거는 괜찮은…… 그건 나중에 음저협에서 하실 말씀이고. 이렇게 직원으로 계시면서 외부에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 가능한 거냐고요. 잘못된 거예요?

○증인 황선철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규정이나 이런 걸……

○박정하 위원 모르겠어요?

○증인 황선철 예.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직접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8억 정도가 편취가 된 건 맞아요?

○증인 황선철 아닙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액수가?

○증인 황선철 예.

○박정하 위원 어느 정도예요?

○증인 황선철 편취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회사는 사실 별도의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직원을 고용을 해서 별도의 업무를 했고……

○박정하 위원 운영을 하시면서 별도의 업무를 했고 거기에 그러면……

○증인 황선철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도 액수는 8억 정도가 맞아요, 규모가?

○증인 황선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규모는 8억 정도 맞는 거다?

○증인 황선철 추정입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총장님의 직원으로 있으시면서 밖에 한 8억 정도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막 할 만한 배짱이 있으신가요? 회사의 매출이 8억 이상, 그게 8억이면 전체 매출은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증인 황선철 전체 매출이 그 정도 됩니다.

○박정하 위원 전체 매출이, 그러면 8억이 전체 다?

○증인 황선철 예.

○박정하 위원 혼자 다 결정하셨어요?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이런 거 다 혼자 하셨어요?

○증인 황선철 다른 투자자가 1명이 더 있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다른 투자자랑 같이?

○증인 황선철 예, 같이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 투자자는 뭐 하시던 분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네.

○증인 황선철 저희 협회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박정하 위원 같이 협회?

○증인 황선철 예.

○박정하 위원 그분도 현직에 계신 분이에요?

○증인 황선철 예. 지금은 저랑 같이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하 위원 업무만 배제됐지 현재, 그러니까 같이 읍저협 직원이면서 안에서……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오해받을 돈이 8억이 간 건 맞네요?

○증인 황선철 예,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저는 8000만 원짜리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도 막 하기가 겁이 날 텐데 8억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할 수 있는 게…… 혼자 그다음에 그분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할 수 있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증인 황선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어찌 됐든 협회랑은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박정하 위원 협회로부터 돈을 받는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증인 황선철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회로부터 돈을 받는 거는 아니고요 완전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정하 위원 그러면 협회로부터 로그 기록을 부풀려 가지고 돈 받은 게 아니에요?

○증인 황선철 아닙니다.

○박정하 위원 8억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증인 황선철 그거는 오해시고요. 저희가 협회랑 거래한 내역은 일절 없고요.

○박정하 위원 일절 없어요?

○증인 황선철 예. 외부에 있는 별도의 회사, 그래서 별도의 회사들끼리 거래를 했는데……

○박정하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열 회장이 안 계셔 가지고 질의 더 효과적으로……

나오셨는데 고생하셨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건에 대해서 장관님은 계속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이 읍저협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답변을 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읍저협은 저희가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시정 요구를 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따라오지도 않고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거는 제도적으로 지금 허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법 개정도 해야 되고 관리 감독을 더 엄정하게, 엄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쟁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의 증인 신문을 모두 마쳤고요.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유철균 증인,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보이는 곳으로 나와 주세요, 이쪽으로.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질의 시작하셨구나. 죄송합니다.

○**조은희 위원** 저 시작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려면……

○**박정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려고요.

좀 전에 증언을 하셨던 황선철 증인에 대해서 사건이 접수가 안 됐다고 했는데 사건번호까지 여기 있어요, 변호사 선임신고서도 있고. 증인은 분명히 위증을 한 거거든요. 이건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고 나면 간사 간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만약에 항변하실 게 있으면 말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황선철** 내사사건번호일 겁니다.

○**위원장 김교홍** 내사사건번호가 있어?

○**박정하 위원** 내사사건번호도 있어요? 제가 형사사건에 밝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사건번호가 있고 배임수재 이렇게 있고 ‘피의자 황선철’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 김교홍** 그건 내사사건이 아닌데?

○**증인 황선철** 아닙니다. 이게 내사사건이고 말씀하시는 사건번호……

○**위원장 김교홍** 아니, 내사사건이 피의자가 됩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요, 내사사건에서? 여기 피의자로 돼 있잖아요.

○**증인 황선철**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아마 변호사선임계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선임계 양식에 따라서 거기에 제 이름을 적었을 뿐이었을 거고요.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렇지 않지.

○**증인 황선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피의자라는 거는 죄가 인정돼서 이미 피의자로 바뀌는 과정이지요.

○**증인 황선철** 그사이에 만약에 혹시라도 바뀐 것을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며칠 전까지……

○**위원장 김교홍** 본인이 몰라요?

○**증인 황선철** 예, 며칠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사 증인 걸로 알고 있었고, 기사도 보시면 다 내사 증인 걸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사 중이고.

이 부분이 사건화가 되면 법적으로 봤을 때는 입건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입건 후에 사건번호가 나오게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 그 사건번호는 내사 중이더라도 내사사건번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번호가 아마 기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영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인 황선철** 예.

○**위원장 김교홍** 질의하십시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유철균 증인,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이 게이트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하셨고 이 사업 성과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유철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연도에 한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문제가 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4개 회사가 합심하여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국가유산 청 문화유산 디지털화 사업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홍보영화인 ‘만명과 서현’은 세계 최대 단편영화제인 LA국제단편영화제에서 공식 초청 상영작이 되어서 로스앤젤레스 리걸 라이브 극장에서 상영되기까지 했고 본 사람들이 한국의 고대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영화를 9편을 만들었는데 그 9편이 모두, 4편은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고 5편은 국내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304채 그리고 유물 1949종 그리고 디스커버리 구역 9개 구역을 성공적으로 초과 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증인 유철균** 예.

○**조은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증인 유철균** 감사합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다 끝나신 거예요?

○**조은희 위원** 예.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시간을 제가 좀……

○**조은희 위원** 아니, 2분만 쓰는 거였어요.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2분만.

황선철 증인 잠깐만, 거기서 답변하셔도 돼요. 내가 여쭤볼 게 있어서.

음저협에서 지난 7년간 무려 1027억이라고 하는 수입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저작권?

○**증인 황선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이것을 협회원들께, 원래 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회원들한테 나눠 줘야 되잖아요. 나눠 주는 노력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증인 황선철** 레지듀얼(residual) 유튜브 사용료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지요?

○**위원장 김교홍** 예?

○**증인 황선철** 레지듀얼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위원장 김교홍** 예.

○**증인 황선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걷고 있는 돈은 4000억가량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수료, 그러니까 딱 9% 정도의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회원에게 분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게 지난번에 기사화됐었던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식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김교홍** 여러분이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는데 안 찾은 것 아니에요?

○**증인 황선철**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협회의 사용료로 추정이 돼 가지고 저희 협회로 귀속이 된 사용료인데……

○위원장 김교홍 협회 것이 아니잖아.

○증인 황선철 협회 걸로 추정이 돼서 온 사용료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니, 아니지. 회원들한테 나눠 주게끔 돼 있는 걸 여러분……

○증인 황선철 협회 회원, 협회 회원들이요. 협회 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래, 협회 회원들한테 나눠 줘야 되는데 안 나눠 주고 그중에 한 300억가량은 회원 생일 날, 설날, 명절 날 해서 연간 10억씩 막 쓰고, 한 300억가량은 그냥 쓴 것 아니에요.

○증인 황선철 아닙니다. 그 사용료는 저희 회원, 방금 말씀하신 그 사용은……

○위원장 김교홍 700억은 지금 남아 있잖아, 돈이.

○증인 황선철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용분은 저희 회원 복지기금에 있는 별도, 완전 별개의 금원에서 나간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유튜브 사용료 그렇게 들어온 미분배 사용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사실 저희 규정에 따라서 분배를 원래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장 김교홍 내가 얘기하는 건 1027억.

○증인 황선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문체부에서 저희한테 권고를 내렸었던 게 분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전에는 분배 기간을 늘려라, 그러니까 더 오랜 기간 유보를 시켜 뒀다가 분배를 하라는 명령까지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저희가 조치를 계속 취해 왔었던 거고요.

저희가 그것을 그냥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처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장관님, 지금 한 700억가량 남아 있는 것 말이에요, 저작권료. 이건 그냥 문체부에서 잘 관리를 하셔서 음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하는 게 어때요, 활용하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가 분배 중단을 하라고 조치를 한 것은……

○위원장 김교홍 방만하게 운영하니까 중단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걸었던 걸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고요.

○위원장 김교홍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래서 권리자들이 제 몫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절차를 저희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교홍 지금 딴소리하고 있어요, 증인은. 증인이 자꾸만 딴소리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 김교홍 저는 지금 장관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교홍 회원들한테 제대로 나눠 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부분들은 말씀처럼 다른 용도, 정말 공익적으로 회원을 위한 용도로 쓰는 거지 저렇게 자의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응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장관님, 가을야구가 지금 코리안리그까지도 가고 이제 거의 열전입니다. 거의 1000여 만 프로야구인들이 갖는…… 지금 한화·LG전은 거의 만석은 기본이고 열기 가워낙 뜨겁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제기하고 있지만 이미 14일 문체부 국감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야구장 티켓이 아예 선점·재판매 또 이른바 선선예매까지도 있다는 문제는 지금 하루이틀 된 건 아니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이렇게 지적을 했으나 장관님은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력이 없고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고충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장의 고민은 가히 상상도 못 할 수준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정부가 이렇게 한계를 얘기한 이상 손을 대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10월 26일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LG·한화 경기 티켓이 티켓베이에서 최고 1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기록이 연일 기록 갱신하는 업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좌석권이 49만 원, 5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 경기 프리미엄이 아니고 명백한 암표 수준의 불법 재판매입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시리즈 6차전 티켓이 999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일인당 표값이 1000만 원으로 오른 겁니다. 웬만한, 이거 상상을 못 하는 일입니다.

가운데 보면 이 장면이 뭐냐 하면 같이 PC방에서 있던, 아마 PC방이겠지요. 티케팅 하려다가 상당히 열이 받은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예매를 포기하고 앞에 놈 찍었다. 와, 저것을 어떻게 이기나. 12시 땡 하자마자 알아서 클릭 눌러주는 이게 매크로 100% 아닌가’라는 말을 본인이 올렸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암표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정연욱 위원 6차전 11월 2일 자 티켓이 999만 원까지 올라가면 이게 최소한 정상적인 티케팅하는 구조인지, 누가 이걸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적입니까?

아마 프로야구, KBO에 지금 국비가 들어가는 게 한 200억 좀 넘지요, 정부 예산 지원하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정연욱 위원 특히 티케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루이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게 한계가 있다고 넘어갈 사안은 이미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매크로까지 동원하는 게, 여러 가지 다른 사건에도 매크로가 사회 문제화됐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

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무한정 방치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국정감사 이후에,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된 이후에 KBO에 실태조사나 재판매 방지 요청을 실제 하신 적 있습니까?

장관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재판매…… 요청보다는 지금 함께 부정예매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위해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연욱 위원** 한계가 근본적으로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일단 매크로인지 아닌지를 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것은 기계적인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티켓을 확보해서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법안들은 의원님들이 많이 발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법안도 어떤 형태로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당장에 눈앞에 들어가는 조치, 당장 경기 현장을 찾는 사람들이 느끼는, 수많은 관중들이 느낀 좌절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맞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같이 누려야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 암울한 현실, 1000만 원짜리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을 붙여야 하는 현실이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 근본적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당장 문체부 차원에서도 행정지침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한계를 얘기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입법은 입법이고, 어차피 그건 시간이 좀 걸리는 사안인데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발매 부분을 좀 더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텐데 한계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간단하지 않나,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으셨나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욱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스포츠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포츠, 콘서트, 공연 모든 곳에서 지금 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대표적으로 이 부분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건전한 관람문화를 해치고 심각한 피해를 해당 산업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지난 몇 년간 해 왔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결국은 뭐냐 하면 티켓베이처럼 벼젓이 엄청난 웃돈을 붙여서 팔고 있는 행위를 단속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법안에 대해 그러한 개정안들을 지금 발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회기에서는 꼭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연욱 위원 입법과 함께,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구단과 여러 가지 얘기를 진행하셔서라도 당장 지금 눈앞에 닥친 이 답답한 부분, 1000만 원을 주고 티켓을 구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당장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지금 코리안시리즈 때문에 이게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또 12월이 공연 시즌입니다. 그래서 공연이나 콘서트 쪽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전력을 다해서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꼭 이번에 법 통과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기현 위원님 발언 순서인데, 조금 전에 이기현 위원께서 동행명령장을 갖고 마포에, 마포에 갔다 오셨지요? 마포에 가셨고 다른 또 한 팀은 지금 고양시 일산에 갔는데 두 군데 다 생수통, 신문 모든 게 그대로 앞에 쌓여 있고 저희들이 보낸 이 출석통지서도 그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야 간사와 협의해서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현 위원 질문에 앞서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한번 주시지요.

제가 소상히 보고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주셨는데 그리고 배현진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제 생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선출직 공직자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공직자들 기강을 점검하는 민정수석실에도 꽤 다년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의혹이 집중되는 사건 그리고 국민들이 질타하는 사건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서 공직자들에게, 이렇게 그 사건에 관련된 공직자들이 그 업무를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 물론 부서가 이동됐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용인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의 법 정서 그리고 공직사회에 대한 믿음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가장, 문체부에서 1급 공직자 중에 파견 나가 있던 문체비서관이 관여돼 있고 그분이 지금 문체부의 모든 살림을 그리고 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기조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무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산청은 보고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허민 청장님 오셔서, 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장님이 업무 파악과 업무 장악력을 갖추실 때까지는 기다려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고궁의 사적 사용 관련돼서 처음에는 4개 그다

음에는 12개 그다음에는 15개, 조사할 때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산청이 아무리 직원들이 추석을 반납하고 이 문제 관련돼서 없는 기록을 찾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은 보고 체계가 무너진 심각한 공직기강이 무너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문체위가 이 사건을 그대로 장관과 청장에 맡겨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셔서 적어도 상정적으로 문체부와 그리고 유산청의 이 보고 체계가 무너진 것 그리고 관련자가 핵심 직위에 있는 상황은 저는 당연히 직무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배제 자체는 징계가 아닙니다. 직무배제하고 대기명령받고 있다가 그다음에 수사가 끝나고 감사가 끝나면 원대복귀하거나 다른 보직으로 보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문체위가 이 두 기관이 갖고 있는 보고 체계가 무너지고 공직기강이 무너진 사안을 그대로 방치하고 국감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두 간사님과 상의해 주셔서 전체 다를, 관련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직무배제할 수 없지만 적어도 상정적으로라도 두 기관의 책임자들에게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교홍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정회할 때 간사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런데 국가유산청에서는……

○ 이기현 위원 허 청장님, 질의가 아닙니다.

○ 국가유산청장 허민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교홍 허 청장님, 왜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궁능본부장은 지금 분리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현 위원 국립고궁박물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 좀 잡아 주세요.

○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나왔습니다.

○ 이기현 위원 국립고궁박물관장님, 지난번에 저희 방에서 질의했을 때는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다가 다시 수정된 의견으로 본 감사에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확인이 안 됨다고 하셨고.

(영상자료를 보면)

그리고 내부에서 메일을, 직원들끼리 김건희 방문 관련해서 사전 준비 메일을 동선까지 그려 가면서 다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이 만든 메일 관련돼서 그러면 대통령실의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누구한테 연락받았는지는 진술이 헛갈리는데 보고는 문체비서관실에 했습니까, 의전비서관실에 했습니까, 부속실에 했습니까? 하셨을 것 아니에요.

○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일단 저희가 2년 반 전에 있었던 직원들하고……

○이기현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유선상 확인한 결과 그분들이 어떻게 보고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을 못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관장님, 그 뒤에 그 당시의 문화체육비서관과 선임행정관이 앉아 계십니다. 이따 쉬는 시간이라도 두 분과 상의하셔서 보고받으신 분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두 분이 만약에 안 받으셨다면 부속실로 바로 보고한 것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바로 확인하고 답 주세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알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내부에서 만든 문건을 보면 이렇게 세부 계획을 잡습니다. 어딜 가겠다고 했냐면 지하 1층에 내려가서 1·2수장고 중에 제1수장고를 관람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맞지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제1수장고는 고문서 중심이지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제2수장고, 의궤 등이 들어와 있는 곳은 서화류가 중심이고 많지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면 1수장고로 관람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2수장고로 관람 계획을 변경한 것은 김건희의 요청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 관장님이 결정하신 내용입니까?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일단 이 내용처럼 기존에 박물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동선 계획을 사전에 준비를 했고요. 3월 2일 날 방문했을 당시에는 2수장고로 들어간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니까 계획서상 1수장고인데 왜 2수장고로 가셨나고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지금 1·2수장고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입구가 같았고요. 아마 그때 당시 담당 과장은 동일한 공간으로 파악하고 1수장고로 적시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게 헛갈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장고가 1과 2가 나눠져 있는 것은 문이 같다 하더라도 들어가서는 입구가 분리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런데 의궤가 있는 쪽으로 갔어요. 원래 박물관에서는 1수장고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2로 간 겁니다. 그것을 누가 요청했는지, 담당 과장이 계획서상에 1인데 2로 가자고 한 것인지, 김건희가 나는 의궤를 봐야 되니까 2로 가자, 의궤 어디 있느냐라고 지정하고 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일단 저는 사실 그때 상황에 제가 있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당시에 담당 관장이 직접 인도해서 저희가 전실을 안내를 했습니다. 아마 그 상황 속에서 2수장고를 열람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기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알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국감 끝났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알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그리고 관장님, 기록도 남기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든 피해 갈 수 없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맞습니다.

○ 이기현 위원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께서 그 당시 관장이 아니셨다고 하지만 박물관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이 부분들은 다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향후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문화유산은 국민 모두의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후대의 것입니다. 당대의 것만이 아니에요. 역사 그 시점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물입니다, 문화재이고. 그렇게 우리가 지정하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셔야 될 공직자들이 본인들이 해야 할 의무를, 법적 의무마저도 해태하셨고 그리고 권력자라고 해서 눈감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김건희 씨가 가서 어좌에도 앉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유산청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앞으로 명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장관님께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 인정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현 위원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명령했다고 그래서, 높은 기조실장이 명령했다고 그래서, 높은 청와대 누가 어떤 비서관이 명령했다고 그래서 기록도 남기지 않고 국회에 와서 위증하고 드러날 때마다 진술이 바뀌는, 제가 작년 국감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지는 않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장관님도 기록 보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유산청에 있었고 후임 청장이시지만 이 문제를 문제 제기했었는데 청장님은 이 문제를 조사하는데 여러 차례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하신 것이에요.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든 했든 간에 내부의 보고 체계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청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콘텐츠진흥원장님, 좌측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원장님, 지난번 해외 센터장 비위 감사 마무리됐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마무리해서 보고서를 의원실에 보고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보고를 했다고요? 저는 보고받은 게 없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어제 보고…… 완료가 지난 주말에도 됐고요. 제가 월요일 날 나주에서 근무를 하고 어제 서울 근무했었는데 어제 보고가 공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보고받은 것 맞아요? 아직 안 왔다고 하는데요. 뭐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어제저녁에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저희 직원하고 비서관님하고 공유를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GPS 내역 감사에 활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활용해서 논의하신 것 맞습니까?

(김교홍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어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어제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어제……

○진종오 위원 제가 지난번 자리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그 GPS 관련해서는 그 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위치정보 보호법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우려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그것을 공유하면서 의원실에서 그것 제공해 주시면 그 자료 갖고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종오 위원 일단 넘어갈게요. 다시 얘기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전의 지적 사항에 이어서 추가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부문장 직제 신설한 부분 질의했었지요.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로 부문장 근로계약 체결하셨고 어쩔 수 없어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떼우고 있고요. 그런데 자체수입이 최근 몇 년간 상승했어요, 감소했어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감소하고 있지요? 급감하고 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진종오 위원 급감하고 있는 이유를 봤는데 이 자체수입의 95%가 대관 수입이고요 대관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맞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자체 예산 절감 노력에 대해서 대관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제출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것은 알고 계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이 자체 예산 절감 노력이 변질되었다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자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콘진원 대관 건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보시면 ‘물을 아끼고 있어서 세제가 모자라면 직원들은 손세정제로 바닥을 닦고 있다’, ‘항의하는 직원들은 왕따를 시키거나 인사과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갑질, 폭언, 폭행이 발생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나오자 허위로 증언할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것 인지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알아보니까 스튜디오 큐브, 대전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맞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쪽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총 3건, 현재 내사 진행 중 이랍니다. 이것도 알고 계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그것은 저희도 고충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요.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거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직원들한테 터무니없는 식으로 하는 게 지출 절감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진종오 위원** 절대 그렇지 않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진종오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직원들은 성과급도 미지급된 상황이 있어요. 그 성과급이 미지급된 것이 부문장 급여 주려고 지연된 것은 아닐까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종오 위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그것은……

○**진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직원의 음주 사건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그것 보고받았습니다.

○**진종오 위원** 8월경에, 음주 사실을 콘진원에서 이미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보면,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징계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재미 있어요. ‘혈중알콜 농도를 파악할 수 없어서 구체적인 징계양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최종 수사결과 통보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게 웃긴 것이 콘진원에서 음주 사건이 있으면 충분히 징계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그냥, 제 식구 감싸기 아니라고 보이십니까?

왜냐하면 음주 운전도 경찰청에다가 물어보면 알콜 농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내부 감싸기라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 잡음들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 잡음의 발생이 자체수입과 그다음 부문장 직제 문

제 연결되어 있는데 자료 보시면 논란에 있던 해외 센터장이요 23년도에는 자체수입을 담당하는 방송팀 팀장, 24년도에는 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팀 팀장 그리고 25년 3월 달에 해외 센터에 발령이 난 사람입니다.

제보에 의하면 이 센터장이 부문장 인건비를 방송팀 자체 예산으로 내자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입니다. 본인 급여 체계를 만들고 부문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콘진원에 따르면.....

저 조금만 쓰겠습니다.

이 부문장 인건비 등 처우 관련 내용을 준비한 인사팀은 경영전략본부 산하인데 당시 경영전략본부 본부장이 바로 그 부문장인 겁니다. 모든 정황이 다 들어맞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그 부분은 제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제가 마무리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콘진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지요. 해외 센터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는데 부문장 직제 신설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까지 정황들을 다 들어 봤을 때 누가 봐도 본인이 자기 자리를 위해서 셀프적으로 자리를 만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정황들을 보면 저는 이 상태로는 콘진원은 내부 감사로는 도저히 한계가 있어서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저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외부 감사를 요청하고 싶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부문장 직제 신설 과정에서 이런 보은인사 정황이랑 스튜디오 및 자체수입 운영 현황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정황 등 전반적으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해 줄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문장 직제와 관련해서는 작년 국감 때도 문의가 있었고 장관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처음에 저희 콘진원이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늘었음에도 부원장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지금은 물론 원장도 안 계신 상황입니다만, 갑자기 예산이 늘고 조직이 커지면서 부원장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모시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게 그 당시에 자체 사업비, 국고 해외 운영으로 하겠다라고 승인을 받고 사실은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작년 가을에 국회 지적사항에 의해서 그 예산의 실제로 쓸 수 있는 계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자체 사업비로 쓰고 있는 것 맞고요. 다만 그런데 그 당시에 공정한 평가 과정을 거쳐서 뽑힌 분의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 예산은 자체 사업비로 쓰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음주와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정계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는 좀 쟁기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부문장 인건비를 위해서 손세정제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진종오 위원 그런데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아니, 그거 아닙니다.

○ 진종오 위원 그럼 왜 그렇게 하게 놔뒀지요, 그냥?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인데요 기자분이 와서 다 취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제로 세제는 다 썼는데 손세정제가 여분이 많아 가지고 그걸 썼다라는……

○ 진종오 위원 손세정제는 넘어가시고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제보 내용 자체가, 지금 콘진원 자체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좀 빗나가셨는데 이 해외센터장이 했던 그전의 직책이 자체수입 담당하는 방송팀 팀장 그리고 인사 운영하는 운영팀 팀장인 데다가 이분이 또 제안을 한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자체 예산으로 만들자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해외센터장으로 간 것을 문제로 얘기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애초에 자체 예산은 해외거점 운영비로 쓰는 거였었고요.

○ 진종오 위원 그럼 이거 제보에 관한 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확인해 보시고 답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내부에서의 감사로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대리 임오경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짧게…… 마무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별건인데 그게 지금 약간 병합이 된 사안이 있는데요. 일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의 일탈에 대해서 감사가 늦어진 부분은 제가 그것은 잘 챙겨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종합적으로 지금 몇 가지 사안을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께 따로 그것은 조만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제가 부원장님을 질책하는 건 아니고 콘진원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안이한 사람 때문에 콘진원 위상이 떨어지는 것을 좀 빨리 막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 조계원 위원님의 질의시간이지만 박수현 위원님께서 국감장에 장비까지 설치하시면서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충남 공주시부여군 청양군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현 위원 진심으로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장님께 요청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질의

하기 전에. 제가 그동안에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오늘 1분만, 의사진행발언 대신에 의사진행 시범시간을 1분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잠깐만요, 장비 설치에 있어서 야당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못 구했습니다, 간사님께. 그래서 박수현 위원님께서 철회를 요청하셨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박정하 위원 아니요, 하세요.

○위원장대리 임오경 허락해 주시겠답니다.

○박수현 위원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시범입니다.

손솔 위원님 나와 주세요.

(한궁 시범)

감사합니다, 손솔 위원님.

감사합니다.

진종오 위원님이 던지시면 뜯을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임오경 의사진행발언 20초 남았는데……

○박수현 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지금 이 의사진행 시범을 보인 것은 한궁이라는 종목입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시범을 보신 종목이 한궁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한궁은 우리 전통놀이인 투호와 전통무예인 국궁, 서양의 다틱, 양궁에 IT 기술을 접목해 대한민국에서 창시된 전통 생활체육입니다. 창시되었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생활체육연맹은 170개국 이상 330개 단체회원으로 구성된 국제스포츠기관인데 이 세계생활체육연맹에 대한민국이 창시국으로 등록된 종목이 태권도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그 외에 많을 것 같지만 태권도와 이 한궁이 세계생활체육연맹에 대한민국이 창시국으로 등재된 종목인 것을 보면 매우 귀중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계생활체육연맹에서 한국의 대표 TSG로 또 인증이 되었어요. TSG는 각국의 문화·전통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스포츠 종목 인증 제도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계십니다만 2021년에 대한체육회의 인증단체로까지 승인된 것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솔 위원님과 제가 함께했지만 이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고 또 가족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종목입니다. 사회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 최적화된 생활체육입니다.

또 한궁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경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지체, 청각, 뇌병변 등 각 장애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규정으로 각자의 조건에 맞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놀란 사실인데요, 이 한궁은 교육 현장에서 통합체육의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초중고 장애인 체육교과서에 정식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는 체육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초등학교 3·4학년 그리고 중학교 1·2·3학년 교사용 지도서,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용 국정 체육교과서에 공식 등재되어 있고요.

한궁 체육 프로그램은 올해 2025학년도 2학기, 9월 시작되는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체 학생을 위한 실제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육학 대상 학생은 약 10만 8097명인데 이 중 약 1만 5000명 이상이 지체장애 학생입니다. 그러나 기존 학교 체육수업은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이는 신체활동의 감소와 심리·사회적 고립 문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궁의 교과서 등재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합니다.

(임오경 간사, 김교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우리 노년층에게도 신체 균형감각 및 인지·운동 능력 향상을 통한 치매 예방 효과가 있음이 여러 논문을 통해 밝혀지고 있고 이에 노인회관이나 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대회나 행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전국한궁대회가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국 7만 개 경로당 중에 4만 개 이상에 한궁이 보급돼 있습니다. 전국 65세 이상 한궁 심판지도자 1만 3072명이 함께하며 현장 인프라도 충분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K-스포츠 한궁은 해외에서도 이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미 2022년에 제1회 전미주장애인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고 2024년에 제2회 전미주장애인체전에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바도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통합체육, 치매예방,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 K-스포츠로서 해외 확산 가능성까지 입증된 종목인데 바로 이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스포츠 수입국에서 스포츠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고 스포츠산업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1분만 더 이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박수현 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과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이 한궁을 어떻게 육성하고 진흥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국민스포츠로 보급하고 K-스포츠로 세계에 확산할 것인가, 이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가능성이 충분한데 우리만 몰라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생활체육연맹이 선정한 그 330개의 단체회원 중에서 이것이 태권도와 함께 대한민국이 창시자인 그런 종목이다 하는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궁육성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해서 이것을 국회에 통과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의지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말씀처럼 한궁은 대한체육회가 인정하고 있는 생

활체육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 그다음에 장애인,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는 스포츠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수현 위원 남녀노소, 가족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남녀노소, 가족도 다 즐기고 있습니다.

내년에 자자체 공모사업으로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사업을 할 건데 거기에도 포함을 시키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처럼 K-스포츠의 하나로써 글로벌하게도 확산시키고 또 종목으로도 진흥하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지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자리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위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입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을의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최희영 장관님, 제가 지난해 축구협회 현안질의 당시에 축협이 2015년부터 국·시비 그리고 축협 자체 재원까지 약 1550억 원을 투입해서 천안축구종합센터를 건립 중인 것과 여기에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특정 대기업, 그러니까 현재 회장인 정몽규 회장이 사실상의 오너인, 회장인 이 기업이 연관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 혹시 질의를 보시거나 아니면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질의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아마 잊으셨을 겁니다, 보셨어도. 그때 지적했던 문제가 축구센터에 해외 건축사를 선정하는 문제 그리고 디자인을 개발하는 주체 그리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세부적인 그 단계, 단계의 모든 과정에서 정 회장이 최대주주인 현대산업개발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이게 축협이 주무가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의 인원이 모든, 기자재 설정 까지 다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렸고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2022년 당시 관리자문 용역계약서를 띄웠는데 잠시 보시면요,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현대산업개발 출신의 자문관이 설계 공정, 예산 관리, 설계 변경, 인허가, 기자재 사양 검토까지 사실상 축구센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권과 기밀까지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축구협회와 문체부가 사실은 다 관할해서 보안사항으로 진행되어야 할 내용들인데 이렇게 돼 왔거든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 내용을 보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배현진 위원 보시기에도 부적절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배현진 위원** 기업의 대표이사셨기 때문에 이런 일 있을 수가 없다고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 부분은 아마 수사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렇게 보고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배현진 위원** 이 유착관계를 철저히 파헤치라고 저희가 지난해 국회에서 지시를 했는데 문체부 감사실에서 자체 내부감사 결과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감사실이 축협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게 2024년 1월 1일인데 이 자문계약은 그 이전에 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볼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저는 물론 현대가라는 특정한 어떤 기업의 일원들과 정몽규 회장 등이 축구협회에 충분히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협회가 기업의 지원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해당 부분은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 받은 회신상으로도 명백한 이해충돌에 해당하거든요. 어느 법률가에게 물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작년에 문체부에 이 부분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문체부에서 ‘공식 검토 요청이 오지 않았다’라고 회신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물론 장관님 재임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바로잡아야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 천안……

○**배현진 위원** 아마 지금 고발조치됐다라는 것은 그 인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어요. 그중의 하나인 것 같고요. 이해충돌 방지는 또 국민권익위라는 기관 소관입니다. 문체부 혼자 판단할 게 아니고요.

지금도 문체부가 좀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아직도 이 자문계약이 현재 아이엔지(ing)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지적한 이 현대산업개발 출신의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기자재 검토까지 모든 내부 기밀을 주무르고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장관님, 이거 조치 빨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민 혈세까지 투입돼서 1500억 원짜리 사업 아니겠습니까? 특정 기업과 얹혀 있으면 대단히 국민들께서 이거 부적절하다 생각하시겠지요. 문체부의 철저한 조치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배현진 위원** 그리고 앞서 제가 짧게, 존경하는 임오경 간사님과 이기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문체부 내부 직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또 유산청 내부 직원들에 대한 직무정지는 아마 두 분 기관장과 함께 의견을 받으셔서 양당 간사님,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해까지 문재인 정부의 영부인이셨던 김정숙 여사가 부적절하게 문체부를 활용해서 기재부의 예비비를 통해서 인도 타지마할에 갔다 왔던 사건을 굉장히 심도 있게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를 비롯한 모 서울시 의원께서 의무에 없는 일을 공무원들에게 시킨 당사자를……

1분만 부탁드립니다.

당사자가 아닌, 그러니까 저희 김건희 여사 표현대로면 아무것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영부인을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한 덕에 김정숙 여사가 운 좋게 법적 조치를 피해 갔습니다. 사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의 죄를 물었으면 같이 김정숙 여사가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일로 문체부 비롯한 외교부의 많은 공무원들이 검찰에 끌려가서 굉장히 고충을 당했습니다. 저는 사실 부처의 직원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피해자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저희 문체부가 영부인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나가자고, 나들이 가자고 동원되는 그런 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대통령실에서 진짜 공적 업무가 아닌 우리 공직자들의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할 때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을 부처 자체에서 고민하셔서 저희 국회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국회와 함께 다시는 이곳이—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영부인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그 방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전 정부의 여사님과 관련된 일 때문에 저희 문체부는 조직적으로 지금 너무 큰 부담과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현진 위원 이전 정부도 그랬고 그 이전 정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현진 위원 영부인들께서 뭐만 하면 보기 좋은 문체부부터 찾지요. 직원들 보호하시려면 방책 마련해야겠지요. 그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부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막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거 치밀하게 보완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초 더 드려서 4분입니다.

○조은희 위원 존경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드리기 전에요 유승민 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장관님, 질의 잘 들으시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십시오.

회장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보도 보니까 회장님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입니다. 경찰이 회장님 금융 기록 조회를 한 결과 후원금 리베이트 2억을 차명으로 수령한 정황이 있어서 곧

소환조사를 할 계획이다 하네요. 기사 보셨지요?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 **조은희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국감에서 몇 차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전 소속사, 회장님 전 소속사 대표의 동생 김 모 씨에게 불법 지급된 후원금 리베이트 2억 원을 왜 돌려놓지 않느냐, 왜 윤리센터의 권고를 듣지 않느냐 이렇게 수차례 하니까 회장님 답변이 황당했어요. ‘돌려줄 게 아니고 사실은 지인 찬스로 후원받은 거라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다’ 그래서 오죽하시면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께서 나서셔서 그거 돌려주라 이렇게 몇 차례 하니까 마지못해 돌려주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불법 리베이트 횡령 혐의로 기소되면 대한체육회 회장직 그만두실 겁니까?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은희 위원** 그만두셔야 됩니다.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런데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는……

○ **조은희 위원** 제가 다시 하니까 마지막에 하시지요.

지난 국감에서 위증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탁구협회에 본인 법인카드 없다고 하셨는데 있지요?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거 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지금 답변드려도……

○ **조은희 위원** 아니, 있지요?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어제 확인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 **조은희 위원** 하나카드 1000만 원짜리 있잖아요.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만들어진 게 있는데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 **조은희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본인은 항공권 다른 데서 지원받아서 충분히 가니까 항공권을 탁구협회 돈으로 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대부분의 항공권을 제가 제 개인 후원이나 국제연맹에서 지원 받아서 갔습니다.

○ **조은희 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하여튼 그러셨잖아요. 속기록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아침 탁구협회에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스스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회장님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못하시는지,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항공권 비즈니스석으로 1000만 원을 협회 돈 쓰셨어요. 협회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22년 3건, 23년 6건, 24년 2건 총 열한 번이나 협회 돈을 썼어요. 그거 여태까지 위증하신 거지요?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아마 국제연맹에서 리임버스(reimburse)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 **조은희 위원** 안 받았습니다. 국제연맹에서……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이거 확인해 보면 아마 통장 기록에 있을 겁니다.

○ **조은희 위원** 확인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탁구협회에서 자료를 가져왔다니까요. 왜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직원들이 썼을 수 있다고 답변하는

거는 직원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뒤집어씌우는 겁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체육계 수장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참 걱정이 되고요.

국가대표 내 마음대로 교체에 대해서도 참 해명을 엉뚱하게 하시던데 서면의결도, 대면회의 기록도 규정 절차 다 무시하고 선수를 회장님 마음대로 바꾸니까 윤리센터가 기관경고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윤리센터 기관 결정문을 보면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3명 모두 선수 교체할 때 전화를 받았는지 기억도 못 하고요. 애초에 처음 선수 공고할 때 협회는 경기력향상위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공고했다가 나중에 윤리센터 기관경고를 받을 참이 되니까 규정을 잘못했다고 윤리센터 탓을 했어요. 개정된 규정은 전과 같이 절차 명확히 한다고 다듬은 거지 이게 뜻이나 절차가 바뀐 게 아닌데 왜 센터 탓을 합니까?

기관경고도 못 받는다고 현직 회장이 재심 청구하고 전직 회장인 지금 대한체육회장이 토스받아서 셀프 면죄부 준 거예요. 이게 9월에 셀프 면죄부 줬는데 왜 아직 안 넘깁니까, 문체부에?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문체부에 넘겼습니다.

○**조은희 위원** 언제 넘기셨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윤리센터 이사장은 넘어오면 재심의 조치하겠다고 했거든요.

장관님, 탄구협회가 체육회에 기관경고 불복하고 재심 올린 검토문서,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는 제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육회 법무실까지 동원해서 셀프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니, 제보가 들어오니까요 그 과정을 직접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체육회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체육회장의 이런 위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유승민 회장님 하실 얘기……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제 신상에 관한 발언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예.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첫 번째, 오늘 아침…… 어제저녁부터 나온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아직 금융 기록이라든지 관련돼서 연락을 받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금융 기록을 제가 제공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데 국가대표 선발 바꿔치기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징계를 회부해서 다시 대한체육회로 왔는데, 저희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아시겠지만 제가 꾸린 게 아닙니다. 특별위원회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거기 위원장님이 헌법재판관 출신이신데요. 헌법재판관 출신께서 이 규정을 정확히 해석을 하시고 그렇게 결정을 내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대로 있었고요. 특히 출전이 불발될 뻔한 선수가 만약에 민원을 제기했다면 그때 제가 보기에는 대한탁구협회가 더 큰 화를 맞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 관련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님.

○**조은희 위원** 제가 발언을요 다음 추가발언을 당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3분 당긴다고요?

○**조은희 위원** 예. 해명이 지금 너무……

○**위원장 김교홍** 그러세요.

○**조은희 위원** 유승민 회장님은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일반 상식하고 조금 어긋나는 점이 있으세요. 지금 본인 법인카드 문제는 썩 다 묻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법 리베이트 2억, 이게 어제 위원장님께서 끝까지 다그치니까 겨우 돌려놓겠다고, 그전에는 오히려 맹규인데 왜 리베이트 그걸 다시 돌려 놔야 되느냐, 윤리센터가 기관경고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게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 교체 건도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렇게 했으면 공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선발 자체가 무효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때 탈락한 선수가 이의제기를 안 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의제기를 합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아닙니다. 만약에 경향위에서 추천 선수가 나갔다면……

○**조은희 위원** 하실 말씀 충분히 하셨으니까요.

리베이트 2억 그게 문제가 있고 그런 게 밝혀지면 사퇴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제가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성실히 받을 건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보에 관련해 가지고는……

○**조은희 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카드 사용……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카드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 카드 사용에 대해서도요 지금 탁구협회가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1000만 원 비즈니스석을 썼고요. 그다음에 11건, 그것도 회장님은 세계 탁구협회에서 공짜로 준 거라고 했는데 그거 못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 아니면 그것도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까 설명 다 하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아닙니다. 그것 법인카드랑 항공권 관련해 가지고는……

○조은희 위원 그게 이상해서 제가 지금 제 시간을 다 써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리고 이 의혹이 사실이면 책임지고 사퇴하시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불법 리베이트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만약에 혐의가 드러난다면 그 건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책임지고 사퇴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법인카드는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법인카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위증하셨잖아요. 법인카드 없다고 그랬잖아요. 있었잖아요, 1000만 원짜리 하나카드.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님께서 처음에 저에게 6000만 원을 법인카드로 썼다고 하셨는데요.

○조은희 위원 6500이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게 탁구협회 경영공시 과정에서 직원 전체가 통으로 쓴 게 제 이름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확인을 했는데……

○조은희 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다 쳐요. 항공권, 본인 탁구협회 거 하나도 안 썼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밝혀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제가 분명하게 오후에 오후 질의 끝나고 그 환급받은 내역에 대해서 찾아 가지고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밝혀지면 어떡할래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밝혀지면 제가 그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사과로는 안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자로 사과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님, 제가 업무상에 만약에 그런 경비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협회에서 제공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몰랐고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발급된 게 있었다, 그런데 그게 총액을 쓴 게 45만 원이라고 합니다, 법인카드를 업무추진비로 쓴 게요.

그리고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출장 여비를 받은 게 아니고요 갈 때 필요한 비행기 관련해 가지고 협회에서 지원을 한 건데 그 비행기도 대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쓰거나 아니면 했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 회장님은요 공적 개념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대한체육회의 회장으로 있으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너무 해명이 황당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의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본질의에 앞서 1분 20초 정도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예?

○**조계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1분 20초 정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1분 20초요?

○**조계원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교홍** 의사진행발언 1분 20초 하신다고요?

○**조계원 위원** 예, 짧게 하고.

○**위원장 김교홍** 그냥 일반적으로 질문하실 것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계원 위원** 질문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교홍** 하세요.

○**조계원 위원**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 오늘 불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9월 13일 순천 세광교회 발언 당시 김건희를 꼬셔서 2000억 예산 확보를 자랑하면서 순천만 정원과 애니메이션하고 도저히 연결이 안 돼 거짓말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뒤에 노관규 본인조차 거짓말이라 했던 원도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이 순천만정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순천시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 및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문체부는 내년 3월까지는 철저하게 정산 심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업비 환수를 포함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동안에 문체부가 보여 준 예산 증액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변경 승인 과정의 불투명성과 난맥상을 볼 때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문체부가 자체 감사를 실시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관련 예산 증액 과정과 문체부 직원들의 관리 감독 문제, 김건희 국정 개입 의혹과 사업 특혜 거래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양당 간사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와 협의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조계원 위원**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노관규 시장이 신대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난 질의에서 환수 관련,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예고 사실을 모른다고 잡아뗐고 사업승인권자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관규 시장과 순천시가 신대지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했고 노 시장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지요.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타임 라인까지는.

신대지구, 5600억 원이 투자되고 1만 100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배후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노관규 시장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본인의 입으로 직접 한 말입니다. 신대지구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가장 효율적인 개발 방안을 설정 추진해 나가겠다, 이게 2006년 11월 28일 발언입니다.

12월 15일까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개발이익 환수 시행령이 15일만 지나면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 변경을 했으면 개발이익을 온전히 환수하고 순천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의회에서 경제통상과장 김장곤의 보고 발언입니다. 실무적인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지금까지 주관적으로 해 왔고 또 보완적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와 같이 업무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가 당시 재경부에 사업 시행을 요구했었습니다.

다음이요.

전체 일정을 보면 4월 19일 날 순천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재경부로 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그리고 6월 21일에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 뒤에 7월 1일 노관규 시장이 취임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고 결국 11월 3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2월 15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즉 개발이익 환수를 놓쳤고요.

노관규 시장의 순천시청은 2007년 7월 12일에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순천시 지분 1%고 최종적으로 중흥건설의 지분이 99%인 회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을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로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착공되었고 광양만 자유경제청으로 실시계획 승인권한이 위임된 것은 2008년의 일입니다. 명백한 위증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 사실을 드러내 주는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가 재경부로 2006년 4월 19일 날 사업 신청을 요청했고 그 뒤 재경부가 승인한 과정이 있고, 최종적으로 맨 아래 보면 실시계획 승인권한이 재경부에서 광양청으로 위임된 게 2008년 6월 3일이라는 게 확인됩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시지요.

지난 질의에서도 얘기했는데 황지해 작가의 ‘갯지렁이 다니는 길’입니다. 이 길이, 지금도 이 작품이 유지가 돼 있었다면 시간의 미학으로 훨씬 더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명 얘기궁뎅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질의에서 지금까지 2000만 명 가까이 국가정원에 왔는데 뜯금 없고 보기 흉하고 외설적이라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명백한 위증입니다. 유튜브로 ‘순천만정원 외설’로만 검색해도 조회되는 수십만 건의 사진들, 영상들이 나옵니다.

본 위원은 노관규 시장이 최소한의 양식 있는 사람이기를 기대하며 앞의 순화된 사진, 저것도 순화된 사진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성의 신체로 보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황지해 작가의 ‘갯지렁이 다니는 길’을 없애고 설치할 만큼 가치 있는 작품이다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 보시지요.

또 다른 조형물입니다. 이건 여성의 신체와 남성의 정자로 보이는 조형물입니다. 항공 사진으로 본 거고요. 이 조형물을 노관규 순천시장은 2023년 추석 인사에서 자기가 인사하면서도 이 영상을 보여 주며 이걸 자랑스럽게 내세웁니다.

이렇게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제멋대로 주술적 조형물을 설치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나서도 오히려 잘못이 없다, 떳떳하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게 예술로 보이십니까? 주술과 무속의 색채가 넘쳐나는 역대급 외설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약간 당황스럽게 느껴집니다.

○조계원 위원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지원을 위해서 국가는 매년 4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이요.

순천시민의 평화와 희망을 담았던 도보다리입니다. 노관규 시장은 지난 질의에서 이념이 개입돼서 철거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오히려 이념적 편향은 노관규 시장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좋아할 만한 일을 하느라 국비와 지방비 총 16억 원을 날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음 화면입니다.

대홍수 예방을 위해서 국가와 순천시 등이 546억 원의 혈세를 들여서 만든 저류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0억 원을 덧대서 높이를 75cm 이상 토설해 가지고 잔디밭으로 바꿨습니다. 그런아일랜드로 만들었는데 전라남도는 감사를 통해 홍수 조절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 회복조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그리고 노관규 시장은 안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하였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상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다 하셨습니까?

○조계원 위원 아까 1분 더……

○위원장 김교홍 다 쓰셨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추가질의하시지요.

○조계원 위원 예.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갑의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언론재단에 질문하겠습니다.

공익광고는 어떤 자격을 갖춘 언론사에 공익광고를 주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희들이 전체 언론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언론사 가운데 심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9조에 관련돼서 언론재단은 의원실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공익 광고사업은 정부광고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를 활용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언론사를 대상으로’, 그렇지요? 이렇게 주는 거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언론사를 대상으로, 그 대상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익광고 사업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많지 않습니다.

○**양문석 위원** 전체 정부광고 1조 3000억 중에 1%에 해당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수수료의 일부입니다.

○**양문석 위원** 1%에 해당하는 한 130억 정도가 되는데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지역 중소 언론사입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렇지 않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양문석 위원** 그러면 조선일보에 공익광고를 주면 안 되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원래 공익광고는……

○**양문석 위원** 아니요, 지금 정확하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러니까 공익광고의……

○**양문석 위원** 언론재단의 기준을 제가 읽어 드렸고 그리고 언론재단이 우리 방에 보낸 내용을 지금 읽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사장도 동의하신 거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그렇지만……

○**양문석 위원** 그런데 어디 조선일보 그룹이, 조선비즈 TV조선 월간조선 디지털조선 IT조선 여성조선 헬스조선 조선닷컴 등이 공익광고를 신청하고 그리고 언론재단은 이들에게 주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양문석 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공익광고는 원래……

○**양문석 위원** 잠깐만요, 앞서 이사장도 동의하셨잖아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언론사의 중소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건 하나의 고려 요소이고요.

○**양문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하면 안 되잖아요. 조선일보는 자격도 없고 기준에도 안 맞는데 언론재단에 신청해서 돈을 타 먹은 거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그렇게……

○**양문석 위원** 어허, 정말! 제가 지금 딴 이야기를 하나요?

언론재단이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를 해석한 내용을 다시 읽어 드릴게요.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익광고 사업은 정부광고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를 활용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언론사를 대상으로 공익적 목적의 광고를 집행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아니, 그게 공익광고 집행의 하나의 원칙이고요, 원래의 원칙은.....

○**양문석 위원** 원래의 원칙이 아니에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공익광고는 매출액의 일부를.....

○**양문석 위원** 아니, 그것은요 제9조에 따른 언론재단이 우리 방에 보낸 공익광고 사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지어낸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이사장도 동의하셨잖아요.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기준이 번연히 있잖아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언론사를 대상으로. 그런데 여기에 어디 조선일보, 이 상습적 범죄집단 조선일보가 또 이걸 신청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돈을 타 먹어요, 수천만 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것은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양문석 위원** 조선일보 출신! 이사장이 조선일보 출신이니까 지금 조선일보 두둔하는 거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문석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어낸 내용 아니에요.

언론재단이 답변했던 대로 그 원칙과 기준에 맞느냐, 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공익광고 집행은 원칙과.....

○**양문석 위원** 그러면 언론재단이..... 잠깐!

그러면 언론재단 이 답변을 한 사람 누구예요, 언론재단? 언론재단 이 답변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 양문석 의원실에 이 답변 보낸 사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건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모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검토해서.....

○**양문석 위원** 아니, 누가 보냈냐고. 제가 지금 지어낸 내용이 아니고 언론재단에서 받았던 내용이잖아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그게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양문석 위원** 아 참나, 왜 자꾸..... 처음에는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왜 조선일보가 나오니까 또 화들짝 다른 기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양문석 위원** 나는, 제가요 진짜 격조 있게 하고 싶다고요, 저도. 그런데 왜 자꾸 거짓 말을 해요? 앞에 동의해 놓고 그리고 뒤에서 말 바꾸고. 그러니까 상습적 범죄집단 조선일보의 충신이라고 제가 지금 언론재단 이사장을 비판하는 것 아니에요. 조선일보만 걸리면 왜 그렇게 화들짝 놀라고 조선일보의 범죄행위를 갖다 옹호하고 두둔하려고 그래요.

자격이 없는데 공익광고를 갖다가 따고 수천만 원을 갖다가 국가예산 받아가고! 정말 더 격한 표현 안 나오게 하세요. 다음 질문도 있었는데 지금 이사장 때문에 다음 질문 못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할게요, 제가 오늘 질문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유병채 국민소통실장 나와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위원장 김교홍 앞으로 좀 오실까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청와대 개방을 위해서 청와대재단을 설립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때 실장께서 활용추진단장을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문화예술정책실장과 활용단장을 겸임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장,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내가 이상한 게 재단 설립할 때 출연금을 말이에요 문체부, 그때는 청와대에 있었지만 문체부의 국장·실장이 50만 원 내고 또 추진단 과장 최영진 과장은 30만 원 내고 박진석 서기관은 20만 원을 냈어요. 재단 설립 출연금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거기 돈을 왜 내요? 왜 그렇습니까? 맞지요, 제 얘기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사실은 제가 70만 원을 내고……

○위원장 김교홍 본인이 50만 원, 제가 알기로.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제가 70만 원 내고……

○위원장 김교홍 본인 더 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과장·서기관이 30만 원을 분담해서 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둘이 합쳐서 3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위원장 김교홍 그것 왜 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당시 제가 문화예술정책실장으로 발기인, 청와대재단 설립 발기인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단 설립에 기본재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정부 예산으로 출연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내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전례나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를 대표해서, 이 부분이 특수 목적의 재단법인 성격이기 때문에 정부를 대표해서 제가 발기인으로 들어가 있는 정부 측에서 내는 것이 차선책으로 안전하겠다는 실무진과……

○위원장 김교홍 재단법인은 원래 5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그렇지는 않고,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교홍 법인인데 100만 원 갖고 돼요, 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최소 어쨌든 기본재산을……

○위원장 김교홍 100만 원 갖고 턱도 없어요. 사단법인도 5000만 원인데.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이것은 정부 중심의 어떤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장 김교홍 이것 재단법인 만드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재단법인이 100만 원 갖고 턱도 없는데?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그것은 정부 역할을 대신하는 재단법인의 특수한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교홍 법인은 다 특수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이 부분은 청와대 운영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 특정한 목적으로 정부가……

○위원장 김교홍 이것 누가 지시했지요, 재단 설립하는 것?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제가 6월 말부터 문예실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미 대통령이……

○위원장 김교홍 하던 것을 물려받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제가 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재단 설립하는데 현직 공무원들이 돈을 출연해서 설립비를 충당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그것이 흔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애국충정이 깊어요, 실장님? 애국충정이? 자기 사비까지 들여서?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그 부분은 저희도 내부……

○위원장 김교홍 7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70만 원이면 본인 봉급의 10% 가까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거의?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저희도 뭐 그때 당시에 고민 고민하면서 가능한, 이것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내부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위원장 김교홍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을 했다며? 그런데 왜……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그런 부분이 좀 정확한 전례나 이런 부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이게 비용이요 사단법인 5000만 원, 재단법인은 5억, 공익적 목적으로 하더라도 3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은 정부의 어떤 허가를……

○위원장 김교홍 뭔가 지금 실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석연치 않아서.

그리고 재단 직원을 채용하는데 왜 문체부가 했지요? 왜 재단 직원을 채용하는 걸 문체부가 진행했어요? 이게 재단이 설립되면 거기 대표를 뽑아 놓고 그 대표가 직원을 채용해야지 왜 문체부가 그걸 채용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재단이 설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교홍 재단 설립되기 전에는 주요 간부만 채용하면 됐지 나머지 직원들까지

왜 문체부가 대행을 했냐고.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다른 국립문학관 재단 설립 과정을 참고해 가지고 그때 사례를 준용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몇 명 채용했었는데요,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그때 40여 명 채용……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주요 인사만 채용하면 나머지는 재단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채용하는 게 맞지, 재단인데. 그 40명가량을 문체부에서 채용한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때 채용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제가 1월 달 중반에 바로 또 보직 이동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 마무리하지는 못했고요, 사정이 있어서.

○위원장 김교홍 석연치가 않습니다.

들어가세요.

장관님, 제가 다른 걸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죽 하면서 느낀 거예요. 문화예술인들이 힘들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위원장 김교홍 맞지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예술창작 지원이나 생활 안정자금을 용자해 주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활동준비금 등 해서 몇백만 원씩 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이 다 시혜성으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시혜성.

그런데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이 진짜 효과를 거두려면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키우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글로벌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문화예술로 돈벌이를 하려면 대중과 또 연결돼야 되고 또 아티스트와 공연장이 연결되고 공연장과 대중이 연결되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을 산업적인 가치로 봐 줘야 된다, 이제는 산업적 가치로. 물론 순수예술도 있지만, 순수예술이 중요하지요. 순수예술은 순수예술대로 지원을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예술은 산업적 가치로 해야 역량을 발굴하고 키워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을 제가 만나 보면 가장 큰 고민이 공연 유통이에요, 공연 유통. 그러니까 가수가 올라갈 무대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관님이 아마 그것은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신데 문화 유통 플랫폼 이것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문체부에서. 그래서 문화예술인·공연장·관객을 잇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문화예술인이 전국 공연장을 쉽게 검색하고 쉽게 대관하고 또 대관료가 얼마인지 또 거기에는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공연의 스펙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시군구 단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내가 이런 공연을 띄우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몇백 석 규모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게 딱 나오잖아요. 음향은 그러면 거

기에는 뭐가 있냐, 스펙이, 이런 것을.

그리고 소비자인 관객들은 본인이 원하는 공연을 검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가수가 좋아 그러면 그 가수를 치면 어느 공연장에서 이렇게 공연한다가 나오고 또 미취학아동이 볼 수 있는 뮤지컬이 뭐가 없냐 이렇게 딱 치면 어디어디에 있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나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집약시키는 거지요. 자꾸만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개 뿐뿐이 흩어져 있고 막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해서 집약시키면 장관님께서 인터파크 같은 그런 것을 키워서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문화예술유통진흥공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서 단순히 그런 시스템만 하는 게 아니라 펀드를 조성해서 공연이나 이런 쪽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부족하면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익배당을 받게끔 하고 나중에 돌려받고 또 지원하고 이렇게 해 준다면 예술인들이 공연하는 데 부담이 좀 적어질 뿐만 아니라 좀 더 산업적 가치로 가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장관님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관님은 이것을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한번 일종의 유통진흥공사 같은 것을, 그러니까 이게 산업부로 얘기하면 코트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지, 코트라. 그걸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5만 석 대형 아레나 또 일이만 석 중대형 아레나 몇천 석 또 몇백 석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장관 부임해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지원이 다 제각각이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그래서 다 하나하나 목표한 바들은 있지만 제대로 이 부분들이 효능감 있게 집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예술인들, 문화인들은 설 수 있는 무대가 없는데 많은 부분들의 관객들은 또 볼 수 있는 공연들이 없습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원활하게 생태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문화가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가 저한테 주어진 큰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이것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깊게 고민을 해서……

○위원장 김교홍 깊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다른 데 뿐뿐이 흩어진 것들을 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통 플랫폼을 만드는 게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만 석 이상의 케이팝 아레나를, 지금 문체부에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2030년도 완공이 아니고 좀 서둘러서, 이게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외국의 관광객들이 와서 하이브를 간대요, 하이브 회사. 가면 그 간판에서만 사진 막 찍는대. 꽤 온대요, 하이브에.

그래서 저는 이 케이팝 아레나 공연장을 5만 석 이상 만들고 거기에 BTS가 공연하는

것을 유리문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또 옆에는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옆에는 굿즈를 팔고 이것을 뭔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인바운드 외국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국내 관광객들도 오게 하고 이러면서…… 외국, 일본에는 네다섯 개 대공연장이 있고 미국은 한 20여 개 있는데 우리는 계속 나가잖아요, 정작 우리 분들이 공연하는데. 국내는 그걸 못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말씀처럼 급하게는 일단 지금 기존의 체육시설들을 빨리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중기적으로는 서울 아레나, 청라 또 고양 아레나 이런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다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만 석이 안 됩니다. 다 이삼만 석인 데요.

○위원장 김교홍 2만 석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5만 석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게 케이팝의 성지인 우리 한국에서 하나 가져야 되는, 무조건 가져야 되는 하나의, 가장 좋은 콘서트장은 저희의 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처럼 시간 끌지 않고 빨리 진도가 나가서 언제쯤에는 무엇이 완성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게 꼭 정부 예산을 안 갖고도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민간 사업자도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예. 그걸 또 만나셔서 한번 협의도 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저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너무 마냥 늦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걸 한번 장관께서 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일러서 조금 하시다가 저녁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장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오늘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박진영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불출석하셨기 때문에 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갖는 위상에, 어차피 지금 장관님이 공동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정연욱 위원 거창한 얘기는 지금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서 박진영 위원장이 하고 있는 위상 자체가 케이팝이라는 상징적인 자산을 가지고 어차피 진행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케이팝이 안고 있는 궁정적

인 측면은 굳이 언급 안 해도 지금 상당한 부분에서 부정적인 지적도 적잖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과연 문체부장관이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소속사와의 갈등, 구체적인 아이돌들이 갖는 소속사와의 갈등이라는 문제 이게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체, 우리가 얘기하는 케이팝 자체가 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라도…… 갖은 여러 갈등 요인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케이팝 자체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해 미치는 파장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박진영 위원장이 이끄는 JYP 엔터사의 팬미팅에서 발생한 과도한 본인 확인, 주민증을 제시하라고 그랬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 정연욱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를 넘기라고 직접적으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언론 보도에서 상당히 이슈화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7월 달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빙수 데이식스 팬미팅 현장에서는 팬이 직접 예매한 티켓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증이나 여권이 아닌 학생증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입장이 거부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당 부분, 케이팝의 화려한 측면이나 모든 부분의 이면에는 이렇게 어두운 측면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경찰이 출동해서 신원을 확인해 주었지만 공연 관계자는 여전히 본인 확인이 불가하다며 학생 생활기록부, 금융인증서 제출까지 요구했습니다. 과연……

그동안 이게 저희도 국감 현장에서 여러 번 제기했던 거지만 우선 팬미팅, 팬밋도 여러 등급이 있잖아요. 단순히 가는 것 그다음에 손 마주치는 것, 어디까지 하는 데 가격 등급이 다르고 또 얼마의 CD를 구입하라고 그러고 또 그것이 전부 다 실제 사용이 안되니까 전부 대량으로 중고시장에 되팔고, 이런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가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예요.

1분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온전히 되고 살아 있으면 과연…… 우리가 케이팝이라는 그 화려한 불꽃 속에서, 조명 속에서만 볼 게 아니라, 이 현상 자체가 하루이틀 제기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당장 박진영 위원장이 소속된 기획사가 또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을 다 덮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장관 입장에서 이런 케이팝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례들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도 꽤 많은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케이팝이 산업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양지도 있는 반면에 드리워진 그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드리워진 그늘들을 빨리 제거하고 신뢰와 지지를 받지 않으면 케이팝은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케이팝의 기획사들도 충분히 지금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그늘을 어떻게 빨리 제거하고 팬들과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큰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데이식스 말씀도 하셨지만 과도한 신분 확인이 비롯되어지는 것은 기

획사도 원치 않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사가 밴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암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건데 오히려 이게 거꾸로 돼서 그게 팬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팬들의 인권과 팬들의 불편함을 크게 가중시키는, 오히려 전후가 거꾸로 돼 버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번 회기에는 꼭 법이 통과가 돼서 실효적인 암표 단속과 이런 피해가 없도록 꼭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예, 철저하게 관련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병의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대전에 있는 스튜디오 큐브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이기현 위원 가동률이 최근 2년 사이에 급락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이기현 위원 22년 개장했을 때 90%를 유지했던 가동률이 23년 전반기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재작년, 24년에는 40%에 머물렀습니다.

가동 저하의 이유를 보면 물론 영화 제작 편수가 감소된 측면도 있고요. 또 대전이다 보니까 운송비·체류비 부담으로 인해서 촬영 기피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또 수도권에 대형 민간 스튜디오가 신축되면서 경쟁이 좀 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이기현 위원 핵심은 비용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간 스튜디오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스튜디오들보다 작게는 10.8%, 많게는 42.8% 비쌉니다. 제작사들이 운송비·체류비 추가 부담하면서까지 대전까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제작사들의 많은 요청은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스튜디오 큐브 놀려서는 안 된다, 대관료를 좀 낮춰야 한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공공 인프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이 투자된 기관들이 수지차 운영 논리 때문에 국가적 전략자산이 계속 높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 민간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평당 사용료가 2545원인데 이걸 어느 정도 이 수준에 맞게만 할인해 주셔도 시설료를 올려서 50%만 가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운영상 이득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특히 운영 예산도 문제인데 24년에는 24억 원이었던 예산이 25년에는 17억 5000만 원으로 30%가량 줄었습니다. 공공요금, 전기·수도료만 해서 13억~15억이 나옵니다. 이 정도 운영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다음달에 국내 최대 규모의 베추얼 스튜디오 운영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이기현 위원 시범사업을 7~8월에 했는데 전기요금만 1억 3000만 원 나왔다고 합니다.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재정 및 운영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부산시 기장군에 부산기장촬영소가 완공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은 벼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까지 새로 지어집니다. 부울경에 거점 스튜디오가 완성되면 수도권의 민간 그리고 부산의 부산기장촬영소하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대전의 이 시설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튜디오 큐브만의 특화된 전략이 있지 않으면 이 시설, 천문학적인 예산이 결국은 유휴시설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적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말 거기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관료 현실화하고 중소 제작사 대상 파격적인 지원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쟁 심화에 대한 특화전략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하는 데 3분이 다 갔네요. 죄송합니다.

애니메이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은 TV 시리즈와 다르게 보통 시리즈의 경우에는 10분, 26화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3년에서 5년 소요됩니다. 최소 2년 걸립니다. 그런데 극장용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가지요. ‘킹 오브 킹스’ 유명한 작품이지요. 제작 기획에서 완성까지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사업이 단년도 회계원칙에 따라서 사업 수행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요 기간을 빼면 7개월 남짓 다 집행해야 합니다. 이건 사실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됩니다. 짧은 협약 기간으로 인해서 작품 완성도를 보장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특성을 반영해서 다년도사업 계획으로 이 사업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년도 예산 배분과 함께 협약도 다년도로 협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애니메이션은 특성이 말씀처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장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기 지원으로는 의미가 없고요. 지원이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지원 형태로 바꿔야만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24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걸 더 확대해서 말씀처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기현 위원 그 앞에 드렸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또 하나는……

○이기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대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대전 스튜디오 큐브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AI로 인해서 더더욱 영화나 영상의 제작 방법론이나 시스템이 완전히 대전환되는 입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추얼 스튜디오라는 것은 앞으로 보편화될 수밖에 없는 제작 방법론이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전에도 가지고 있고 또 부산 기장에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인프라를 확보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비싸거나 위치가 어렵거나 이래서 잘 활용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기현 위원 가동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상·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그리고 값싸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서 다음에는 지금보다 훨씬 가동률이 높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최희영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얘기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최희영 장관님,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춘천시민축구단 현수막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이건 제가 못 봤습니다.

○진종오 위원 못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진종오 위원 보시면 ‘시장님! 춘천시민의 자존심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천 축구사랑에 진심인 시장님을 응원합니다’, ‘시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 특정 정치인 대놓고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게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홍보 효과가 워낙 좋으니까. 사전선거운동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 맥락을 잘 몰라서.....

○진종오 위원 아니, 맥락을 모르는 게 아니라 스포츠 경기 중에 이렇게 플래카드 걸었어요. 사전선거운동이에요,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지방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있다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종오 위원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정관 좀 보시고 얘기할게요.

대한축구협회 정관을 보면 ‘협회는 행정·사업 수행 시 정치적 중립 유지’, 그리고 K3대회 운영규칙에도 정치적 게시물은 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요. 불이행 시—위반한 거지요—클럽 자체 상설이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 FC 경기장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맹은 곧바로 제재금 2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보시면 재발 시 징계라는 면죄부 경고에 그쳤어요. 보면 축구협회의 규정의 잣대가 다른 거예요. 선택적으로 한 거지요.

왜 면죄부를 적용했을까요,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성향이 의심되지 않으십니까? 약간 이용해 먹기도 했고 유착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고 대한축구협회는 이것을 그냥 방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자체랑 스포츠단이 얹혀 있는 이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들께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혀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것은 재발방지를, 막겠다라고 장관님께서 책임 있는 그런 대안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정치적인 메시지들이 모호하게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동일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명확하지 않은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종오 위원 지금의 사안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딱 누가 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런 부분들은 스포츠에 대한 신뢰,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부분 철저히 챙겨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 혹은 신뢰가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위 사항 같은 경우는 장관님께서 조사하여 가지고 그 결과 저한테 꼭 본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의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장관님, 노관규의 거짓말로 시작된 순천만정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문제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부는 답변을 통해서 현장 실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사업 변경을 승인했다, 그리고 서류는 변경 승인 요청 20일 전에 출장신청서, 승인도 전에 이루어진 출장신청서를 제출해요, 근거 자료로.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노관규 본인이 순천만정원하고 애니메이션이 연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실토했고 있어요. 그런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확장 사업을, 순천만정원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문제부는 26개월 뒤인 2024년 3월 13일 날 요청받고 불과 일주일 만에, 일주일인 20일에 전광석화처럼 승인을 해 줘 버립니다, 물론 장관님이 승인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기업들의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판단하여 현장 실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사업 변경을 승인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사업 변경을 신청한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 캐나즈나 퍼니플럭스 이들 업체들은, 입주

예정 업체가 당시에는 순천만정원을 요구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로커스 하나 있었는데 이걸 기업들의 요청이라고 판단했고요.

다음 화면 봅시다.

콘텐츠 기업이 전문가 평가를 거쳤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지요.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홍보와 마케팅이 중요하고 국가정원이 최고의 장소다’ 이렇게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실제 내용은 무엇이냐? 다음 화면 보시지요. ‘순천시 안에서는 관광객이 제일 많은 순천만정원이 홍보를 하기 위해 제일 좋은 장소다’. 이걸 갖다가 순천만정원을 애니메이션 기업이 활동하기 제일 좋은 장소로 둔갑시켜 버려요. 이렇게 위증해도 되겠습니까?

또 다음 화면 보시지요.

사업 변경 승인 요청입니다. 국가정원에 3월 13일 날 사업 변경 승인을 요청했지요. 그리고 기존의 매입비를 리모델링비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원도심의 매입비를 활용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걸 리모델링비로 변경합니다. 그것도 무려 218억의 예산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출장신청서인데 이게 사업 승인 요청은 3월 13일 날 들어온 건데 날짜 보세요. 2월 22일 날 출장신청서를 내놓고 출장 갔다 왔다,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따가 다시 답변을 추가로 하시고요.

그리고 순천시는 여수MBC에게 값싼 임대료 등 온갖 특혜를 줘 가면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좀 전에 얘기했던 순천만정원의 남부센터로 입주시키겠다고 MOU까지, 투자협약 까지 맺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저런 혜택들이 있는데, 기회발전특구의 원래 취지는 수도권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지역 발전을 꾀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웃 도시에 있는 여수의 기업을 기회발전특구라면서 자랑스럽게 떠벌리면서 이거 데리고 왔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화면이요.

그리고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는 2개의 기업, 로커스하고 여수MBC가 입주 예정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앵커기업이기 때문에 입주한다, 그런데 여수MBC는 방송국이지 애니메이션 기업이 아니에요.

다음 화면.

순천, 여수MBC 간 투자협약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순천시는 여수문화방송 주식회사의 문화콘텐츠 기회발전특구 입주, 융합형 미디어 플랫폼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즉 순천시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여수MBC의 융복합 플랫폼으로의 전환 이것까지 지원해서 끌어들이겠다. 이게 앵커기업입니까? 여러 후

발 스타트기업들을 끌어당겨서 성장시키는 데 그 역할을 하는 기업이 앵커기업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여수MBC가 애니메이션산업과 무관하다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의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수MBC는 뭔가 나름 계획을 밝혔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기업이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이라는 사업 목적과 전혀 연관성이 없고 약속한 것들이 정말 의미 있게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시정명령 등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것 깊이 있게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도 감사조치를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감사 중지하기 전에……

○위원장 김교홍 의사진행발언?

○민형배 위원 예, 짧지만 진지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민형배 위원 조금 전 오후 질의 때 경북연구원의 유철균 원장께서, 유철균 원장을 대상으로 제가 중인 질의를 쭉 했는데요. 제가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유 원장은 어떤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국가유산청에서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시정 요구한 것마저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유 원장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증언도 있습니다. 국비 270억 원이 정치권력, 관료, 출연기관의 카르텔, 이 비리 카르텔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국가유산청이 이 사실을 지금 전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알고도 덮었다면 공범이고요.

그래서 국가유산청과 경북연구원 모두에 대해서 이 사업을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 부분도 여야 간사와 협의해서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9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19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를 존경하는 손술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장관님, 식사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손솔 위원 예술인 산재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산재가 무대 공연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고 리허설 이런 때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산재보험 의무화는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재해의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3년 반 동안에 공연장 사고가 1100건이 넘었어요. 그런데 재해대처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공연장이 180곳입니다. 현행 공연법에서 공연장 운영자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으로 그치거든요. 그래서 공연장 운영자가 안전관리 최고 책임자가 되게 하고, 이런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리허설을 포함해서 공연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 검토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인 질의에서 짚었듯이 지금 촬영 현장에 근로계약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문제, 이 문제가 지금 OTT라는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면서 공백이 생기는데 전혀 이게 조치가 되고 있지 않은 이 부분은 정말 정부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원래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게 다 무산이 되고 있는 중이라서 OTT 현장에 표준계약서 적용되게 하는 것, OTT뿐만 아니라 영화, 방송 모든 영역에서 표준계약서 의무화 문제랑 표준보수지침 마련 문제 이걸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권리가 보장이 돼야 문화강국이 될 수 있다 이런 당부를 꼭 드립니다.

혹시 말씀 주실 거 있으실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말씀하셨듯이 이미 근로계약으로 잘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이 지금 OTT로 넘어가면서 다시 용역계약으로 바뀌고 더 근로 조건들이 악화되는 상황도 아까 말씀을 들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좀, 아까 강조 드렸듯이 결국은 이분들이 우리 K-컬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근로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쟁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무대 안전사고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근원적으로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요. 상설 공연장도 있지만 간이 무대라든지 이런 데서 또 위험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도록……

○손솔 위원 장관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문체부 소속 공무직 관련해서 제가 국감 때 짚은 적이 있어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고 참고인이 나와서 말씀도 주셨거든요. 근속수당이 없는 문제, 이거는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연구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지만 정부 예산에 근속이 반영된 예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여기 또 의견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이번에 문체부에서는 공무직의 근속수당을 신설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 단계에서 안 된 면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차기 예산편성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쟁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내년 거에는 아직 안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좀 쟁여 주시면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님, 프로스포츠 경기에서 암표 거래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문체부는 프로스포츠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서 2020년부터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 온라인 암표신고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PPT 보시면, 암표신고센터 최근 5년간 신고·모니터링 건수가 48만 1227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체부, 협회가 제출한 자료 어디에서도 경찰이나 검찰 송치, 기소, 처벌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수사기관과의 협의 공문, 회의록 역시 전혀 존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행정 경고만 반복이 되고 있는 무력한 단속 구조가 수년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좌석번호 미확인, 개인정보 접근 불가, 수사기관 이첩 불가, 경고문 발송 수준에 그냥 겨우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 단속 체계가 아니라고 보시지요?

장관님, 다음 PPT 보시면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의 실제 절차를 볼 수 있는데 신고가 접수되면 협회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암표 의심 사례를 선별을 하고요. 티켓사나 구단에 정보를 전달해서 경고문을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단속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첫째로 좌석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구매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사기관 이첩도 제한돼서 대부분 좌석번호 불분명으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2024년 3월 매크로 예매 금지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어서 실제로 단속 수단이 없습니다.셋째, 협회와 주요 티켓사 간에 정식 협약도 없고 문체부는 협조 공문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티켓베이, 당근마켓 등 핵심 거래 플랫폼 역시 단속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고 실질적 근절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장관님, 신고만 쌓이고 수사가 전무한 이유는 협회 위탁 체계가 구조적으로 단속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암표신고센터는 협회 직원 1명, 용역 직원 2명 이렇게 운영되며 단속·수사 권한도 없습니다. 결국 수십만 건 신고가 단순 모니터링과 경고문 발송에 그치고 있는 것이지요.

2023년 문체부 점검에서도 사업계획, 예산집행 지표가 저조했고요. 모니터링 강화 필요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체부도 구조 개선 없이 형식적 점검만 반복하는 건 협회 감싸기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장관님, 문체부의 구조적…… 결국은 문체부의 무책임한 결과입니다. 프로스포츠협회는 구단들의 이해당사자로 객관적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스포츠 암표 단속 구조를 전면 재

검토해야 합니다. 문체부가 직접 특사경을 통해 실질 단속체계로 전환하는 겁니다. 대형 공연과 스포츠 이벤트를 사전에 인지하고 암표 판매를 목적으로 한 사재기 예찰 기능까지 구축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 특사경처럼 암표 단속 특사경 체계로 이관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말씀처럼 신고 건수는 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유효 처리율은 너무나 낮습니다. 신고 내용 자체가 부실하고 혹은 저희가 단속하기가 되게 어려운 까다로운 신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말씀처럼 대응하는 인력도 너무 적고요.

특사경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정말 웃돈 주고, 웃돈 받고 티켓 거래를 하는 자체를 할 수 없게끔 법 개정에 위원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을의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일본 도쿄에 올림픽 박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관님. 2019년 9월에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개관한 박물관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기정 선수를 비롯한 남승룡 선수 그리고 나머지 아홉 분의 조선인 선수까지 해서 총 11명의 우리 당시 조선인 선수가 일본 국적으로 뛰었다고 해서 일본 선수로 소개되고 이렇게 명판에 써 있습니다.

이 전시물이 2020년에 여러분 반크로 잘 아시는 서경덕 교수께서 지적을 해서 당시 큰 화제가 됐고 그 때문에 문체부가 그해 2월에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일본올림픽위원회지요, JOC에 한 차례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 측으로부터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고요. 해당 전시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질의 때 대리석 같은 얼굴로 굳어 있었다라고 소개해 드렸던 손기정 선수의 당시 시상식 사진인데요. 제가 몇 해 전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군함도, 사도광산 등재 당시에 조선인 강제노역을 갔던 노동자들의 역사를 도쿄 세계유산센터에 제대로 그 역사적 사실을 기입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유네스코에 약속을 일본이 해 놓고 계속 면피성으로 빨빨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노력해 달라고 저희가 창출한 정부 때도 말씀드렸고 그 이전 정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일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대답 없이 사도광산 등재에만 힘을 써서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국민들에게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일본 올림픽 박물관에도 우리 손기정 선수가 일본인 선수로 아직 등재되어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는, 새로 일본 총리가 지금 탄생하지 않았습니

까? 여성 총리가 이웃나라 한국과의 관계를 우의를 잘 다지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한일 문화 관련 교류 행사에서 제1차관님이랑 같이, 김영수 차관님이랑 같이 일본에 방문해서 당시 문부과학성—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장관님과 같은 역할이시지요—아베 토시코 장관과 함께 얘기도 잘 나눴는데 말씀을, 소통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장관들께서 이 지점들을 소통하셔서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IOC조차도 손기정 선수의 성함을 ‘손기태이(SON KITEI)’에서 ‘손기정(Sohn Kee-Chung)’으로 병기하고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제 강점기 시절에 조선인이 일본 국적으로 나갔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병기해 주고 있습니다.

JOC에서 만든 박물관이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 장관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잘못된, 그릇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IOC도 계속 들어 주지 않았지만 위원님을 비롯한 그동안의 노력으로 결국은 병기하는 데까지는 또 이렇게 한 걸음 나갔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요구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말씀하셨듯이 올해가 60주년이기도 하고 또 장관 간에 혹은 한일 간에 뭔가 교류가 조금 더 강하게, 뭔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강하게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병기라도 할 수 있도록이라도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현진 위원** 장관님, 얼마 전에 한일 문화교류 축제 때 일본 장관 오시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국내 행사에 일본 장관이 오신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일수교 60주년이기 때문에 양국이 이런 부분은 서로 소통해서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만 하신다면 세계유산센터의 그 흔적과 함께 우리 최희영 장관님의 역사적 치적으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갑의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김효재 언론재단 이사장님, 지난번에 광고본부장 나왔었을 때 제가 명단 불러 드린 것 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양문석 위원** 앉아서 하세요.

1000억의 정부광고 제작사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명단 죽 불러 드렸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양문석 위원** 충청 경향 국민 채널A 스포츠동아 연합뉴스 KBS 서울신문 한국일보 전주MBC YTN 연합뉴스 매일신문 서울신문 SBS 서울신문 국민일보 매일경제신문 중앙일보, 이분들 성함을 다 불러 드릴까 하다가 진짜 이분들은 억울하거든요. 자기들은 몰라요.

이게 23년 정부광고 제작사 선정 심사위원 풀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본부장이 자기 명단 처음 봤다고.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양문석 위원**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여러 팀장한테 물어봤는데 처음 보는 내용이라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양문석 위원** 그렇게 대답했지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작성된 명단이라고 하는데 그 명단에 있는 사람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저희 심사위원 풀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양문석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한테 질문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PPT 한번 띠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오른쪽이 23년 7월 21일 날 한 팀장이 다른 팀장에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GOAD 서비스팀입니다. 광고 분야 심사위원 풀 공유드립니다. 첨부파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며칠 뒤 7월 31일 날에 ‘기획국과 협의해서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00님과 의논 부탁합니다’라고 저 이메일이 왔다가요. 저 안에 있는 첨부 메일에 제가 방금 불러 드렸던 그 언론사 편집국장이나 부국장이나 기조실장을 명단이 죽 있습니다.

갑자기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며칠 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양문석 위원** 앉으세요, 앉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지금 안 보여서 서서 본 겁니다.

○**양문석 위원** 제가 이사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당혹스럽고 한데 광고본부장은 대놓고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그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문석 위원** 없어 보이게 위증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요. 위증 이런 이야기 안 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제가 돌아가서.....

○**양문석 위원** 이사장님 체제에, 정말 대놓고 거짓말하고 국회에 나와서 질의하는 위원이 데이터를 들고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질의해도 ‘나 본 적 없어. 팀장한테 들어 봤는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야’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사장님 나오실 때마다 아주 강하게 질타하는 이유가 언론재단이 이사장님 체제에서 아주 상습적으로 안 좋은 문화에 감염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일단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날 양 위원님께서 거명하신 그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거든요. 제가 돌아가서 한 번 더 철저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양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뭘 모든 자료를요. 제가 명단 불러 드릴까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지난번에 말씀하신 국회 속기록에……

○**양문석 위원** 아니, 누구랑 누구랑 왔다 갔다 한 메일인지. 일부러 저희들이 이 이름을 지웠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왜 그러셨는지를 제가 압니다.

○**양문석 위원** 이 정도 배려를 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겠다 하고.

2003년 명단, 2004년 명단, 2005년 명단조차도 아직까지 정돈이 안 됐고 거기에 세무사가 있고 왜 세무사 넣었냐 하니까, 자격 없는 사람 넣었냐 하니까 의원실에 우리도 모른다고 답변하고 거짓말하고 없다고 하고 자기들이 안 만들었다 하고, 변연히 언론재단에서 받은 자료 가지고 질문을 해도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대상자가 중소기업이라고 공익광고 사업 부분을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해 놓고 금새 또 다른 트랙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사장이나 광고본부장이나 뭐가 달라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위원님,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가서 조금 더……

○**양문석 위원** 제가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또 한 번 질문할게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 지난 8월 우리나라에서 2025년 국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 열렸습니다. 전 세계 10개국, 700명의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문화예술 행사였습니다. 또한 대회 명예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행사가 발달장애 예술인의 전문성과 성장 가능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문화예술 정병국 위원장님, 이사장님, 이 환영 인사를 들었을 때 어떤 문화예술단체의 행사인지 아시겠습니까? 명예회장의 환영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문화예술단체 행

사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잘 모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앉으셔도 좋습니다.

김영수 1차관님,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잘 모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 행사는 문화예술단체가 아닌 문체부2차관 소관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해마다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발달장애인들 중심으로 처음 재단법인 승인을 받을 때 차관님, 장관님, 체육단체로 받았나요, 아니면 문화예술단체로 받았나요?

김대현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체육단체입니다.

○**임오경 위원** 공공 유관기관도 아닌데 별도의 독립된 운영비 및 행정비를 받아 왔습니다. 최근 공직유관기관으로 지정받아서 문체부 감사 대상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김대현 차관님, SOK의 세부사업들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K 스페셜 뮤직 대회 이것 스포츠 행사입니까, 음악 행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임오경 위원** 음악 행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임오경 위원** 문화예술 행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임오경 위원** 대한민국 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체부에서 나가는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잘 모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14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안에 사업명을 보게 되면 문화예술 축제, 스페셜K 경연대회, 문학상 미술대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로 가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임오경 위원** 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로 가야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임오경 위원** 그런데 체육단체 국감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인 농아인·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에 비해 편중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예산 문제를 지적하고 조직체계 개선을 제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SOK 사업 예산을 살펴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최성희 체육협력관 나와 있지요?

SOK가 체육단체임에도 음악경연대회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행사 자체가 평창 스페셜올림픽 레거시 사업으로서 예술 행사와 체육 행사를 지금 같이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예술행사 부분이.....

○**임오경 위원** 봐요, 봐요, 봐요.

이것 환영사에서 스포츠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 기사 확인해 보세요.

통합스포츠 활성화에 3억 6000, 시·도지부 및 종목 육성 지원에 2억 4000……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1분.

○임오경 위원 중증 발달장애인 운동 프로그램 사업에 3500만 원보다도 예산을 많이 써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지금 보니까 예전에, 지금 현 의원이지요. 나경원 의원 딸이 전 SOK 이사로 있어 가지고 이것 문제가 좀 됐었지요? 그런데 이 딸이 계속해서 이 사업에 관여했더라고요.

이 사업은 원래 3억 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었는데 2023년 4월경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이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을 만나서 한도 외 증액사업으로 1억 원을 추가해 달라는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제가 관련된 이메일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체부의 한도 증액이 어렵게 되자 통합스포츠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들을 조금씩 감액해서 결국 스페셜 뮤직대회에 1억을 증액해 준 거예요.

장관님, 이것 상당한 큰 문제입니다. 이것 내부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예산의 불투명성, 사유화 문제들 때문에 저는 SOK 예산 편중, 형평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이것 NOC,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받는 것처럼 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도 반드시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게 해 주세요.

처음부터 이게 체육단체로 법인을 설립했다라면 장애인체육회에서 받아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중복 사업을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장애인문화체육예술단체 총연합회 여기에 14억 5000밖에 안 나가고 중복되는 사업이 정확하게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 스페셜올림픽을 설립했을 때부터 나경원 의원님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것은 사유화됐다고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권 바뀌고 갑작스럽게 또 나타나셔서 이 예산을 이렇게 편취해 갔습니다. 이것 반드시 내부 감사하셔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빨리 보고해 주셔야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지 아니면 장애인체육회로 반영할지 그 검토까지 다 하셔서 대안 가져 오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사업계획, 예산 운용 상황 전반에 걸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준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기조실장님 이쪽 증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청장님하고 장관님 질문드리고 난 다음에 실장님 여쭐 테니까 그때 답변 주시면

돼요.

문화재청장님, 국가유산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동식물 같은 자연유산도 있어요.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박정하 위원** 그런데 요새 소나무재선충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아끼던 부산 금정, 천연기념물 65호 상록수림, 제주 천연기념물 산천단 곱솔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요. 또 요즘에 보도 보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중국에서 쓰레기가 많이 들어와서 백령도 같은 데 우리 점박이물범 같은 게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혹시 이런 것 보거나 아니면 유관기관과의 협력 문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게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장님도 이런 거를 챙겨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추석 연휴 등등 하면서 문화재 사적 유용과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애듯한 마음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지금 드린 말씀처럼 청이 갖고 있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수사기관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건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이따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전체가 다 이렇게 투입이 돼서 휘둘려야 되는지 저는 조금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 청장님 의견을 좀 구하고.

장관님, 제가 청문회부터 죽 답변을 보면 저는 장관님이 그동안의 경력 가지고 철학 가지고 진짜 우리 K-컬처 잘 키워 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지원해 드리고 싶은 생각에 자꾸 과편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보면 너무 조심스러우신 건지, 아니면 너무 겸손하셔서 그런 건지 답변이 시원치 않고 자신감이 결여된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께서는 실권이 없이 그냥 병풍 뒤의 어떤 다른 이상한 세력들이 뒤에서 진짜 문화예술을 이렇게 농락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아까도 지금 제가 드리는 답변에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소신껏 인사권을 갖고 계시면 그냥 직무배제나 인사를 하면 되지 왜 그것을 굳이 여당 위원님의 주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답을 받을 때마다 제가 당혹스럽거든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왜 그냥 장관님 하실 수 있는 일을 못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 주시고.

마지막, 기조실장님도 기관증인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위증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박정하 위원** 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새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혹시나 사퇴·사직·사표 이런 것 종용받으신 적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인사에 관한 문제는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정하 위원 확인 안 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만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관님, 문체부는 특히나 블랙리스트 때문에 아픔이 많은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감안해서 청장님하고 장관님,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순차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는 문체부장관 임명 이후 제 주관대로 지금까지 부를 이끌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왜 1급 인사를 안 했느냐면 1급 인사는 업무 파악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앉혀야 되느냐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1급 인사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2급·3급이 또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기조로 어떤 인사를 해야 될지 저 나름의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일정 정도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 나왔듯이 지금 국민적 의혹이 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직무배제를 해서 뭔가 진상을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지적에 저는 동의를 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는 1급 인사를 할 수 있는 때가 됐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급 인사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박정하 위원 청장님은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다시금 지난 3년 동안 김건희 여사 건으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획하거나 거기에 확실히 관여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많은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 동안, 거기 소장·과장급들은 63명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공무원 조직이라고 보면서 상관에 의해서 지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사도 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갖고 있는 본연의 공무원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조직이 지금 이 건으로 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청장으로서 일단은 조직을 추스르는 데 더 앞장서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따로 감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더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못된 부분은 검증하고 그리고 발본색원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순수하게…… 죄송합니다. 순수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직원·선생님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어떤 다른 방법의 선처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을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게 저는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정하 위원 장관님, 하나만 추가적으로 여쭐게요.

실국장 전체를 놓고 밑에 인사를 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지만 문제가 되는 직원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편셋으로 뽑아서 직무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꼭 이렇게 국회의원님들의 힘을 혹은 발언을 빌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빌려야 되는 발언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1급 인사를 안 했던 겁니다.

○박정하 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동의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당혹스러워서 여쭙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이제는 1급 인사를 해야 될 때가 됐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1급 인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직무배제를…… 핵심 인력이니까요, 오늘도 여러 번 나와서 발언을 해야만 했듯이. 그래서 이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정하 위원 기조실장님도 답변에 변화는 없으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박정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찌 됐든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빨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문화재 사적 유용이나 국보 농단에 대해서 문체부가 더 이상 도마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빨리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추가질의를 다 하고 재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말씀하세요.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지난해 대한체육회는 규정과 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국민적 상식에서 벗어난 전임 회장의 과오로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 질의·답변 과정에서 현 유승민 회장, 신임 회장이지요. 몇 차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아보니까 유승민 회장이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개념, 지침과 규정에 대한 개념이 딴세상 사람 보는 듯 답변을 합니다.

본 위원이 PPT로 확인된 자료를 보고 질문하는데도 업추비 45만 원 썼다고 뻔뻔하게 위증을 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취임하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는 초반에 규정·지침에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아야 지난해 전임 회장님의 부침을 반복하지 않을 걸로 생각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 취임 이후 회장을 비롯한 기관 임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빙 자료까지 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임원별로 얼마나 어디에 썼는지 체육회 예산 지침과 규정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유승민 회장은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빨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의 재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도 똑같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씩 드리겠습니다.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부터……

○정연욱 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질의 안 하십니까?

그러면 경기 고양시 병의 이기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때 국립고궁박물관장님께 분명히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준비한, 23년 3월 2일 날 김건희가 오겠다고 2월 27일 날 연락을 받고, 누구로부터 연락 왔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하시니 메일을 준비했고 그 메일 안에는, 서류를 준비한 거지요. 김건희가 오면 어떻게 동선을 만들고 어떻게 의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보여 드렸는데 그 계획서를 대통령비서실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물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 왔어요. 그 당시의 비서관 그리고 선임행정관이 이 자리에 계셔서 마침 물어보면 알 수 있고 만약 이 두 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부속실로 바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답이 안 와서 그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회의 진행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님께서 황성운 기조실장에게 인사 관련돼서, 진퇴와 관련돼서 압력을 받았느냐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가공무원법 68조에 의해서 1급 이상의 공직자들은 신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임기가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일은 이재명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고요.

○위원장 김교홍 누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기현 위원 아니요, 이 자리에 계신, 의사진행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위원장 김교홍 그게 아니고 자료제출.

○이기현 위원 자료제출은 고궁박물관장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고궁박물관장 여기 계세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보냈어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지금 보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두상……

○위원장 김교홍 보냈어요? 아직 못 받았다는네?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지금 문구를 저희 본부에서 보내고 있어 갖고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누구한테 보냈어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지금 비서관님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아니, 말고. 계획서를 대통령비서실 누구한테 보냈냐고 물었잖아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그것은 지금 구두로 확인한 결과 두 분은 그때 이 관계를 모른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면 고궁박물관은 김건희 오면, 의전계획서를 대통령비서실 누구한테 보냈냐고 제가 질의하잖아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그 부분도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앞서……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고궁박물관에서 계획서를 누구한테 보내는 것을 몰라요, 지금

관장님이?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지금 2년 반 전에 계셨던 분들이 다 퇴직하셨고요. 그들이 쓰셨던 문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라진 상태라……

○**위원장 김교홍** 퇴직을 했더라도 그 밑에 업무가 승계가 되잖아요. 이 주요한 일을 누구한테 보낸 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그래 가지고 유선상으로 계속 확인 중인데 당사자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현 위원** 지금 1분 44초 남았으니까 44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1분만 쓴다고 그랬잖아요. 왜 자꾸만 그래요?

○**이기현 위원** 공직사회에서 대통령비서실에 연락하는 고궁박물관이……

○**위원장 김교홍** 이기현 위원님, 그건 거기다 하는 게 아니지. 나한테 해야지.

○**이기현 위원** 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런데……

○**이기현 위원**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한 문서에 대해서 수발신 대상이 없다는 것은 상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모임도 아니고.

○**위원장 김교홍** 아니, 문서가 가면 자료가 남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낸 게. 그냥 친구끼리 팩스 보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 중요한 게, 또 계획서가, 문서가 가면 자료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다 자료가 되어 있을 텐데?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목요일 날 이 사항을 인지하고 금요일부터 경위를 조사해서 국회에 요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월요일 화요일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항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위원장 김교홍** 이게 확인할 게 없어요. 문서가 대통령실 누구한테 보내든 가면 자료가 남잖아요, 어디로 보냈나.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전직 관장과 과장이 퇴직한 이후로 그들이 썼던 메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이 지금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담당했던 사무관에게, 파견 나간 사무관에게 연락을 취했고요. 아까 이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오후 종감 이후에 바로 저희가 확인하고자 연락을 취했고, 그런데 오늘 연가라 내일 오전 까지 다시 확인해서 그 사항들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니, 자료를 보내면 근거가 남잖아요, 근거가. 누구한테 물어보기 이전에 근거가 다 남을 것 아니에요. 어느 서기관이 대통령실 누구한테 무슨 계획서를 보냈다 이런 근거가 남으면 그게 자료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문적으로……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공문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메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메일 사항은 지금 다 삭제돼서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말이 안 돼,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지금 그 부분들을 계속 어제, 오늘 밤새서 저희 직원들이 그걸 파악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저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아니, 공공기관과 공공끼리의 연락이 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관장님 보시기에 이게 말씀이 되냐고.

○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저도 지금 그 부분들이 답답해서 어제 늦게까지도 이 사항을 파악하려고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금요일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파악하는 과정이라 종감 때까지 충분하게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교홍 자료의 내용도 아니고 누구한테 전달했는가를 묻는데도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2~3일씩 끌어오는 게 말이 됩니까?

○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저희가 조속하게 더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아직 질의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질의하십시오.

○ 이기현 위원 장관님, 오늘 종감이어서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분이어서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 구축과 관련돼서 문체부가 기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 예술의전당 적자 해결, 영상자료원 수장고 확충, 대중음악 공연에 부합하는 올림픽공원 내 시설 리모델링, 공연업계의 간담회 상시화 등이 필요합니다.

또 창작자 보호도 필요합니다. 11월에 있을 웹툰 업계와 문체부, 네이버 웹툰 간의 논의가 잘될 수 있도록 쟁여 주십시오.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측에서 지금 제보한 작가들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2차 가해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쟁여 주시고요. 공모전에 당선되고도 방치되어 있는 신인 작가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음저협 회장 및 이사진들의 비민주적 운영과 비위 문제는 이번에 뿐리뽑아야 합니다. 예술 분야 전반에 크레딧 규정을 수립해서 창작자들의 명예와 권리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돼서도 질의드렸습니다. 문체부 산하 방송 3사 프리랜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또 장애인체육을 위한 이천장애인선수촌의 부족한 종목시설, 훈련장 그리고 중증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수중 회복실 등 시설 확충, 장애인 종목 및 경기 파트너도 선수 지원 및 처우에 힘써 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기관 운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장동광 공진원장, 국감장에서 2차 가해 발언을 했습니다. 문체부가 이사회 일원으로서 장동광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하고 정관 개정에도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실적을 조작하고 파견법을 위반하고 IT 보안과 민감정보 관리 부실을 드러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해서도 문체부의 기관감사가 꼭 필요합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이 문제도 쟁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도 꼭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사업도 쟁여셔야 합니다. 국제 공동제작 지원 사업,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 독

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 독립예술영화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이 성장동력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료관광사업이 국가전략사업으로 키워질 수 있도록 의료관광 지역협의체를 광역 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예술인력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리적 위기상황 속에서 자살 시도나 자해 같은 심리적 위기상황을 겪는 예술계 학생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확인된 만큼 이들을 국가에서 돌봐야 합니다. 예술계의 특성상 상시 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건강 종합지원체계를 수립해 주시고 당장 내년에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돋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 바로잡아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보충질의 때 콘진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콘진원 부원장께서 보고서는 마무리되었다, 제출하였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보고서 제출이 아니라 자료 열람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 열람을 한 이유가 뭐냐면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 보고서 제출은 지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만 들어 보아도 무언가 좀 수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런 질의를 했었지요. GPS 내역도 감사에 활용해라, 활용해서 이 부분을 좀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 또한 의원실의 자료를 받은 후에 한다고 하셨는데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한 적도 없고 해서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아까 자리를 잠깐 이석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진종오 위원 최휘영 장관님 그리고 2차관님 그리고 유승민 회장님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자료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전명규 부회장의 문제입니다. 연맹 업무에 부당 개입했고 지도자 징계에 부당 개입했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가 2018년도에 나왔는데 7년이 지난 지금도 빙상연맹에서는 두 차례 징계 심의만 열고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체육단체 비위 근절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빙상연맹 앞에서는 그냥 우습게 보이는 만만한 부처로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료 띄워 주세요.

박세우 이사 관련한 겁니다. 박세우 이사는 '지도자 선임 및 재계약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자격 없는 지도자를 선발한 박세우 경기력향상위원회'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선발 과정을 진행, 징계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라는 결과보고입니다.

그다음이요.

박세우 전무이사가 2021년 7월에 징계 의결이 되었고 그래서 대한체육회 제6차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대한체육회에서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연맹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대상이 아니며 이사 신분에 대한 박세우 징계처리 요구가 되었고 연맹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박세우 징계는 징계 사유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를 한번 볼게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에 보면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보면 연맹 이사나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장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유승민 회장님도 이해되시지요? 다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체부가 징계를 요구해도 체육회나 연맹의 규정상 징계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예요. 잘못이 있어도 잘못을 징계받지 않는 모호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장관님, 이거 이해되십니까? 차관님,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더 얘기드리고요. 유승민 회장님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징계하라고 조치를 했던 인물들이 이 규정망을 피해서, 지금 보시면 빙상연맹의 집행부를 징계를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그냥 둘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장관님과 차관님과 유승민 회장님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저하게 규정을 수정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규정 부분은 저도 지금 처음 알게 된 거라서요. 지금 빙상연맹에 대해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꾸준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조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여기 이 부분의 요지는 뭐냐면 징계를 받았어야 될 사람들이 징계도 안 받았고, 규정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 규정을 악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찔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장님.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엊그제 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체육단체에 대한 부조리를 뿌리뽑으라고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내부적으로 종목단체들 정관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종목단체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저희가 청렴윤리팀 같은 걸 신설해야 되는데 대한체육회가 직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공정법무실과 감사실 직원이 13명인데 체육인 전체 등록인구를 치면 1명당 3만 5000명을 감당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단체로 해도 750개고 또 종목단체는 더욱더 열악합니다.

그리고 특히 더 어려운 점은 저희가 2차 기관이다 보니까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학교체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상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보니까 사전예방이나 교육 또는 이런 정계 관련해서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회장님 의중이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솔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솔 위원 장관님,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게 있습니다. 301명의 생활체육지도자님들께서 저희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고요. 10명 중의 4명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이런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답변 주셨고 부당지시나 업무배제 이런 괴롭힘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유형은 사무국 직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권침해 사건 발생할 때 ‘참고 넘겼다’라는 응답이 높고요. 생활체육지도자 업무에 대한 노동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건강과, 안정된 업무환경에서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일을 해야 우리 동네 생활의 건강 이런 게 보장이 될 텐데요. 이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소한 시·군·구체육회에 맞는 노동인권인식 교육 그리고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말씀처럼 이 부분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조직문화 개선해야 된다는 데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 중요하고 또 체육회와 같이 실효성 높이기 위한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교육만 해도 조금 많이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꼭 실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청장님, 김해시의 황새 폐사 사건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손솔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황새에 대한 관리지침이나 방사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문제가 하나 있고 막을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담당자분께 물어봤을 때 일단 방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없다라고 들었고 현상변경 신청할 때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데 통과됐던 거나 자연유산위원회에 안건 회부 안 됐던 것 그리고 현장에 담당자가 있었는데 바로 조치가 안 된, 여러 기회를 놓쳤던 일이 있어서요.

이게 어쨌든 천연기념물이고 살아 있는 생명에 대한 것이어서 관리지침이 명확하게 있

어야 된다는 것,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현상변경 허가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 현상변경 허가 나가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우리 지침은 1시간 이내에 그걸 방사하게끔 돼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손솔 위원** 지침은 있는데 이번에 안 지켜졌어 가지고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이번에 사실은 안 지켰고, 물론 저희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케이지가 너무 좀…… 그러니까 항온, 항습이 안 되는 케이지라서 제가 지시를 내려서 이번에는 항온, 항습이 가능한 케이지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손솔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손솔 위원** 매뉴얼 꼭 만들어 주시고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손솔 위원** 유홍준 관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관람객 수는 많이 안 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 발달장애 지원시설은 비율이 낮았습니다. 소속관 중에 장애인 이용객 수를 수집하고 있지 않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이용객 수를 수집하고 있지 않은 소속관이 13곳 중의 11곳이었습니다. 국중박, 김해박물관, 나주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 수도 늘고 있고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박물관이 보다 모두를 위한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 특히 장애인 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숫자 확인하는 것과 지원시설을 조금 장애 유형별로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저희가 내년부터 고객관리 통합시스템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예약과 현장 무료티켓 발행 이것을 하게 되면 고객관리의 통합자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손솔 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을 보완하고.

실제로 장애인 유형 여럿 중에 시각장애인에 저희들이 집중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람 환경, 장애인을 위해서 더 세심하게 고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솔 위원** 소속관들은 아예 집계가 안 되는 문제는 꼭 신경 써 주십시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예. 지금 집계 방식이 수동적으로 육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과 모든 것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고 내년에는 이런 고객관리 통합시스템을 도입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전남 여수시을의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제가 오늘 노관규 시장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했는데요. 노관규 시장

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인 순천시장으로서의 노관규 시장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순천의 윤석열, 왕의 행세를 하면서 온갖 전횡을 일삼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엊그제도 노관규 시장이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관제데모가 저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조계원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김건희의 2000억 비선 예산이 조계원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장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 부분은 예산의 적절성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렇지요.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앞서도 지적했는데 국비를 포함한 3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남문터광장 사업이 다시 헐어지고 115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애니메이션 웹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께서 답을 요청했는데 문체부의 답에 따르면 ‘남문터광장의 일부 등을 활용하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활용하는 리모델링이었는데 남문터광장의 철거에 대한 승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답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아까 제가 말한 것에도 답했는데 꼭 취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꿈의 다리입니다. 꿈의 다리는 2013년 정원박람회 개최 당시 강익중 작가가 만든 작품이고 전 세계 16개국에서 14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그린 조각 그림으로 완성한 작품입니다. 2023년 국가정원박람회 사업은 전임 허석 시장 때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450억 예산의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꿈의 다리에 꿈과 소망을 기증한 청소년을 초청하자는 안이 핵심 기획안일 정도로 순천만정원의 명소가 바로 꿈의 다리였습니다.

어린이들의 소중한 꿈을 간직한 꿈의 다리는 노관규 시장에 의해서 스페이스 브리지라는 조형물로 바뀌었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조각 그림 타일도 사라졌습니다. 14만여 명의 아이들의 꿈을 헐어 버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로 저장했으니 문제없다는 노관규 시장의 지난 국감 발언은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조계원 위원 다음,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라인의 한경아…… 화면을 보시지요.

김건희 사모의 지인, 핵심 지인이었던 한경아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던 신용한 교수와 통화하면서 실제로 정책에 개입하고 관여합니다. 이처럼 대선 기간 중에 최측근 한경아는 막강한 실세 역할을 수행했고요. 한경아는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총감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순천시는 한경아를 제대로 검증하기는커녕 온갖 특혜를 주면서 국제정원박람회 감독으로 임명하였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세 번 나오고 월 1000만 원씩 여덟 달 동안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이것은 순천시가—노관규 시장이겠지요—김건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행 작업을 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이고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다음에 김건희 일가에게 또 엄청난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 동해종합기술공사, 양평고속도로 우회 설계를 담당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의 자회사가 한종산업개발입니다. 이 자회사인 한종산업개발 컨소시엄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무려 337억에 달하는 순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을 맡았습니다.

공직까지 매관매직하고 각종 명품과 금거북이까지 받은 김건희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순천에서 훨씬 더 큰 규모로 자행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장관님께 여러 가지 순천의 문제점들 지적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위원님께서 줄곧 적절치 않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위법성이 있거나 적절치 않은 예산의 집행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원 위원 제가 이어서 의사진행발언 짧게 1분 30초만 쓰겠습니다. 관련해서 특검 고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까 했잖아요. 또 해요?

○조계원 위원 아니요, 이건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조계원 위원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건희 특별법 제2조제1항제12호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라는 의혹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 본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김건희를 꼬셔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했다는 자백을 했습니다. 명백한 국정 농단이자 예산 개입입니다.

김건희의 최측근인 한경아는 순천 정원박람회 문화행사 총감독으로 사전 내정되었고 월 1000만 원씩 여덟 달 동안 8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설계를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자회사인 한종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순천시맑은물관리센터 내 하수 종말처리장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예산 증액과 사업 변경을 도와준 김건희에게 보답하기 위해 온갖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까도 까도 끝없는 양파 껍질처럼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는 자신의 성공과 출세, 명예를 위해 김건희에게 애니메이션 클러스

터 2000억 예산을 받아 내기 위해 온갖 특혜를 베푼 노관규 시장과 김건희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에 고발함으로써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는 것이 우리 문체위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김건희 특검 고발의 건을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하여튼 그 부분도 여야 간사들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번 국정감사 현장 시찰하면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국가유산청 산하지요—방문했었는데 지난 5월에 멋지게 건물을 완공했습니다마는 시설이라든지 인력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서 수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교홍 위원장, 박정하 간사와 사회교대)

어제는 역사적인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가 개관을 했었는데 지금 수장고에 한 44만 점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8만 점 정도가 보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8만 점 보존 처리를 하는 데도 8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보존과학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28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원이 지금 16명밖에 안 되고 내년에 2명 보강해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빨리 충원돼야 됩니다.

장관님 그리고 청장님, 인력 충원 또 설비 확충에 적극적으로 이번 예산심의에 대응을 해 주시고요.

앞서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 이야기 나왔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유료화에 앞서 내년에 예약제를 실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유료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꼭 필요한 인력 또 시설 이런 것들이 적기에 확보되고 개선돼야지 오히려 그 편의가 수익자 부담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김승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김승수 위원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지금 같이 협의를 시작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세계청년대회에는 참석 예상 인원이 최소 40만~100만, 2023년 챔버리 4만의 10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만 해도 한 3조 원内外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게 종교단체 행사라기보다는 범국가적인 행사이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저번 챔버리 때도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여기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고 또 대부분의 참석 인원들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위한 지원법이라든지 또 준비 기구가 전혀 정부 차원에서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은 3개 법안 정도가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애초 작년에 발의

된 2개 법안과 존경하는 박수현 의원님이 얼마 전에 발의한 법안을 비교해 보면 알맹이는 빠지고 또 준비위원장도 총리에서 오히려 장관으로 격하되고 이랬다는 말이지요. 이래 가지고는, 또 그나마 이 법에 대해서 문체부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공청회니 의견 조율이니 여러 가지 지금 그 통과에 상당히 좀 난망한, 소극적인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법 통과하기도 전에 대화가 바로 닥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APEC 때, APEC 지원법이 통과되기 전에 준비위원회, 준비단 대통령령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APEC이 그나마 큰 문제없이 현재까지 준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 제정이 좀 어렵다 싶으면 앞서 대중문화교류위, 대통령령 그렇게 제정했지 않습니까? 빨리 근거 법령 개정해서 국가 차원의 그런 준비기구를 만들어서 안전이라든지 출입국이라든지 보건의료라든지, 실기하지 말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적극 나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통과된 거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지방에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지금 다른 법들과의 충돌 문제 때문에 제대로 진도가 나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때 전통사찰의 미허가, 미신고 건물을 양성화한다고 그래 가지고 많은 사찰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되는 게 없어요. 아주 제한적으로 종교 부지 내에 있는 시설 중에 다른 데 근거 법령에, 다른 법령에 저촉이 안 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하소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찰과 자치단체 간에도 굉장히 이견이, 그런 다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장관님 대책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지금 이 문제는 취지와 다르게 다른 법들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조문 개정이나 혹은 다른 특별법을 통해서 뭔가 이 법의 취지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법 개정 당시에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하다 보니까 현장에 이런 혼선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내려 주시고 추가적으로 무허가 양성화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 협의를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는 대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장관님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관계부처와의 협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시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기존 법으로도 저희가 빨리 가이드 주고 할 수 있는 것

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 개정이나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승수 위원 예.

○ 위원장대리 박정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유흥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괜찮으시면 일어서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미술품 전문 운송업체들이 있지요. 본 위원이 개인적인 궁금증과 함께 미술계에서도 말씀을 좀 주셔서, 이것은 제가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쭤보려고 합니다.

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5년간 독점적으로 사실상 거래를 해 온 D업체가 있습니다. 아마도 경험이 많고 인원도 풍부하고 박물관에서도 선정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어떤 업체인지는 박물관장님께서 잘 아십니까?

○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운송업체는 여럿이 있는 중에 박물관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고 우선순위로 하고……

○ 배현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잘 모르시면…… 현대미술관장님 계십니까?

잠깐 앉아 주시고요.

미술품 운송업체인 D업체 알고 계십니까?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제가 그냥 생각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아마 상호가 디귿으로 시작하니까 제가 D업체라고 했는데요. 지난 25년간 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의 미술품 운송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약 2년 전에 이 회사가 프랑스에 사실상 팔렸고 연간 150억 원의 운송 매출을 우리로부터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국부지요. 우리 수익이 프랑스로 다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 끊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 선정하는 기준이 뭔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두 분 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 배현진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활동하는 국내 미술품 운송회사들이 대략 몇 개가 되나 제가 봤더니 한 20개 정도 되고 있고, 국립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이 아닌 다른 비엔날레나 이런 전시회는 이 업체들이 사실 소상공인으로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미 사실상 프랑스 기업이라고, 이것 저도 들은 말씀이니까 판단은 하셔야 되는데요.

국내 다른 여타 업체들도 저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 배현진 위원 같이 키우고 육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독점시장으로만 놔두면 안 될 것 같고요. 상생의 차원에서 기준을 확인하셔서 다른 업체들에게도 입찰 기회를 주셔야 우리 국내 업체들도 경험을 쌓고 이 업체들이 또 세계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만

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업인지는 그냥 대충 마음으로는 알 것 같은데요. 그게 프랑스에 팔렸다는 사실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어떤 경유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지도 알아봐서 의원실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1분만 주시겠습니까?

그 회사가 프랑스 국적 기업에 인수된 게 약 2년 전이고요.

관장님, 확인을 해 주시고요.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중앙박물관장님 다시 한번만 제가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게 국내 미술품 운송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맞췄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아트팀이라고 그래서 해외 운송업체 친목모임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 굉장히 주류로서 독점적인 활동을 해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미술품을 반송하고 특히 문화재 교류를 할 때는 보험도 대단히 중요하고 안전성,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만약에 우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같이 열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박물관에서 큰 실수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을 그동안.....

○배현진 위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유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현진 위원 우리 문화가 많이 세계적으로 성장한 만큼 우리 업체들의 수준도 많이 이미 성장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흥준 예,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앗아 주시고요.

장관님, 이 부분에 관해서 미술관뿐만 아니라 장관님께서도 관심 있게 챙겨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하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장관님,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불균형처럼 체육 인프라도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민형배 위원 그중에서도 이른바 레저사업, 경마·경륜·경정 경기장이 호남에는 하나도 없는 것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호남에서 허가 신청만 하면 계속 반려돼요, 불허.
(영상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네 차례 신청했는데 한 2~3년씩 끌다 다 반려하고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심지어 경정장 신청을 한 곡성군에서…… 아, 올해 7월 말에 전남도와 곡성군 공무원들이 전남지사 모시고 와서 관광개발과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지도 말라고 그랬대요.

이렇게 이런 일 아니지요? 면담까지 거부할 일 아니지요?

문체부가 곡성군의 경기장 불허 사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들과 살펴보니까 판단이 그렇게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정장을 포함해서 관광레저단지를 들어서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론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지역 사정에서는 특히, 지역 형편에서는. 이게 장관님 결정으로 가능한 일이니까 제가 근거를 서면질의로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장관님, 올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ACC 말고도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 국책사업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민형배 위원 국책사업인데 22년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 지원이 28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요 22년간 국비보조금이 30%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2~3년간에 나머지 70% 예산 확보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이게 중단되는 건 너무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꼭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특히 지방비 매칭을 50%로 해 놓으니까 어려운 광주시가 이것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국책사업이니까 국비보조금 비율을 한 칠팔십 %로 대폭 늘리거나 아니면 전액 국비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ACC 운영의 전면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문체부가 의지만 있으면 이게 가능할 것 같으니까 장관님, 꼭 종합적인 계획을 살펴셔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하고 ACC에 대한 그것, 혁신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민형배 위원 필요한 법이 있으면 국회가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 개정 같은 건요.

그다음에 ACC에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이 마무리돼 가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 **민형배 위원** 그런데 최근에 저희 의원실로 당시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보도검열관실은 왜 복원하지 않느냐는 민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복원협의회에서 합의된 검증 자료를 통한 원형 복원이라고 하는 게 기본 원칙이랍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보도검열관실 같은 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재현을 위한 복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5·18 전후해서 계엄 상황에서 언론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그런 강력한 역사적 상징성이 있거든요. 이것 고려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최근에 문체부 문화기술투자과하고 함께 문화기술 R&D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이런 검토를 같이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방향, 접근 방법, 주요 과제, 타 부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는데 제대로 된 CT연구원, 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동의하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 **민형배 위원** 이 CT연구원 설립이 처음 제기된 게 십칠팔 년 전인데 지금 상황이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의로 더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하**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의 거론해 주신 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조은희 위원** 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민형배 위원님을 칭찬하시는 걸 보고 저도 다른 질문은 서면질의로 하고 이것만으로 끝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최희영 장관님, 지난 국감에서 무용계의 병역비리 관련해서 한국인 참가 비중이 80% 가 넘는 무너만 국제무용대회 통해서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병역특혜를 받는 예술요원제도 이것 제도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 특혜를 받은 예술요원들이 다른 현역들은 1년 6개월 군복무하는 동안 봉사활동 544시간인데 이 시간을 날짜로 따지면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마저도 인증사진 허위로 제출하고 봉사시간 못 채워서 부실하게 복무하는 거, 이게 불공정하다 이런 지적을 드렸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편입 대회를 대폭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시 구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복무도 예술요원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활동처를 발굴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복무기관을 저희가 지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겠습니다.

○ **조은희 위원** 어느 정도 복안이 서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잠깐 스텁해 주시고, 유승민 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유승민 회장님, 정회시간 협력관을 통해서 탁구협회가 오늘 아침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제대로 설명받으셨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받았습니다.

○**조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물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23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가려고 탑승한 1000만 원 비즈니스석,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받았습니까, 국내 탁구협회 돈으로 갔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탁구협회 돈으로 갔다가 원래 리인버스(re-inverse)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요.

PPT 화면 또 보시겠습니다.

22년, 23년, 24년까지 다른 데서 후원받아서 갔다고 그랬던 결제된 항공권 11건 이것도 협회 돈 쓰신 겁니다. 맞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제가 한 50차례 해외를 나갔는데요 이 건에서 2건……

○**조은희 위원** 또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사과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2건에 대해서는 리인버스를 받았는데 나머지는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받았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아닙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잘못하신 거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은희 위원** 회장님, 이게 회장님 탁구협회장일 때 대한체육회가 문제 제기했던 건데 아직도 정리 안 하고 이번 국감 기간 내내 ‘저는 법인카드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법인카드로 안 썼습니다. 저는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른 질의를 못 하잖아요.

아까 45만 원, 월 45만 원만 썼다고 한 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1월부터 3월까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기명카드가 있는 것을 저도 아까 확인을 했는데요 거기서 지출된 금액이 45만 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1분만 더 주십시오.

회장님은요 공적 마인드가 절대 없어요. 집에서 생활할 때 엄마 돈, 아빠 돈, 형 돈, 이런 것을 전부 다 한 집안에서 그냥 확 섞어서 쓰는 것처럼 회장님 개인 돈이 아니고 국민 세금인데 이거를 그냥, 갔다 온 것을 업추비로 쓴 것도 모르고 ‘나는 아니야. 난 그냥 스트폰 받아서 갔어’ 그렇게 계속 주장하시면 대한체육회 어떻게 됩니까?

반성하시고 말씀하세요. 사과하시고, 국민 앞에.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지적 주신 법인카드와 항공권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너무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당돌하게 말씀드린 점은 진심으로 사

과드리고요.

또 한 가지 사과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기소되면 사퇴하겠냐고 물었는데요 저는 자리에 연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가 살면서 고소라는 것을 처음 당해 봐 가지고 기소의 정확한 뜻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제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 즉시 사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은희 위원 말 바꾸시는 거네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아닙니다. 기소의 뜻을 제가,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회장님은 모르시는 게 너무 많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실 텐데요, 앞서 박수현 위원님의 질문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합쳐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5분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교홍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읽기만 한 거예요. 아마 박수현 위원님의 경륜이 길어서 서면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5분을 다 안 쓰시겠지요, 뭐.

○박수현 위원 이렇게 훌륭한 문체위의 위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장애예술인에 관해서 질문하고 당부드릴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장애인 문제 하면 대체로 많은 것들을 비장애인들 문제를 다 하고 제일 끝에 살짝 걸치거나 아니면 남는 시간, 남는 여력, 남는 예산, 남는 조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혜적으로 마치 복지사업 하듯이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좀 그렇게 보지 말고 장관님,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있기도 한 만큼 장애예술인들의 기회 확대 이것이 체감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의지를 가지고 노력 좀 같이 해 봅시다.

(박정하 간사, 김교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들에게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요 꼭 장애예술인 전담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에게 예술은 자기 인생이 다 걸린 이 세상을 온전히 내다볼 수 있는 작은 창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창문마저 깨끗하게 닦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보겠습니까? 이 예술 자체가 그 장애인, 존엄한 한 인간의 전체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꼭 시혜적으로, 부가적으로, 남는 것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정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보자, 그게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2024년에 장애인문화예술과가 문체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년간 자율기구로 운영이 되다가 업무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시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전담 인력이 5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 이 2명이 어떻게 장애인 예술 전체를 감당합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많이 있어요.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 놓고 21세기 대한민국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금 전에 관세협상이 타결되어서 제가 브리핑을 하고 왔습니다만 온통 장밋빛 경제 이야기로 가득 채운 브리핑문을 쓰면서 저도 부끄러웠어요. 정말 이렇게 경제가 중심인 나라, 돈이 중심인 나라, 이런 나라에서 사람이 중심인 나라로 바뀌어야 되고 특히 문화와 예술을 다루는 문체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5월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정말 이 주제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장애예술 전담 부서 상설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해 놨어요. 어렵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문제? 1년에 전체 수입이 30만 원도 안 되는 장애예술인들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장애인 가족입니다. 저에게는 스물일곱 살이 된 딸이 있는데 발달장애와 자폐를 겪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바라보면 TV를 보고 그 TV를 그대로 그리는 것이 하루 종일의 일과인데, 그런데 온전하고 존엄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이 일을 마음 놓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제 가족,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문제인데 제가 가정에서 느끼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심정들을 확대하면 우리 사회 공동체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 아이와 하루하루 새로운 작은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희열을 느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의 기쁨이 될 때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왕에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장애인 전담 조직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은 다행히 조금씩 는다고는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함께 노력을 좀 해 보고.

장애인들을 또 장애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문제만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문체부가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좀 더 발현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는가를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리스트를 좀 만들고 그래서 사업을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 보시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문체부다운 문체부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문화예술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공동체를 지탱할 수 있는 큰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문화예술이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맨 마지막에 쟁여지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핵심 과제로 이것을 설정하고요. 그런 비중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쟁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에 짚은건축가상이라는 공모전을 주최

합니다. 그런데 공모전 수상자가 사문서 위조를 통해서 장관상도 받고 상금과 전시회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 동안 상훈 취소를 미루다가 지난주 금요일이나 돼서야 상훈 취소를 확정을 했습니다. 해당 공모전에서는 공동 설계자의 동의서가 필요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PPT를 보시면 문제의 수상팀이 공동 설계자 동의 없이 임의로 직인을 날인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공동 설계자가 문체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해서 법원이 2024년 1월 해당 수상자 2명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를 했고요. 대한건축사협회 경기지회에서도 회원 권리정지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 판결, 행정 징계 다 나온 거지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2022년 10월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방치했습니다. 법원 판결 이전에는 ‘법원 판결 진행 중이다’, 판결 이후에는 ‘법률 자문과 당사자 의견 조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유보를 했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2024년 11월 수상 취소가 적합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음에도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직무유기예요. 이미 짚은건축가상 공모 제출서류 중 서약서에 부정 제출에 대한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포상 운영지침 사항에도 포상 취소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서 수상 취소 연기할 만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민원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한 답변이 뭘지 아십니까? 담당자 변경과 검토 이런 답변뿐이었습니다. 담당자 그사이에 여섯 번 변경이 됐고요. 검토 중이라는 법률 자문은 이미 끝났지요, 오래 전에. 담당 부서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조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다른 건으로 상훈 취소를 진행을 한 적도 있고 또 이 건은 이미 형사 판결 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기할 이유가 없는 것 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 현황과 지체된 기간을 고려하면 직무유기로밖에는 안 보여지고요. 행정 태만입니다.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포상 관리지침 전면 점검계획을 수립 이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이번 사안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쟁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조속히 진행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갑의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언론학 박사 양문석입니다.

언론재단 이사장님,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9조 1·2항을 아까 해석할 때 정부광고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를 활용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언론사를 대상으로 공익적 목적의 광고를 집행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에 동의하셨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 기준에도 조선일보를 주면 안 돼요.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양문석 위원 잠깐만요. 지역 중소 언론사…… 그런데 제가 왜 언론학 박사 양문석이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정부광고법 시행령 9조의 1항이 정부광고 품질 향상에 관한 사업, 2항이 공익광고 사업이에요. 이 공익광고 사업은 지역 언론이나 중소 언론사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를 들면 대학생 대상 공익광고 공모전 이런 데 사용하는 돈이에요. 언론재단이 시행령 9조에 대해서 이해도 못 하고 이렇게 돈을 협금을 쓴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돈을 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 밖에 수수료를 규정한 9조는요 정부광고 품질 향상에 관한 사업 그다음에 공익광고 사업, 정부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그다음에 수탁기관의 인건비, 운영 경비에 쓰는 돈이에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공익광고 사업이라고 해서 조선일보 따위에게 이중으로 지원하고, 그 앞에 8조(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는요 미디어교육 지원이나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에 쓰고, 9조(그 밖의 수수료 사용)는 방금 불러 줬던 그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재단이 시행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따위로 저희들한테 답변하고, 경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거짓말해 놓고 조선일보 따위를 이중 지원하고 정부광고 주고 공익광고 주고 했던 행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지적하지만 알고 물어보는데도 거짓말이고 자기들이 잘못 해석해서 잘못 집행했는데 잘못 해석한 그 기준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아예 잘못 해석해 놓고 잘못 집행해 놓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자각과 반성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무슨 뜻인지 저녁시간 밥 먹고 오면서 누군가가 이사장한테 또는 이사장이 공부해서, 공익광고 사업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학습도 안 돼 있고 이게 지금 이사장님과 본부장들과 팀장들의 수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얼마나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공익광고 사업은요 이런 데 쓰는 돈 아니에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문석 위원 하지 마세요! 국회에 와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농락한 것 아니에요! 서면답변도 잘못했고 그 답변한 것 가지고 적용도 편파적으로 조선일보 따위에게 지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중 지원하는 행태로 썼고 심지어 시행령·법안 해석도 못 하는 그런 언론재단이 뭘 답을 한다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문석 위원 하지 마세요, 알지도 못 하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답변시간을 드리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 양문석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 위원장 김교홍 예.

○ 양문석 위원 이 법은요 중소 언론사나 그다음에 지역 언론사를 지원하는 법률 조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재단은 이 조항을 중소 언론사나 지역 언론사를 지원하는 조항으로 이용했어요. 그러면서 정부광고도 주고 그리고 공익광고도 주고 이러면서 조선일보 따위에게 이중 지원을 했었어요.

서면답변 잘못됐지요. 법안 해설 잘못됐지요. 법안 해설이 잘못되니까 돈 집행이 잘못됐지요. 그리고 그 집행을 잘못하면서 거기에서 조선일보 출신 이사장이 조선일보 따위에게 이중 지원해 주지요. 하면서 꼴수 부렸지요.

○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 양문석 위원 제가 왜 언론학 박사 양문석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지 위원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양문석 박사님.

○ 양문석 위원 그리고 언론재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이사장님,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양문석 위원님한테 제출 바랍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알겠습니다. 양문석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이게 무슨 일인지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서면으로 주십시오.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장관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에는 실장 밑에 과장이 있고 학예연구관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도 연구실 실장 밑에 부장이 있고 국립현대미술관도 학예연구실은 과장 4명과 팀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은 실장 밑에 바로 3명의 학예연구관만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 면에서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의원실에서 국악진흥법 시행에 맞춰서 국악연구실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공연전통예술과 김진희 과장과 개편안도 협의 중입니다. 장관님은 실무 부서에서 관련 사항의 보고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그리고 행안부와 기구·정원 개편안을 우선순위로 협의를 좀 해 주시고 내년에는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에 꼭 과가 정상적으로 신설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유승민 회장님, 이번이 첫 국감이라고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답변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무모하게 빠른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첫 국감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팩트를 체크한 후에 모르면 모른다라고 해 주시고 그렇게 진중

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대한민국 체육인들 그리고 대한민국 생활체육 전 국민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장관님, 청장님, 제가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저는 3년 동안 내로남불 전 정부, 전 정부 탓만 들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 벌써 5개월이 넘어섰고요. 장관님과 국가유산청장님 들어선 지 3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업무 파악은 대충 끝났을 것 같고요. 제발 저는 두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전 정부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세워 주시고 잘된 사업들은 더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두 분의 리더십을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빨간색도 좋아하고요, 파란색도 좋아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기관장님들에게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주어진 위치에서 허리 졸라매 주시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노력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기간 동안 현장에 계신 종사자들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기댈 수 있게 그러한 베풀목이 되어 주시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진짜 믿어요. 제가 6년째 이 자리에 있지만 저는 진짜 우리 문체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능력을 제대로 보여 주시고 현장의 문화·체육·예술·관광 국민들, 종사자들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기댈 수 있는, 빨간색·파란색 나누지 않는 진짜 편한 베풀목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시작과 동시에 마지막까지, 특히 우리 여당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고 언성과 고성도 있었습니다. 상처를 드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대한민국 만들고 진짜 국민이 행복하고 현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바람에서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고 또 현장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달라는 그런 조언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국감 기간 동안 상처받고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여당 간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2026년 허리띠 졸라매고 진짜 제대로 된 역할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저렇게 하고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정리를 다 하셨습니까.

국가유산진흥원장님, 안에 배석해 계신가요?

○**국가유산진흥원장 이귀영** 예, 여기 있습니다.

○ 박정하 위원 계세요? 마이크 좀……

오랜 시간 대기하셨는데 수고하셨어요.

○ 국가유산진흥원장 이귀영 감사합니다.

○ 박정하 위원 원장님, 국가유산을 활용한 굿즈 매출이 보니까 4년 새 한 160% 증가했더라고요.

○ 국가유산진흥원장 이귀영 예, 그렇습니다.

○ 박정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정작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직접 제작한 상품 매출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한 1.7% 그 정도 비율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기술은 갖고 계시지만 이걸 어떻게 상용화할지, 어떻게 마케팅할지 이런 지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쟁여 보실 의향 있으시지요?

○ 국가유산진흥원장 이귀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잘 좀 쟁여 봐 주세요.

○ 국가유산진흥원장 이귀영 예.

○ 박정하 위원 장관님, 요새 몰래카메라 사고가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저희는 체육회도 그렇고 안에 성비위도 있고 이런데, 몰래카메라가 사실은 발생은 많이 합니다마는 잡기는 쉽지가 않은 게 거의 내부자가 더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법률에도 보면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아마저도 내부정보 때문에 발견되지 않아요.

제가 요청해서 자료를 받으니까 우리는 공연, 체육, 운동 이런 거 관련한 시설들이 많아서 몰래카메라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가 많이 필요한데 올림픽공원, 중앙박물관, 고궁박물관, 예술의전당, 미술관, 도서관 등등등 해서, 심지어는 미사경정공원까지 열여섯 군데를 봤더니 올림픽공원의 13곳 화장실에 딱 하나, 전체 열여섯 군데에 딱 하나밖에 상시 점검 시스템이 없어요.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특히나 그런 게 노출되기는, 그러니까 몰래카메라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 장관님 잘 쟁여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자, 공교롭게 마지막 질문이 됐는데 짧지 않은 국감 기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애쓰셨습니다. 좋은 말씀은 임오경 간사님이 다 주셨으니까 저는 하나만 딱 보탤게요.

아직도 저는 여전히 머릿속이 개운하지가 않고 의구심이 더러 있습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기조실장님께서는 용퇴와 관련해서 인사상의 문제는 전혀 말씀하실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아니라고 하는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김영수 차관님, 혹시 임용 이후에 실국장님들한테 사퇴, 용퇴 이런 것에 대해서 종용, 강요하신 적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종용, 강요한 적……

○ 박정하 위원 전혀 없으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없습니다.

○박정하 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지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박정하 위원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 위원 위원장님, 양문석 위원님에게도 착하게 마무리할 기회 30초만……

○위원장 김교홍 그래서 양 간사님은 마무리로 이렇게 하셨지만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종감이기 때문에 꼭 나는 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시지요.

양문석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 두 분 하시지요.

○양문석 위원 들다가 보니까 저만 마지막에 나쁜 놈이 돼 가지고……

○위원장 김교홍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문석 위원 상당히 민망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좀 더 나은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기현 위원님.

○이기현 위원 저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 다 못 해서 서면질의로 많이 넘어갑니다만, 아까 제가 종합질의를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장관님 답변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장관님하고 유산청장님 짧게라도, 이번 국감 처음 받아 보셨는데 국감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도 있었습니다만 정책적 질의도 많았고 앞으로 문체부와 유산청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한 1분씩이라도 말씀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답을 못 들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말씀처럼 저도 이제 이 자리에 부임한 지 3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업무 파악도 하고 정말 나름 제가 부여받은 그 책임에 맞는 일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짜는 데 몰입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감을 해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동안 제가 저희 문체부 식구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가졌던 그런 내용과 전혀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 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충고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는 그 많은 과정들이 저한테는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동안 공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행정부와 국회의 순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더욱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 더 경청하고 여쭤볼 것 있으면 더 여쭤보고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문화재청장님.

○국가유산청장 허민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에 오래 있다가 이렇게 행정 쪽으로 나와 보니 많은 것을 느꼈고 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국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일일이 기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과연 뭔지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사과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저희 국가유산청은 지난 3년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사과 또다시 드리고요. 대신에 저희들 국가유산청 직원들이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격려해 주신다면 다시 환골탈태 내지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국가유산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김승수 위원님.

○ 김승수 위원 체육회장님, 앞서 축구심판들의 오심 문제 또 몇 개 종목별 심판들의 불공정한 판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인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 그것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감사드립니다.

아까 진종오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도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종목단체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개인한테 부과되는 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라면 이제 단체에도 그런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끔 정관 개정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안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배현진 위원님.

○ 배현진 위원 저는 이번 2025년 문체위 국감이 저희 위원장님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과 기관증인들 다 함께 해서 대단히 모범적인 정책국감이었다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국회가 국민들께 많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의정이나 이런 국감에서 질의하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질문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이 내용들이 국민들께 다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관 대표로 오신 장관님을 비롯한 모든 장들께서 오늘까지 한 달간의 이 국감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그냥 날짜 때우고 모면하고 내년까지 버텨 보자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위원들과 또 기관장들 사이에는 동료의식과 함께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한다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내년까지 저희가 부탁드렸던 것들, 국민 앞에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김재원 위원님.

다 말씀하시네, 한말씀씩 하라니까.

○ 김재원 위원 오늘 뵈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부처 그다음에 기관과 유관단체 여러분들 다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얼굴이 참 많이 안되셨습니다. 살이 빠지신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 뒤에 우리 행정실의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연구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뒤에 밤잠을 못 자 가면서 민원인들을 만나고 질의서를 작성해 준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그분

들에게도 응원의 한마디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K-문화강국을 만드는 데 우리 모두 다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체위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상임위를 다녀봤는데 그래도 우리 문체위가 한 단계, 지금 현 정치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임위 활동을 하고 국정감사를 치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혹시, 임오경 위원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저희가 국민의 잣대로 보고 질의를 하다 보면 언성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절대 사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러한 감정이 혹시 있으시다면 다 일시에 잊어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재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등 6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경복궁 근정전 어좌 및 창덕궁 인정전 비공개 방문 등 문화유산 사적 유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 과정의 부적절,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추진 부적절,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계획 부실,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사 과정의 부적절, 한국관광공사 수의계약 부적절, 야외 골프장 안전관리 부실 및 경기 진행요원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공연장 안전관리 및 예술인 산재보험 운영 개선 필요,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의 R&D 관리체계 통합 구축 필요, 체육계 비리에 대한 조치 필요, 민간 심판자격증 불법 발급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한 피감기관 관계자들께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기된 지적사항 가운데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 대안은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초안을 마련한 후에 각 의원실로 보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다음 의결하여 채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원 감사 요구 또 증인에 대한 고발 등에 대해서는 향후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배현진 위원님, 손솔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박정하 위원님, 김교홍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정연욱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 모두 다 이렇게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민형배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께서 정책자료집을 배포하셨습니다. 자료집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기관들은 자료집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주 동안 한결같이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하시고 원만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효율적이고 원활한 국정감사 운영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오경 간사님과 박정하 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 그리고 산하기관장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정책연구위원과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경위 및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39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15인)

김교홍 김승수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손솔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정연욱 조계원 조은희 진종오

○ 청가 위원(1인)

김윤덕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

○ 피감사기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희영

제1차관 김영수

제2차관 김대현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윤양수

종무실장 김도형

국민소통실장 유병채

대변인 김재현

감사관 최현준
정책기획관 이정은
문화정책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신은향
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소통정책관 공형식
소통지원관 정태경
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저작권국장 정향미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체육국장 강수상
체육협력관 최성희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운영지원과장 이순일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황권순
유산정책국장 이은복
문화유산국장 이종희
자연유산국장 김동대
무형유산국장 윤순호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법무감사담당관 고정주
운영지원과장 김용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심오택
사무처장 이진식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편장완
사무국장 이선영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유홍준
학예연구실장 이애령
국립국어원
원장직무대행 윤성천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김희섭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황금숙
국립국악원
원장직무대행 강대금
국립민속박물관
관장 장상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한수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박인건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김성희
기획운영단장 박승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김상욱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
사무국장 박위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직무대행 이찬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강경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임종덕
국립고궁박물관
관장 정용재
궁능유적본부
본부장 이재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노영순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정용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사무처장 송시경
예술의전당
사장직무대행 이재석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장호
경영기획본부장 김범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정용욱
경영본부장직무대리 김가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직무대행 박창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사무국장 박덕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김병재
사무국장 김종호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김홍준
사무국장 박노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서태건
사무국장 권혁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강석원
기획혁신본부장 강성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
경영본부장 유병철
미디어본부장 남정호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김태정
방송본부장 권태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사무처장 김일희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전수용
경영기획본부장 이정근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박정렬
경영기획실장 최종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 김명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하형주
전무이사 박용철
대한체육회
회장 유승민
사무총장 김나미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정진완
사무총장 이희룡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신치용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중현
사무총장 신성일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 윤두현
경영본부장 김현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신미경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박지영
국가유산진흥원
원장 이귀영
국립극단
단장겸예술감독 박정희
국립발레단
단장겸예술감독 강수진
국립오페라단
단장겸예술감독 최상호
국립합창단
경영지원팀장 한상욱
국립현대무용단
단장겸예술감독 김성용

서울예술단

단장겸예술감독직무대리 류상록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직무대행 박재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수

사무총장 김윤정

한국스포츠레저(주)

대표이사 박용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이사장직무대리 곽창용

○출석 증인

고규미(극단 상사화 대표)

김영천(조원관광진흥(주) 전무)

박상빈(주)하나투어 경영기획본부장)

유철균(경북연구원장)

황선철(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출석 참고인

남경주(뮤지컬 배우)

이상길(영화촬영부서 스태프)